

---

대학을

---

바꾸자

---

세계를

---

움직이자

---

경희대학교 미래대학리포트 2015





경희대학교 미래대학리포트 2015

“대학을 바꾸자, 세계를 움직이자”

---

# 경희대학교

## 미래대학리포트 2015

### 대학을 바꾸자, 미래를 움직이자

왜 '미래대학리포트'인가	4
누가, 어떻게 참여했나: 추진 경과 및 조사 방법	8

### 1부 | 다시 보는 오늘, 미리 보는 미래

'미래리포트': 1만여 재학생 참여한 총체적 설문조사	13
'대학의 미래와 핵심가치': 주요 대학과 이미지·능력 비교 분석	59
더 깊은 목소리: 심층조사 및 연구	77

### 2부 | 청년세대의 꿈과 희망

키워드로 보는 '미래대학리포트'	96
-------------------	----

최고의 가치는 오늘도 행복, 내일도 행복 | 남북통일은 가능하다? 낙관론과 비관론 팽팽 | '인생 삼모작 시대' 평생 직업 세 번 이상 바뀐다 | 빈부격차와 고령화, 한국사회의 가장 큰 문제 | 지구적 부의 양극화, 인류의 가장 큰 갈등 요인 | 자본주의는 영원하다, 제3의 혁명은 IT가 주도 | 평화로운 세계시민사회? 거의 불가능하다 | 미래에 가장 존경받을 사람은 경제적 부 창출하는 사람 | 대학에 다니는 이유 첫째 취업, 둘째 학벌, 셋째 학문 | 미래대학이 추구해야 할 가치 자아성찰, 진리탐구 | 미래대학이 요구하는 교수상 '인격 형성 도와주는 정신적 스승' | "나는 경희인이다" 구성원으로서 자부심 높아 | 경희의 현 강점은 교양교육, 경희를 대표하는 전공 분야 육성 시급 | 미래대학 총장의 필수 덕목, 경영능력보다 철학과 비전 | 경희가 추구해야 할 핵심가치: 심미적 합리성, 인간다움 추구

---

---

### 3부 | 대학이 바뀌어야 세계가 바뀐다

“이것은 학생들의 절규다” 학생 지원 정책 수립 시급	130
경희를 위한 제언, 세계적 명문의 요건	132
미래대학을 위한 평가 지표, Global Eminence Index	134
학내 공론화 이어 지구적 집단지성 창출	136

### 부록

경희미래리포트 설문지	138
경희 100년 미래메시지: 개교 100주년 기념식에 보내는 메시지	143
대학의 탄생과 역사	146
‘대학다운 미래대학’을 위한 가치 탐색	152

---

# “대학을 바꾸자, 세계를 움직이자”

대학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대학은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야 하는가. 경희대학교가 개교 65주년, '경희 100년 미래메시지' 50주년을 맞아 구성원의 꿈과 희망을 수렴했다. 구성원의 집단지성을 바탕으로 대학의 현주소를 파악하고, 더 나은 대학 건설을 위한 핵심 요건을 모색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2014년 두 건의 대형 설문조사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대학의 미래와 핵심 가치'(이하 '미래 핵심가치')와 '미래리포트'가 그것이다. '미래 핵심가치'는 국내 주요 대학과의 이미지 비교를 통해 미래 경희가 추구해야 할 핵심가치를 추출한 것이고, '미래리포트'는 '나의 가치'와 대학, 인류 문명 등 5개 주제에 대한 현재 인식과 미래 전망을 담았다. 이 두 조사 결과를 통합해 정리한 것이 '미래대학리포트'다.

미래대학리포트를 실시하게 된 직접적 계기가 있다. 경희는 50년 전인 1964년 개교 15주년을 맞아 당시 구성원의 뜻을 한데 모아 '경희 100년 미래메시지'를 작성, 후학들에게 남겼다. 21세기 중반을 살아갈 후학들에게 남긴 메시지의 골자는 '인류사회에 공헌하는 세계적인 명문으로 성장하라'는 것이었다. 그로부터 반세기가 흐른 뒤, 초창기 경희의 담대한 염원을 다시 현재화, 미래화한 것이 미래대학리포트이다.

## 지구적 집단지성 창출을 위하여

또 다른 계기가 있다. 지난 2009년 경희는 개교 60주년을 맞아 '경희의 미래, 인류의 미래'라는 슬로건을 채택했다. 60년 역사와 전통을 기반으로 새로운 60년을 향해 도약하는 각오이자 비전이었다. 1949년 창학이념 '문화세계의 창조와 함께 개교한 경희는 초기부터 학술기관으로서 정체성을 확고히 하는 동시에 사회기관으로서의 책임에도 남다른 관심을 기울여왔다. 이 같은 노력은 1980년대 이후 세계평화운동으로 확산됐다. 미래대학리포트는 2009년 이후 경희가 추진해온 '제2의 도약'의 성과를 재확인하고, 대학 발전의 새로운 역동성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된 것이다.

---

세 번째 계기는 보다 큰 맥락에서 비롯됐다. 대학을 둘러싼 급격한 환경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서다. 잘 알려진 것처럼 지난 세기 후반,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전 지구적으로 확산되면서 그 여파가 대학사회에도 영향을 미쳤다. 대학이 기업 논리 앞에서 자율성과 독립성을 주장하기 어려워졌고, 시공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디지털 문명이 전통적 장소로서의 대학의 위상을 흔들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교육과 연구의 본질 목적이 왜곡되는 가운데 대학의 공공성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다. 기후변화, 에너지 고갈, 인구 폭발, 부의 양극화로 대표되는 지구적 난제 앞에서 대학은 실질적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대학이 ‘좋은 삶’을 위한 보편 가치,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패러다임을 창출하는 대신 ‘영혼 없는 지식’, ‘뚝뚝한 양떼’를 양산한다는 비판과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미래대학리포트는 이 같은 배경에서 준비됐다.

이처럼 대학의 현주소를 파악하고 새로운 지향점을 모색하기 위한 설문조사는 경희대만을 위해 진행된 프로젝트가 아니다. 일회적인 과제도 아니다. 미래대학리포트가 일차적으로는 경희의 도약과 발전을 위한 소중한 참고 자료가 될 것이지만, 향후 지구적 차원의 집단지성 창출을 위한 하나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뜻을 같이하는 국내외 대학과 기업, 시민사회가 두루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 미래대학리포트가 국경을 초월한 대학 혁신 운동을 위한 하나의 ‘불씨’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물론 경희 구성원의 꿈과 희망을 일반화한다는 우려가 있을 수 있다. 한국의 교육 환경, 한국의 대학만이 갖고 있는 특수성이 세계적 보편성을 획득할 수 있느냐는 반문도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인류는 이미 세계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경희 구성원, 특히 20대 초반 청년세대의 현실 인식과 미래 전망은 국내외 동세대들에게 작지 않은 공감대를 형성할 것이다. 청년세대의 미래에 대한 불안, 대학 현실에 대한 암울한 진단, 인류 문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어두운 전망 등에는 지역적 차이점보다 지구적 공통점이 더 많다.

이번 설문조사는 대내외적으로 몇 가지 의의를 지닌다. 우선, 학생들이 대거 참여했다는 사실이다. 경희대 재학생 2만 5천 명 가운데 1만 5천여 명이 참여했다. 유례를 찾

---

아보기 힘든 참여율이다. 설문조사의 신뢰도가 참가자 수에 비례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설문에 응하는 과정을 또 다른 ‘수업’으로 보기로 했다. 재학생 절반 이상이 자기를 성찰하고 대학과 인류 문명을 전망하는 대형 강좌를 수강한 것이다. 대량 설문 결과를 입체적으로 재조명한 포커스 그룹 인터뷰(FGI), 소셜 픽션, 다이어그램, 긍정 탐구 등은 특강에 해당할 것이다.

## 대학 혁신, 공공성 회복이 관건

둘째, 학생들이 대학 운영에 참여했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대학에서 발전 전략을 수립할 때, 그 주체는 교수와 직원이다. 학생들은 늘 이차적 존재, 수혜자 위치에 머물렀다.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재학생 절반 이상이 대학 발전을 위해 자기 의견을 제시했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창학정신을 미래로 연장시켰다는 것이다. 창학이념을 교육과정에 반영하는 대학은 그리 많지 않다. 경희는 ‘학문과 평화’로 대표되는 역사와 전통을 ‘학술과 실천’의 미래 비전으로 확대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구성원의 꿈과 희망을 지구적 대학 혁신론으로 승화, 확대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경희의 슬로건 ‘경희의 미래, 인류의 미래’에는 대학의 위기가 인류의 위기라는 인식이 담겨 있다. 바꿔 말하면 대학이 살아야 인류가 살아난다는 의지가 내포되어 있다. 일찍이 아인슈타인이 말했다. “어떤 문제를 일으킨 사고방식으로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문명사적 대전환에 대처하고자 하는 대학이라면 외면할 수 없는 권고다. 아인슈타인의 지적을 대학의 위기에 국한시킨다면, 대학에 문제를 일으킨 사고방식 중 하나는 대학의 자기 성찰 능력 부족일 것이다.

대학부터 바뀌어야 한다. 대학이 바뀌어야 세계가 바뀐다. 이것이 미래대학리포트가 국내외 대학사회와 함께 다음과 같은 화두를 공론화하자고 제안하는 이유다.



---

“대학은 (국가와) 시장의 편협한 명령에 항복하도록 내버려두기에는 너무나도 중요한 공적 기관이다.”

- 제니퍼 워시번

- 21세기 대학이 존재해야 하는 근본 이유는 무엇인가.
- 대학이 지구적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 더 나은 인류문명 건설을 위해 대학이 추구해야 할 핵심가치는 무엇인가.

미래대학리포트는 ‘1차 결과’는 2015년 5월 중순 경희대 개교 66주년 기념식을 통해 교내에 발표됐다. 이어 5월 하순 영국 옥스퍼드대에서 개최된 세계대학총장회(IAUP) 창립 50주년 기념식 석상에서 그 핵심 내용이 공표됐다(IAUP는 경희를 포함한 5개 대학의 선도적인 노력으로 1965년 옥스퍼드대에서 창립됐다). 굳이 ‘1차 결과’라고 표현한 것은 미래대학리포트가 보고서 발간에서 그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미래대학리포트는 보고서 후반부에서 밝힌 것처럼, 2단계로 접어든다.

미래대학리포트 1단계는 학생 위주 조사였기 때문에 성과와 동시에 한계도 있다. 학생들의 의견을 적극 수용, 학생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한편으로 교수, 교직원, 동문, 시민 등을 대상으로 제2, 제3의 보강조사를 통해 보다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할 것이다. 아울러 공공성을 중심으로 한 미래대학론 창출과 세계 대학평가 지표(Global Eminence Index) 개발을 위해 다양한 협력 사업도 펼쳐나갈 계획이다. 국내외 대학사회와 유관 기관, 지구 시민사회의 성원과 동참을 기대한다.

### 전체 학생 2만 5천여 명 중 1만 4천여 명 참여

미래대학리포트의 가장 큰 의미는 학생들의 꿈과 희망을 수렴해 대학의 미래를 모색한다는 데 있지만, 그에 못지않게 학생들의 참여율도 적지 않은 의의를 갖는다. 설문조사와 다양한 심층토론회는 그 자체로 '또 다른 강의'였다. 학생들이 자신을 성찰하는 동시에 대학, 한국사회, 나아가 인류 문명에 대해 폭넓게 사유하는 계기가 됐다.

### '미래리포트': 5개 주제로 65문항 설문, 1만여 명 참여

- 대량 설문조사: 2014년 11~12월
- 설문 문항: 나, 한국, 인류 문명, 대학과 고등교육, 경희 등 5개 주제의 현재와 미래에 관해 총 65문항 제시
- 심층토론: 400명 샘플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소셜 픽션, 포커스 그룹 인터뷰(FGI), 다이어그램, 미래연표 등 진행(2014년 12월)
- 1차 설문 분석(총 10,107부 회수): 2015년 1월
- 2차 심층토론회: 2015년 2월
- 응답자 분포(%)
  - 신분별: 학생 86, 교수·직원·학부모·동문 등 5, 무응답 9
  - 성별: 남성 46.7, 여성 45.8, 무응답 7.5
  - 학년별: 1학년 31.2, 2학년 20.5, 3학년 17.2, 4학년 16.8
  - 단과대별: 공과대(9.6), 정경대(9.2), 경영대(7.9), 이과대(6.4), 호텔관광대(5.0), 예술디자인대(4.6), 외국어대(4.5), 전자정보대(4.5), 문과·생활과학대(3.4), 교육대학원(1.7) 등 36개 구성 기관 참여
- 1차 워크숍: 2015년 3월
- 합동교무위원회 발표 및 토론: 2015년 4월

### '대학의 미래와 핵심가치': 의인화, 능력 이미지 분석

- 실증조사(문항개발 위한 예비조사, 재학생 875명 대상): 2014년 4월
- 대량 설문조사: 2014년 10~11월
- 긍정 탐구: 2014년 9~10월
- 포커스 그룹 인터뷰: 2014년 9월
- 소셜 픽션: 2014년 6월
- 의미 네트워크 분석: 2014년 9월  
이상 연인원 4,417명 참여

---

‘미래리포트’와 ‘대학의 미래와 핵심가치’(이하 ‘미래 핵심가치’)를 통합한 ‘미래대학리포트’ 보고서는 서론과 3부, 부록으로 구성됐다. ‘대학을 바꾸자, 미래를 움직이자’는 서론으로 기획 취지를 문명사적 맥락에서 소개하고 조사 결과가 갖는 대학 안팎의 의미를 조명했다. 이어 두 조사 프로젝트의 추진 경과와 참여자 수 등을 정돈했다.

1부 ‘다시 보는 오늘, 미리 보는 미래’는 두 대량 설문조사의 주요 내용을 분석한 지면이다. 5개 주제 65문항으로 구성된 ‘미래리포트’에 나타난 함의를 시각 요소와 함께 설명했다. ‘미래 핵심가치’는 ‘미래리포트’와 조사 방식에서 큰 차이가 나, 지면 구성도 달랐다. 의인화와 능력 이미지를 분석한 것 이어서 시각적 요소가 두드러진다. 아울러 소셜 픽션, FGI, 다이어그램의 주요 내용도 발췌 소개했다.

2부 ‘청년세대의 꿈과 희망’은 1부 내용을 키워드 중심으로 통합한 것으로 ‘미래대학리포트’의 골자라고 할 수 있다. 1부 내용을 기본으로, 1차 결과에 대한 교수진의 의견, 워크숍과 교무위원회에서 제기된 의견이 녹아들어 있다. 학생들의 요구는 전공교육의 내실화와 사제시간의 회복으로 수렴된다.

3부는 경희대와 대학사회에 대한 제언이다. ‘미래대학리포트’에 나타난 학생들의 ‘절규’를 겸허하게 받아들이기 위해 대학이 변화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강조했다. 교육, 사회 진출, 대학 행정 등의 혁신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대학다운 미래대학’이 갖춰야 할 핵심가치를 제시하고, 나아가 새로운 대학평가지표(Global Eminence Inex) 개발을 위한 기본 방향을 제안했다.

부록은 4개의 관련 자료를 모았다. ‘미래리포트’ 대량 설문 문항, 1964년 경희 100년 미래메시지 전문을 싣고, 대학의 탄생에서부터 중세를 거쳐 현대에 이르는 대학 역사를 한눈에 살필 수 있는 지면을 마련했다. 또한 미래대학의 가치를 탐색하는 최근 자료를 덧붙여 대학의 과거와 미래를 성찰하고 전망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했다.

1 다시 보는  
오늘,  
미리 보는  
미래

‘나’는 지금 어디에 있으며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경희가 개교 65주년, ‘경희 100년 미래메시지’ 50주년을 맞아 구성원, 특히 재학생을 대상으로 두 건의 대형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경희의 역사와 전통을 창조적으로 계승하고, 경희의 미래는 물론 고등교육과 인류 문명의 미래를 모색하기 위해서다.

‘미래리포트’는 재학생 1만 여명이 참여한 대단위 설문조사로, ‘나’, 한국 사회, 인류문명, 대학과 고등교육, 경희 등 5개 영역에서 오늘을 성찰하고 50년 후의 미래를 상상했다. 새로운 조사 기법을 동원한 ‘대학의 미래와 핵심가치’는 국내 주요 대학과의 이미지 비교를 중심으로 경희의 자기 정체성을 확인하고, 미래 경희가 추구해야 할 핵심가치를 도출했다.

두 조사 결과를 통합한 것이 ‘미래대학리포트’(2부)다. 미래대학리포트는 경희의 도약 발전을 위한 소중한 기초 자료로 활용되는 것은 물론, 국내외 대학사회가 참여하는 지구적 대학 혁신 운동을 위한 출발점 역할을 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 미래리포트: 1만여 재학생이 참여한 설문조사

경희대 재학생 2만 5천 명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1만여 명이 참여한 '미래리포트'는 5개 분야 65개 문항으로 설계됐다. 2014년 6월부터 본격 추진된 미래리포트는 학년별, 전공별, 캠퍼스별 균형을 맞춰 대량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어 FGI, 소셜 픽션, 다이어그램, 연표 작성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학생들의 의식을 다양한 각도에서 접근할 수 있었다. 미래리포트 분석 결과, 학생들은 행복을 추구하는 가운데 취업과 진로에 대해 깊은 고민을 하고 있었다. 50년 후 대학과 인류의 미래에 대한 상상에도 현실 인식이 깊숙이 투영되어 있었다.

## 가장 소중한 가치, ‘행복’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에 대해 스스로 질문하는 일은 자기 삶의 현 좌표를 확인하고 그 바탕 위에 미래를 설계하는 것과 관련된다. 구성원들에게 “현재와 미래에 소중한 가치는 무엇인가”라고 묻는 것은 “대학교육의 미래를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가”라는 질문과 맞물린다.

### 1위는 ‘행복’, 2위는 ‘자아실현’과 ‘건강’으로 현재-미래 순위 변동

경희 구성원은 2014년 현재와 50년 후 미래 모두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가치로 ‘행복’을 꼽았다. 현재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가치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 전체의 약 39.5%(3918명)가 ‘행복’을 선택했고, 다음으로 ‘자아실현’(12.8%, 1273명), ‘사랑’(8.7%, 866명)이 뒤따랐다. 50년 후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가치를 묻는 질문에서도 ‘행복’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전체의 37.4%(3712명)를 차지했다. ‘건강’이라는 응답은 19.1%(1890명)로 행복 다음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여유’(9.4%, 930명), ‘사랑’(7.8%, 772명) 등이 그 뒤를 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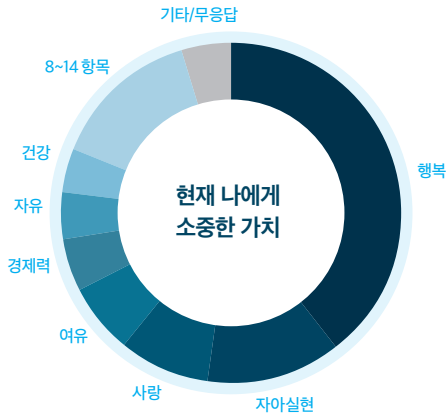
현재 비교적 중요한 가치인 ‘자아실현’에 대한 응답률이 50년 후에는 떨어지고(현재 2위, 12.8%/50년 후 6위, 3.9%), 현재는 그다지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지 않은 ‘건강’이 50년 후에는 더 중요한 가치가 될 것이라는 예측(현재 7위, 4.1%/50년 후 2위, 19.1%)이 흥미롭다. 그룹 심층토론(FGI)을 통해 각각도로 분석한 결과, 이 같은 답변은 현재 대학교육을 받으며 높아진 자아실현에 대한 욕구, 취업난 속에서 스펙을 높이기 위한 자기계발에 열중해야 하는 현실을 대변한다고 볼 수 있다. 미래의 소중한 가치로 ‘건강’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고령화 사회, 의료비 상승, 복지제도 등에 대한 염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 행복의 의미, 행복에 이르는 길에 대한 교육 시급

행복이 현재는 물론 미래에도 가장 중요한 가치로 떠오른 것은 현재와 미래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을 반영한다. 현재 행복하다면, 그리고 미래에도 행복할 것이라고 전망한다면 행복보다는 다른 가치를 추구할 것이다. 행복에 대한 추구는 불행한 현실에 대한 인식을 투사한 것으로 보인다. 후마니타스 칼리지 이윤성 교수는 “현재 대학이 이토록 소중한 가치인 행복을 어떻게 바라보고, 가르치고 있는가”라고 반문하며, 경희에서 선도적으로 행복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행복에 대한 정의는 시대에 따라, 또 개인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하지만 사회적 맥락에서 의미를 얻지 못하는 행복은 진정한 행복이라고 할 수 없다. 행복에 대한 교육은 교양교육, 시민교육과 무관하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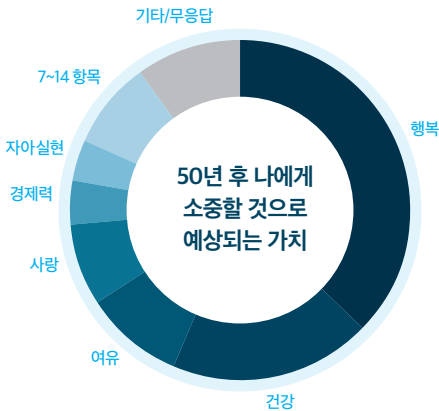


**Q 2014년 현재 나에게 가장 소중한 가치는 무엇인가?**



순위	가치	빈도 (%)
1	행복	3918 (39.5)
2	자아실현	1273 (12.8)
3	사랑	866 (8.7)
4	여유	645 (6.5)
5	경제력	500 (5.0)
6	자유	446 (4.5)
7	건강	408 (4.1)
8	정의	209 (2.1)
9	인성	184 (1.9)
10	공동체	118 (1.2)
11	공감	112 (1.1)
12	생명	75 (0.8)
13	안전	41 (0.4)
14	평등	26 (0.3)
-	기타 및 무응답	451 (4.5)
	총계	9912 (100)

**Q 50년 후 나에게 가장 소중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치는 무엇인가?**



순위	가치	빈도 (%)
1	행복	3712 (37.4)
2	건강	1890 (19.1)
3	여유	930 (9.4)
4	사랑	772 (7.8)
5	경제력	414 (4.2)
6	자아실현	388 (3.9)
7	생명	157 (1.6)
8	공동체	155 (1.6)
9	자유	135 (1.4)
10	정의	128 (1.3)
11	인성	98 (1.0)
12	공감	97 (1.0)
13	안전	55 (0.6)
14	평등	17 (0.2)
-	기타 및 무응답	964 (9.7)
	총계	9912 (100)

## ‘주변 사람들’이 가치관 형성에 큰 영향

가치관 형성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을 살펴보고, 50년 후 미래를 위해 지금부터 갖춰나가야 할 능력은 무엇인지 조사했다. 의외로 두 질문에 대한 답은 ‘인간관계’로 모아졌다. 학가족, 과도한 경쟁 체제 속에서 성장한 세대의 ‘결핍’이 그대로 드러난다.

### 독서, 종교, 학교교육은 가치관 형성에 도움 못 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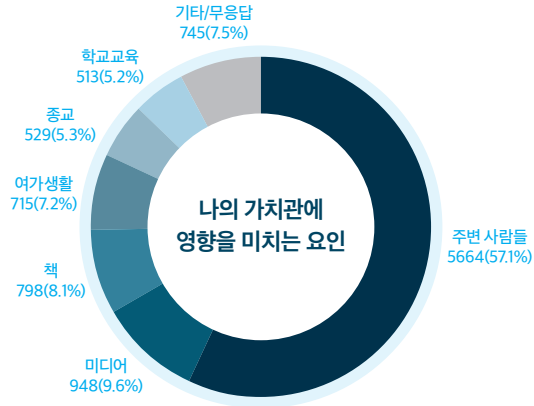
현재 나의 가치관 형성에 가장 크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 요인이 무엇인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약 57%(5664명)가 ‘주변 사람들’을 꼽았다. 이어 ‘미디어’(9.6%, 948명), ‘책’(8.1%, 798명), ‘여가생활’(7.2%, 715명), ‘종교’(5.3%, 529명) 순으로 응답했다. ‘학교교육’은 5.2%(513명)를 차지하며 6위에 그쳤다. 기타 응답으로는 ‘살아오면서 겪은 모든 일들(경험)’, ‘여행’, ‘사색/사유’, ‘주변 환경’ 등이 있었다. 공교육의 한계가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50년 후 나의 미래를 위해 현재의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묻는 질문에는 ‘인간관계’가 27.2%(2682명)로 1위를 차지했다. 인간관계 다음으로 ‘전문지식’이 22.5%(2233명), ‘건강’이 22%(2180명), ‘경제력’이 21.6%(2142명)로 조사돼 네 가지 보기에 대한 응답이 비슷한 분포를 보였다. 약 6.7%의 기타 응답에는 ‘성실함’, ‘능력/실행력’, ‘자아성찰(자신에 대한 이해)’, ‘다양한 경험’, ‘꿈/비전’, ‘자신감/자존감’ 등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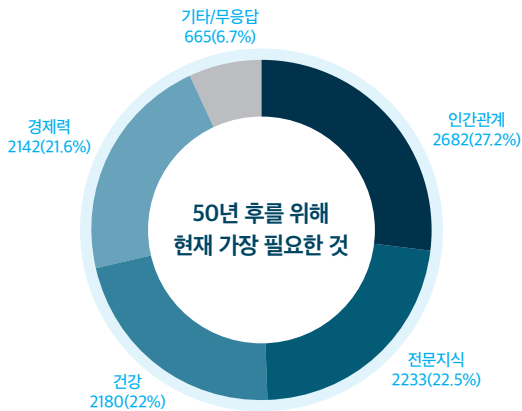
### 관계 맺기 능력 길러주는 교육 필요, 교양교육 강화는 높이 평가

현재 가치관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50년 후를 위해 현재 필요한 것을 묻는 질문에 ‘주변 사람들’과 ‘인간관계’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은 눈여겨볼 만하다. 또한 현재 내게 필요한 것으로 인간관계, 전문지식, 건강, 경제력이 균등한 비율로 꼽힌 것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경희 구성원이 소중한 가치로 꼽는 행복이란 인간관계의 성숙과 함께 자신의 생존 기반을 견실하게 다지는 것이다. 후마니타스칼리지 김민웅 교수는 “현실에서 자신의 능력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전공교육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다양한 관계 맺기 능력을 길러주는 것이 대학교육의 중요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학생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학교교육은 가치관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학생들은 초중고 교육은 물론 취업을 강조하는 대학교육이 인성에 도움을 주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경희대가 후마니타스칼리지를 통해 교양교육을 강화한 것을 높이 평가했다. 한편, 학점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토론과 발표를 활발히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안했다. 학생들은 전문지식의 제고와 인간관계의 축적, 경제력을 통해 미래를 준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Q** 현재 나의 가치관 형성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요인은 무엇인가?



**Q** 50년 후 나의 미래를 위해 현재의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 통일, '가능하다' 51%, '불가능하다' 49%

한반도는 지정학적으로 국제정세의 변화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통일 문제는 더욱더 그렇다. 남북통일의 가능성에 대해 질문한 결과, 50년 안에 남북통일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약 51%(5201명),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약 49%(4843명)로 상반된 반응이 팽팽하게 맞섰다.

### 남북협상으로 통일, 미국 영향 가장 커

가까운 미래에 통일이 된다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인가를 묻는 질문에 '남북협상으로' 가능할 것이라는 의견이 27.6%(2738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주변국 정세 변화에 의해 가능하다'는 의견이 22.2%(2202명), '독일과 같은 방법으로'라는 응답이 17.3%(1715명), 'UN과 같은 국제기구를 통해 가능하다'는 응답은 14.1%(1394명)로 조사됐다. '전쟁으로' 통일될 것이라는 의견도 10.3%(1022명)로 적지 않은 응답률을 기록했다. 분단에 따른 긴장의 연속,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는 국지전 혹은 내전 때문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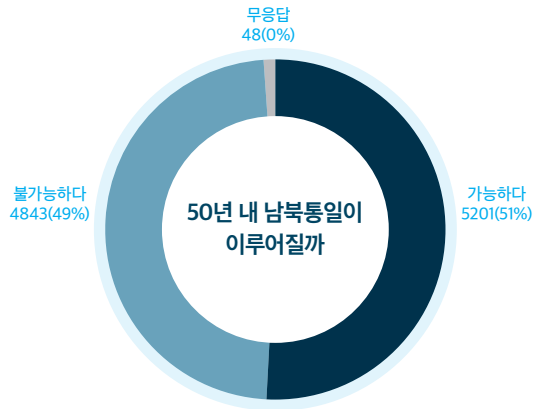
통일 한국의 지위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들 중 34.1%(3377명)가 '미국의 영향을 받는다'를 첫 번째로 꼽았고, 다음으로 '국제기구의 영향을 받는다'는 응답이 26.5%(2629명)였다. '완전히 자주자립한다'는 17%(1728명), '중국의 영향을 받는다'는 14%(1354명), '일본의 영향을 받는다'는 응답이 1%(62명)로 뒤를 이었다. 통일한국이 자주자립한다는 의견이 약 17%를 차지한 반면, 주변국이나 국제기구의 영향을 받는다는 의견이 약 75%나 차지했다. 한국의 자주자립 통일 가능성을 매우 낮게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기타 의견(7.7%, 762명)으로는 '여러 나라의 영향을 복합적으로 받음', '통일이 안 될 것 같음', '미국과 중국의 영향을 받음' 등이 있었다.

### 주변국, 국제기구의 영향은 불가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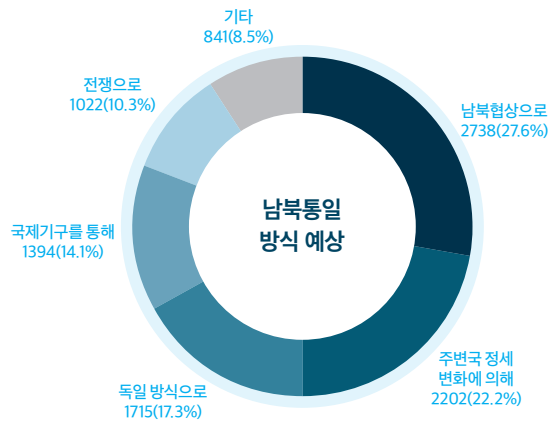
학생들이 참여한 FGI에서는 남북 간의 격차 심화, 현 정권의 강경한 태도, 통일 비용, 주변국 정세 문제 등을 극복해야 통일이 가능할 것이라는 의견이 오갔다. 향후 50년은 많은 변화가 가능한 시간으로 남북한이 노력한다면 통일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도 있었다. 그러나 대부분 북한정권에 대한 불신과 불안감이 상승하고 있으며, 통일에 대한 젊은 세대의 관심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통일이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았다.

남북협상을 통한 주체적인 통일은 더욱 힘들 것으로 예상했다. 현재 우리나라 안보 정책이 자주적이지 못하고, 국가 간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주변국이나 국제기구의 영향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이다. 국제 정세를 고려할 때 통일 한국의 지위 역시 자주자립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비관적 전망 속에서도 통일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통일 한국이 갖는 장점이 적지 않더라도, 화해 분위기를 조성하는 전초 단계를 만들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제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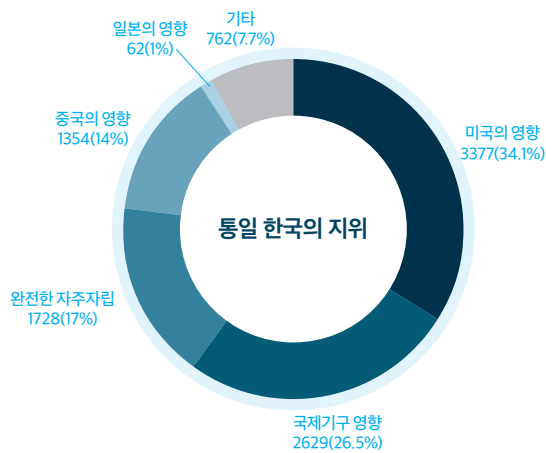
**Q** 앞으로 50년 안에 남북통일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는가?



**Q** 가까운 미래에 통일이 된다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는가?



**Q** 통일 한국의 지위는 어떠한 것으로 예상하는가?



## 50년 후, GNP 상승하고 인구 증가

국민총생산과 인구, 평균 수명은 어떻게 변화할까. 전문가들의 예측과 달리 인구는 줄어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됐다. 국민총생산의 세계 순위도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조사됐다. 외국인 거주 비율도 완만하게 증가한다.

### 50년 후 한국의 GNP는 세계 24위

50년 후 한국의 1인당 국민총생산, 인구, 국내 거주 외국인 등록자 수, 평균 수명을 예측해 한국사회의 미래 모습을 전망했다. 50년 후 한국의 1인당 국민총생산은 세계 몇 위일 것으로 예상하느냐는 질문에 대한 총 9721명의 응답을 종합한 결과, 약 24위로 나타났다. 2014년 한국의 1인당 국민총생산이 세계 33위인 것을 감안할 때 응답자들은 순위가 약 9단계 상승할 것으로 예측했다.

### 한국의 인구는 계속 늘어날 것

2006년 데이비드 콜먼 옥스퍼드대 교수는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소멸 국가 1호'가 한국이 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2009년 유엔미래보고서는 2100년 한국의 인구가 지금의 절반도 안 되는 2천만 명으로 줄어들고 2700년에는 인구가 소멸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러한 비관적인 예측에도 불구하고, 경희 구성원은 50년 후 한국의 인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50년 후 한국의 인구는 몇 명일 것으로 예상하느냐는 질문에 약 5514만 명일 것이라 결과가 나왔다. 2014년 현재 한국의 인구 약 4900만 명보다 약 600만 명 더 많은 수치다.

### 외국인 거주 비율은 열 명 중 한 명꼴

50년 후 국내 거주 외국인 비율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들은 약 11%로 예측했다. 이는 응답자 9768명의 답변의 평균을 산출한 것으로, 2014년보다 8% 늘어난 수치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국내 거주 외국인은 2014년 150만 명을 돌파했다. 국내 거주 장기체류 외국인, 귀화자 등 외국인 주민이 모두 약 156만 명에 달한다. 이는 전체 주민등록인구(5114만1463명) 대비 3.1% 수준으로, 대전시(153만2811명) 인구보다 많은 수준이다.

### 50년 후 평균 수명은 96세에 육박

50년 후 한국인의 평균 수명을 예상해보라는 질문에는 총 9766명이 응답했으며, 응답의 평균은 95.9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4년 현재 한국인의 평균 수명인 82세보다 약 14세 늘어난 수치이다. 평균 수명 100세 시대를 향해가는 흐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다. 경희 구성원은 국민총생산, 인구, 외국인 거주 비율, 평균 수명이 모두 상승할 것으로 예측하며 50년 후 한국사회에 대한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표출했다.

---

**Q** 2014년 현재 한국의 1인당 국민총생산은 세계 33위(2만4천 달러)이다. 50년 후 한국의 국민총생산은 전 세계 몇 위일 것으로 예상하는가?

**24.1**

24.1위 | 총 9721명 응답

---

**Q** 현재 한국의 인구는 약 4900만 명이다. 50년 후 한국의 인구는 대략 몇 명일 것으로 예상하는가?

**5514.3**

약 5514.3만 명 | 총 9629명 응답

---

**Q** 현재 국내 거주 외국인 등록자 수는 약 1백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2%에 달한다. 50년 후 국내 거주 외국인 비율은 몇 %가 될 것인가?

**11**

약 11% | 총 9768명 응답

---

**Q** 현재 한국인의 평균 수명은 82세(여자 85세, 남자 79세)이다. 50년 후 한국인의 평균 수명은 몇 세일 것으로 예상하는가?

**95.9**

약 95.9세 | 총 9766명 응답

## 다양한 가족 형태 출현, 1인 가구도 늘어난다

50년 후 결혼 제도와 가족 형태는 어떤 변화를 겪을 것인가. 부부 중심의 핵가족, 소자녀 가족, 노령화 가족, 국제결혼이 늘어나는 가운데 1인 가구의 증가세가 가팔라지고 있다. 현재의 결혼 제도가 폐지될 것이라는 전망은 의외로 낮았다.

### 사실혼, 동성결혼 등 다양성 인정해야

현재의 결혼 제도가 50년 후에 어떻게 바뀔 것인가를 묻는 문항에서 '사실혼(동거)의 법적 권리가 인정'되는 방향으로 변화할 것이라는 응답이 35.4%(3509명)로 가장 많았다. '동성결혼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바뀔 것이라는 응답도 33.6%(3333명)로 뒤를 이어, 응답자 대다수가 향후 50년간 새로운 가족 형태가 출현하고 결혼에 대한 인식도 변화할 것이라 예측했다.

'현재의 결혼 제도가 유지'될 것이라는 응답은 24.2%(2403명)로 조사됐으며, '결혼 제도가 폐지될 것'이라는 급진적인 응답은 2.4%(236명)에 그쳤다. 약 4.3%를 차지한 기타 응답에는 '결혼 제도는 존재하나 의미가 크지 않을 것임', '자유로운 시민결합의 형태를 띠 것', '모든 형태의 결혼이 인정될 것' 등이 있었다.

FGI에서는 보다 심층적인 의견이 나왔다. 참여자들은 현 결혼 제도의 문제점을 거론하며, 사실혼이나 동성결혼이 세계적·시대적인 흐름임을 확인했다. 법적 권리를 인정하는 것과는 별개로 사실혼과 동성결혼이 인정받기까지는 어려움이 뒤따를 것이라는 의견, 종교적 문제 등 가치관 사이의 간극을 좁혀나가는 것이 관건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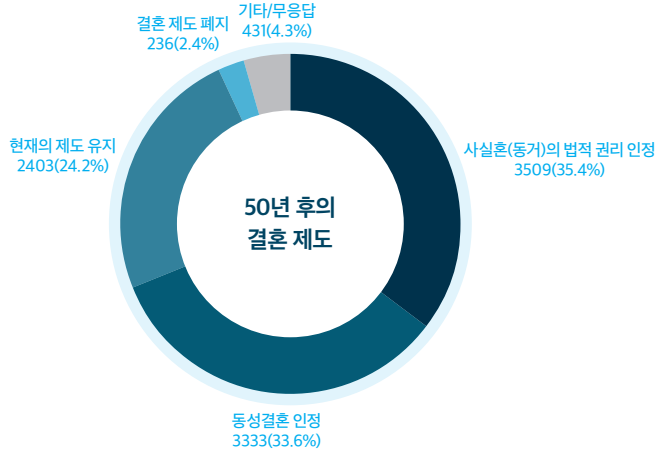
### 국제결혼, 1인 가구 늘어난다

50년 후 한국의 국제결혼 비율은 약 22.2%에 이를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현재 한국의 국제결혼 비율인 10%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수치다. 50년 후 한국의 1인 가구 비율을 묻는 질문에는 총 9745명이 응답, 1인 가구가 전체 가구의 33.9%에 달할 것으로 조사됐다. 전 세계적으로도 1인 가구 비율이 높아지는 추세다. 통계청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 2000년 전체 인구의 15.6%였던 1인 가구가 2015년에는 27%를 넘어선다.

1인 가구가 2035년에는 34.3%에 달할 것이라는 추정도 나오고 있다. 통계청 '장래가구' 추계치(2014년 26.5%)보다 약 7.4% 높은 수치다. 미래리포트 응답자들 역시 향후 50년간 국내 1인 가구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비혼·만혼의 증가, 이혼 및 별거, 기러기 가족의 증가, 대도시 중심의 취업형 단독 가구 증가, 고령화에 따른 노인 독신 가구의 증가 등으로 1인 가구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Q 현재의 결혼 제도는 50년 후에 어떻게 바뀔 것으로 보는가?



Q 현재 한국에서 결혼하는 부부의 10% 정도는 국제결혼이다. 50년 후에는 국제 결혼이 몇 %가 될 것으로 예상하는가?

22.2

약 22.2% | 총 9808명 응답

Q 만혼과 비혼, 고령화 등으로 인해 국내 1인 가구 비율이 1990년 10%에서 2010년 20%로 증가했다. 50년 후 한국의 1인 가구 비율은 전체 가구의 몇 %일 것으로 예상하는가?

33.9

약 33.9% | 총 9745명 응답

## 50년 후에도 평생직장은 없다

취업과 진로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시대보다 높아지고 있는 이때, 사회 진출을 눈앞에 둔 경희 구성원은 미래 직업과 노동시간, 재택근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 50년 뒤에는 평생 4~5가지 직업을 갖게 될 것이란 응답이 다섯 명 중 한 명 이상으로 나타났다.

### 미래엔 평생 2~3개의 직업을 갖게 될 것

50년 후 한 사람이 평생 동안 갖게 될 직업의 수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63.7%(6318명)가 '2~3가지'를 꼽았다. '4~5가지'라고 응답한 비율이 22.6%(2245명)로 뒤를 이었고, '한 가지 직업을 유지'한다는 응답은 6%(609명)에 불과했다. 응답자의 대다수가 미래에는 2가지 이상의 직업을 갖게 된다는 것을 상식으로 받아들이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같은 결과는 미래학자들의 의견과 일치한다. <유엔미래보고서 2045>는 향후 20년 안에 등장하는 몇 가지 파괴적 기술이 수많은 일자리를 소멸시킬 것으로 예측한다. 하지만 일자리가 줄어들더라도 일거리는 부족하지 않을 것이며, 계약직이나 시간제 근로 형태로 매번 새로운 일에 투입될 것이라고 예측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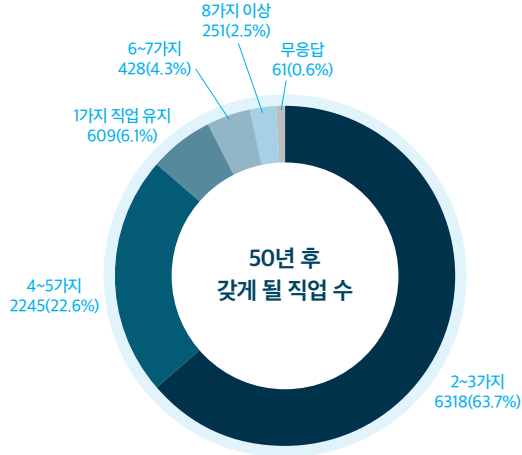
심층토론에서도 참여자들은 평생직장 개념이 사라지고 있다는 데 동의하고 있다. 사회가 다양해지고 급속하게 변화함에 따라 여러 직업을 가지게 될 것으로 보았다. 고용없는 성장에 따른 불안정한 고용 구조, 빠른 속도로 다가오는 고령화 사회 등 여러 요인이 겹쳐 '인생 3모작 시대'가 현실로 다가온다는 해석이다.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여러 직업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의견도 나왔다.

### 50년 후 노동시간은 44시간, 현재 OECD 평균에도 못 미쳐

근로자의 노동시간이 꾸준히 감소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2014년 한국노동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주당 평균 노동시간은 50시간을 상회한다. 경희 구성원은 노동시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50년 후 한국의 주당 평균 노동시간을 묻는 질문에 총 9617명이 응답했으며, 이들 응답의 평균은 44시간인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노동시간에 비해 6시간 줄어든 것이다. 그러나 2013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평균 주당 노동시간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2013년 현재 OECD 평균 주당 노동시간은 32.9시간이다.

50년 후 한국의 재택근무 비율은 27.8%에 이를 것으로 조사됐다. 예상보다 높지 않은 수치다. 현재 근로자가 개인 여건에 따라 근무 시간과 형태를 조절할 수 있는 유연 근무제가 미국과 일본뿐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확대되는 추세다.

Q 50년 후에는 한 사람이 평생 몇 개의 직업을 갖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Q 현재 한국의 주당 평균 노동시간은 50시간 정도로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다. 50년 후 한국의 주당 평균 노동시간은 몇 시간일 것으로 예상하는가?

44

약 44시간 | 총 9617명 응답

Q 50년 후 한국의 재택근무 비율은 몇 %일 것으로 예상하는가?

27.8

약 27.8% | 총 9609명 응답

## ‘빈부격차’와 ‘고령화 사회’ 극복해야

경희 구성원의 상당수가 ‘빈부격차’를 현재 한국사회의 가장 큰 걸림돌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0년 후에는 ‘고령화’를 한국사회의 가장 큰 문제로 꼽았다. 경제 민주화와 복지제도 전반에 대한 깊은 성찰과 대안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 가장 큰 문제는 ‘빈부격차’, ‘민주주의 위기’도 해결해야

현재 한국사회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34.5%(3419명)가 ‘빈부격차’를 꼽았다. ‘민주주의 위기’는 14.2%(1403명)로 2위를 차지했다. 이어 ‘출산율 저하’가 12%(1191명), ‘고령화’가 7.3%(724명)로 조사됐다. ‘남북갈등’은 5.3%(528명), ‘세대갈등’은 4.5%(442명), ‘지역갈등’은 3.6%(355명)로 나타났다. ‘에너지 자원 부족’, ‘환경문제’를 꼽은 응답은 각각 1.7%(169명, 165명)를 기록했다. 기타 의견으로 ‘핵문제’, ‘종교갈등’, ‘식량부족’, ‘시민의식 부족’, ‘리더의 부재’, ‘부정부패’, ‘정치갈등’, ‘청년실업’ 등이 있었다.

경희대 재학생과 교직원 각각 400명의 응답 샘플을 비교 분석한 결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특히 민주주의의 위기에 대한 체감온도가 컸다. 경희대 재학생은 21.3%(85명), 교직원은 10.5%(42명)로 경희대 재학생이 교직원보다 약 2배 높게 민주주의의 위기를 한국사회의 문제로 꼽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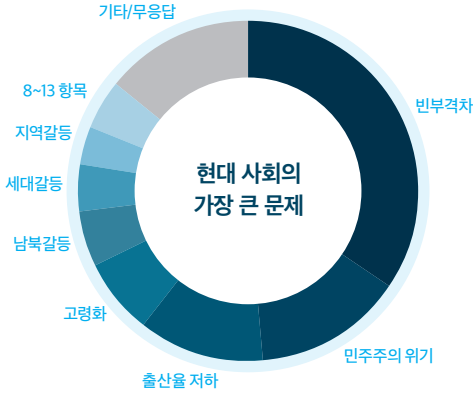
집담회에서는 보다 심층적 분석이 제기됐다. 빈부격차는 자본주의의 허점이며, 한국사회를 넘어 인류가 직면한 문제라는 의견이 나왔다. 사회복지 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빈부격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민의식의 성숙이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도 눈에 띈다. 장기적 안목을 가지고 사회안전망 구축에 힘써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주의 위기’가 두 번째로 꼽힌 또 다른 이유는 사회 정의의 부재, 즉 한국 정치 현실에 대한 불신 때문이라는 해석도 나왔다.

### 50년 후 ‘고령화’가 가장 큰 문제, 2위는 ‘빈부격차’

“50년 후 한국사회가 직면할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라고 보는가”라고 묻는 질문에 ‘고령화’라는 응답이 21.8%(2157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빈부격차’는 19.2%(1900명)로 두 번째로 높은 응답률을 보였고, ‘출산율 저하’가 13.4%(1331명)로 뒤를 이었다. 출산율 저하가 곧 고령화 문제로 연결된 것으로 풀이된다. ‘에너지 자원 부족’(8.7%, 864명)과 ‘환경문제’(8.1%, 801명)는 8%대의 비슷한 응답률을 보였고, ‘민주주의 위기’(4%, 396명), ‘세대갈등’(3.6%, 358명), ‘남북갈등’(3.3%, 329명), ‘식량부족’(3%, 296명) 등도 한국사회의 50년 후의 문젯거리로 지목됐다. 약 15%를 차지하는 기타 응답으로는 ‘인종갈등’, ‘지역갈등’, ‘핵문제’, ‘종교갈등’, ‘정치’ 등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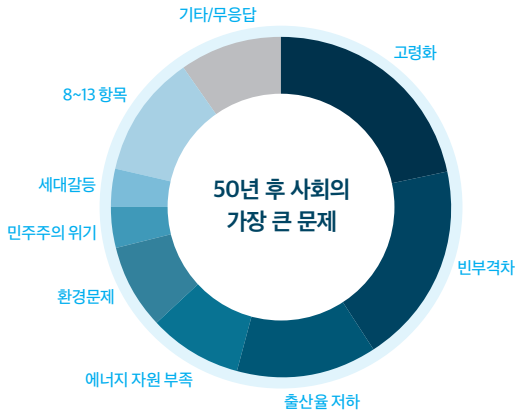
후마니타스칼리지 김민웅 교수는, 이 같은 결과는 응답자들이 미래에 대한 불안을 호소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빈부격차와 고령화는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결합되어 있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고령화 사회의 불평등한 정치경제적 조건에 대한 교정이 얼마나 중대한 과제인지 보여준다는 것이다.

**Q** 현재 한국사회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인가?



순위	사회문제	빈도 (%)
1	빈부격차	3419 (34.5)
2	민주주의 위기	1403 (14.2)
3	출산율 저하	1191 (12.0)
4	고령화	724 (7.3)
5	남북갈등	528 (5.3)
6	세대갈등	442 (4.5)
7	지역갈등	355 (3.6)
8	에너지 자원 부족	169 (1.7)
9	환경문제	165 (1.7)
10	핵문제	69 (0.7)
11	종교갈등	27 (0.3)
12	인종갈등	24 (0.2)
13	식량부족	18 (0.2)
-	기타 및 무응답	1378 (13.9)
총계		9912 (100)

**Q** 50년 후 한국사회가 직면할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라고 예상하는가?



순위	사회문제	빈도 (%)
1	고령화	2157 (21.8)
2	빈부격차	1900 (19.2)
3	출산율 저하	1331 (13.4)
4	에너지 자원 부족	864 (8.7)
5	환경문제	801 (8.1)
6	민주주의 위기	396 (4.0)
7	세대갈등	358 (3.6)
8	남북갈등	329 (3.3)
9	식량부족	296 (3.0)
10	인종갈등	184 (1.9)
11	지역갈등	182 (1.8)
12	핵문제	102 (1.0)
13	종교갈등	68 (0.7)
-	기타 및 무응답	944 (9.5)
총계		9912 (100)

## 국가 간 부의 양극화가 가장 큰 난제

현재 인류사회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로 '국가 간 부의 양극화'가 꼽혔다. 한국사회의 가장 큰 문제로 '빈부격차'를 꼽은 것과 일맥상통한다. 부의 양극화는 다양한 양극화를 낳는다. 생태·환경 및 에너지 문제에 대한 관심도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 생태·환경문제 해결도 시급하다

2014년 현재 인류사회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가장 많은 25.8%(2558명)의 응답자가 '국가 간 부의 양극화'라고 답했다. 뒤이어 '기후변화'(16.9%, 1672명), '생태계 위기'(13.9%, 1380명), '석유 등 화석에너지 고갈'(12.6%, 1250명) 등 생태·환경문제를 인류사회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종교갈등'(4.7%, 468명), '전쟁'(4.4%, 435명), '질병'(3.9%, 386명), '식량 무기화'(3%, 301명), '인종갈등'(2.9%, 288명), '테러'(2.6%, 258명), '인구 폭동'(1.8%, 178명)을 선택한 응답자들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과도한 경쟁', '자본주의', '경제위기', '인간성 상실' 등이 기타 의견으로 제시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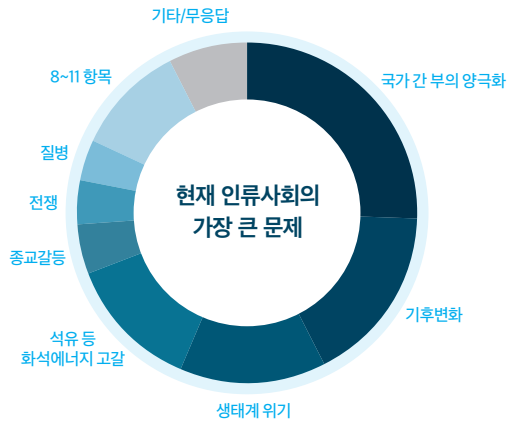
### 자본주의에 대한 근본적 성찰 필요

이 같은 결과에 대해 FGI 참여자들은 부의 양극화 문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인류 전체의 문제라는 것에 동의하면서 이 문제가 생태·환경 분야와도 연관된다고 해석했다. 하지만 부의 양극화는 해결하기 어렵다는 비판적 입장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한편에서는 부의 재분배를 위한 사회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시민들이 각성해 '갑'으로의 권력 집중을 막을 수 있다면 양극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기후변화와 생태계 위기를 심각하게 인식하는 이들도 적지 않았다. 거시적 차원에서 기후변화를 막기는 어렵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아마존 원시림으로 대표되는 자연 생태계의 파괴부터 막아야 한다는 구체적 해결책을 제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기후변화와 생태계 위기 등은 언론 보도와 학교교육을 통해 간접적으로 인식해 적극적 대처에 나서지 않는다는 한계를 지적하기도 했다.

후마니타스칼리지 홍승태 교수는 경희 구성원들이 현재 인류가 직면한 문제에 대해서 매우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국가 간 경제적 양극화와 전 지구적 환경과 에너지 고갈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은 현재 자본주의 문명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과 대안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반영한다고 보았다.

Q 2014년 현재 인류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난제는 무엇인가?



순위	인류사회 문제	빈도 (%)
1	국가 간 부의 양극화	2558 (25.8)
2	기후변화	1672 (16.9)
3	생태계 위기	1380 (13.9)
4	석유 등 화석에너지 고갈	1250 (12.6)
5	종교갈등	468 (4.7)
6	전쟁	435 (4.4)
7	질병	386 (3.9)
8	식량 무기화	301 (3.0)
9	인종갈등	288 (2.9)
10	테러	258 (2.6)
11	인구 폭등	178 (1.8)
-	기타 및 무응답	738 (7.4)
	총계	9912 (100)

## 50년 후에도 자본주의는 현재진행형

경희 구성원 절반 이상이 50년 후 자본주의가 다른 종류의 문명과 결합해 더욱 발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제3의 혁명 가능성에 대해서는 IT 분야에서 일어날 것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제3차 대전이 일어난다면 아시아에서 일어날 것이라는 예측도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 50년 후 자본주의는 더욱 발전하거나 지금과 같을 것

50년 후 자본주의 문명은 어떻게 될 것이라고 예상하느냐는 질문에 자본주의가 '다른 종류의 문명과 결합하여 더욱 발전할 것'이라는 답변이 전체 응답의 54.4%(5390명)를 차지했다. 이어 '현재와 같은 시스템을 유지'한다는 응답도 26.6%(2639명)로 두 번째로 많은 응답을 기록했다. 경희 구성원 10명 중 8명이 자본주의가 계속 유지되고 발전될 것이라 예상한 것이다. '완전히 다른 문명이 도래할 것이라는 응답은 15.9%(1577명)를 차지했다. 약 3%에 해당하는 기타 의견으로는 '자본주의는 쇠퇴할 것', '수정된 자본주의로 발전할 것', '양극화가 심화될 것' 등이 있었으며, '예측할 수 없다'는 답변도 있었다.

### 제3의 혁명은 IT, 생명공학, 우주개발 순

농업혁명, 산업혁명에 이은 제3의 혁명이 일어나고 있다면 특히 어떤 분야에서 강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지식정보(IT) 분야'라는 답변이 49.9%(4943명)로 가장 많았다. '생명공학 분야'라는 답변은 19.2%(1902명)로 IT 분야 다음으로 유망한 분야로 꼽혔고, '우주개발 분야'(11.6%, 1149명), '생태·환경 분야'(7.3%, 721명), '자원 분야'(7.2%, 716명) 등의 답변이 뒤를 이었다. 농림어업 등 1차 산업 분야를 꼽은 응답자는 전체의 2.3%(224명)로 소수였다. '금융', '문화산업', '식품식량 산업', '제조업'이 기타 의견으로 제시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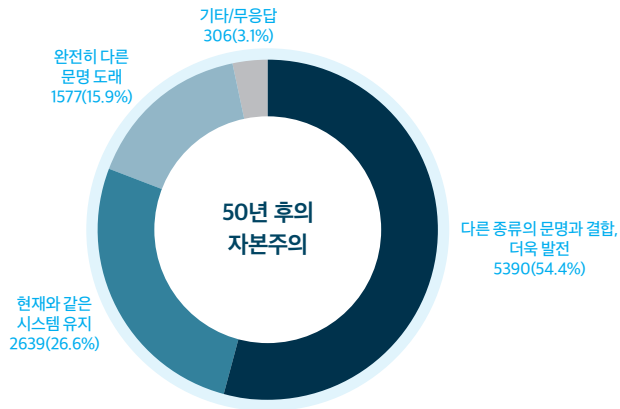
### 제3차 대전이 일어난다면 '아시아'

가까운 미래에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난다면 어느 지역에서 일어날 것이라고 보느냐는 질문에 '아시아'라고 답한 응답자가 40.9%(4050명)로 가장 많았다. '중동'이라는 답변도 39%(3864명)로 '아시아'라는 응답과 유사한 비율로 높게 나타났다. '아프리카'는 7.2%(716명), '유럽'은 4%(401명), '북미'는 2.7%(267명), '중남미'는 2.3%(231명)로 뒤를 이었다. 약 4%를 차지한 기타 응답으로는 '한반도', '태평양', '러시아', '미국과 중국 간', '일어나지 않는다' 등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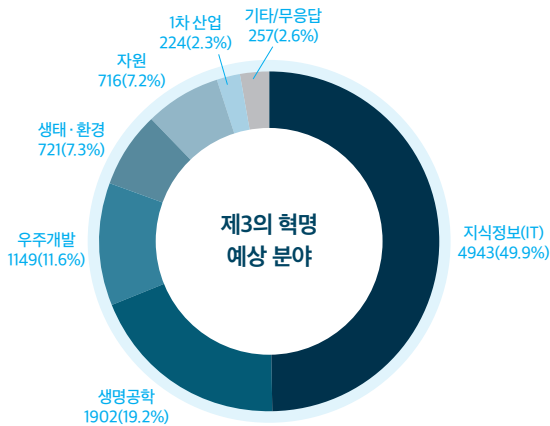
아시아 지역이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한 것은 남북한 갈등과 동북아를 둘러싼 강대국의 첨예한 이해관계 때문으로 보인다. 현재 중동지역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테러와 전쟁의 위험보다 오히려 아시아 지역의 불안한 국제관계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은 미국과 중국, 중국과 일본, 미국·일본과 중국·북한, 미국과 북한 등 복합적인 파워 게임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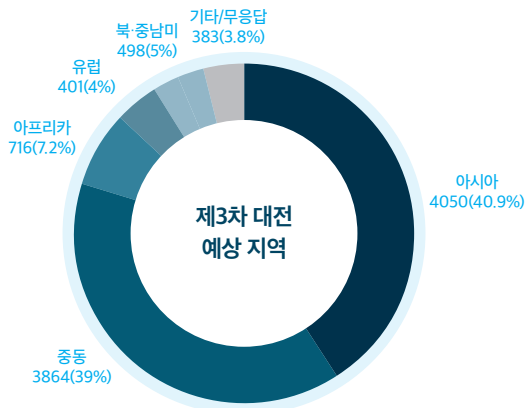
**Q** 앞으로 50년 후 자본주의 문명은 어떻게 될 것이라고 예상하는가?



**Q** 농업혁명, 산업혁명에 이은 제3의 혁명이 일어나고 있다면 그것은 특히 어떤 분야에서 강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보는가?



**Q** 가까운 미래에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난다면 어느 지역에서 일어날 것이라고 보는가?



## 평화로운 세계, 기대하기 어렵다

50년 후 세계시민사회의 안정과 평화가 찾아올 것인가에 대해 경희 구성원 대다수가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그러면서도 지속가능한 인류사회를 위해 필요한 핵심가치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 평화를 중심으로 한 (세계)시민교육의 절박성을 새삼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 92%가 “평화로운 세계시민사회 건설 어려워”

향후 50년 이내에 모든 폭력과 갈등이 없는 평화로운 세계시민사회가 건설되리라고 보느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는 답변이 92.2%(9140명)로 절대 다수였다. ‘그렇다’는 답변은 7.5%(746명)에 불과했다. 50년 후 인간의 폭력성 수준은 어떻게 변화할 것이냐고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약 80%가 더 심해지거나(43%, 4259명) 현재와 같을 것(35%, 3468명)이라고 답한 것과 맥을 같이한다. 앞으로도 인간의 폭력성은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평화로운 세계시민사회 건설은 어려울 것으로 보는 것이다. 영어학부 유정완 교수는 세계시민사회 건설에 대한 젊은 세대의 비관적 답변에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대학뿐 아니라 초중등 교육에서 평화를 핵심으로 한 시민교육이 이뤄지지 않으면 더 나은 미래를 상상할 수 없다는 ‘증거’가 이번 조사를 통해 드러났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시민교육이 세계 시민교육으로 확대돼야 하는 이유도 마찬가지다. 일국 시민성만으로는 세계시민성을 실현하기 어렵다. 시민교육은 어느 단계에서 반드시 세계적 네트워크를 형성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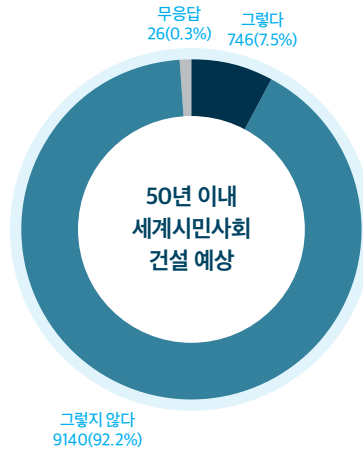
### 더불어 살기 위해 공유해야 할 공동체적 가치

지속가능한 인류사회를 위해 우선적으로 실천해야 할 핵심가치가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에 ‘나눔과 봉사’, ‘생명 존중’, ‘다원주의’ 등 공동체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가치를 꼽았다. 이 물음에 ‘나눔과 봉사’라고 답한 응답자는 27.3%(2704명)로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했고, ‘생명 존중’이라는 답변도 전체의 27.2%(2699명)를 차지했다. ‘다원주의’를 선택한 응답자는 26.8%(2653명)로 조사됐다. 그 외에 ‘개인의 자율성’은 9.3%(924명), ‘근검절약을 꼽은 응답자는 4.4%(433명)로 나타났다. 기타 응답으로는 ‘평등’, ‘도덕성’, ‘배려’, ‘공동체주의’, ‘환경보전’, ‘부의 재분배’ 등이 집계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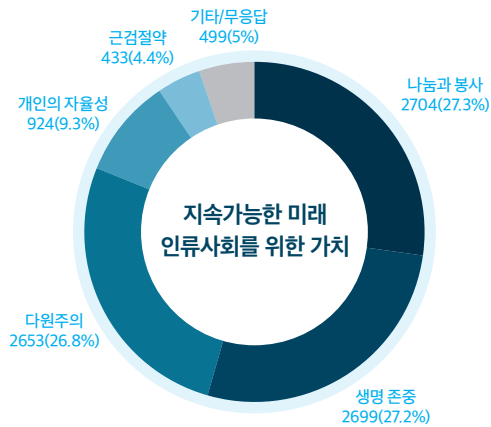
FGI 참가자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나눔과 봉사, 생명 존중, 다원주의와 같은 가치가 높게 나타난 것은 현실을 그대로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공동체적 가치가 부재하기 때문에 인간의 폭력성이 사라지지 않고, 그래서 세계시민사회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한국사회는 물론 전 세계의 가장 큰 문제인 양극화를 해결하는 데에도 공동체적 가치가 필수적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나눔, 생명 존중, 다양성과 같은 가치가 모두 타자에 대한 이해와 배려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학생들은 지속가능한 인류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교육의 혁신과 사회시스템의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타인의 고통에 대해 무감각해지고 있는 것이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는 길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라는 성숙한 인식도 눈에 띄었다.

**Q** 향후 50년 이내 모든 폭력과 갈등이 없는 평화로운 세계시민사회가 건설되리라고 보는가?



**Q** 지속가능한 미래의 인류사회를 위해 우선적으로 실천해야 할 핵심가치는 무엇인가?



## 국가 간 장벽 사라질 것

평화로운 세계시민사회의 출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비관적이었지만, 국가 간 지역연합체의 등장에 대해서는 비교적 낙관적이었다. 그러면서도 초국적 기업이 국가 기능을 압도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내비쳤다. 세계정부 지도자는 가톨릭 쪽에서 나온다는 답변이 많았다.

### 초국적 기업이 국가 기능을 압도할 수도

50년 후 국가의 대표적 형태는 어떠한 것으로 예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36.4%(3608명)가 '국가 간 지역연합체 탄생'이라고 답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초국적 기업이 국가 기능을 압도'한다는 답변이 27%(2681명)를 차지, 두 번째로 높았다. '세계정부 수립으로 단위국가가 해체될 것'이라는 의견은 8.4%(830명)로 조사됐다. 현재의 국가 체제와는 완전히 다른 국가 형태가 나타날 것으로 보는 의견이 약 72%에 달한 것이다. 반면 '현재와 유사한 형태를 유지'한다는 의견은 27%(2678명)에 불과했다.

### 가톨릭 지도자에 대한 신뢰 높아

세계정부가 수립된다면 최초의 세계대통령은 어느 종교 문화권에서 나오리라고 보느냐는 질문에 '가톨릭'이라는 답변이 41.7%(4135명)로 가장 많았다. '개신교'를 꼽은 비율은 26.7%(2644명)로 2위를 차지했다. '신생 종교'가 5.9%(585명), '불교'가 5.9%(583명)로 뒤를 이었으며 '유교'(2.7%, 269명), '이슬람'(2.1%, 205명)이라는 응답은 비교적 소수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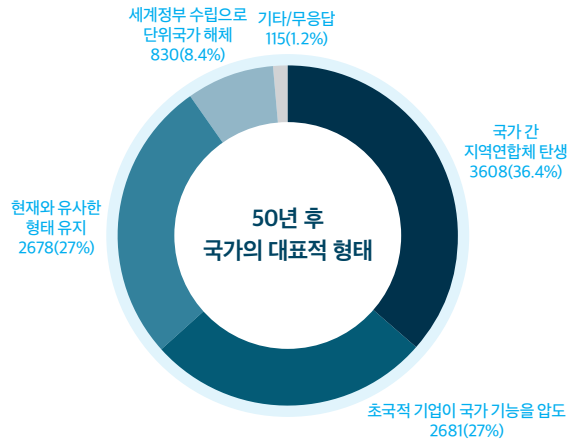
### 50년 후에도 여전히 '영어'

50년 뒤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될 언어는 '영어'로 꼽혔다. 영어를 선택한 응답자는 59.1%(5857명)로 집계됐다. '중국어'를 선택한 응답자는 25.4%(2514명)로 두 번째로 높은 반면, '한국어'를 선택한 응답자는 4.3%(423명)로 소수에 불과했다. '새로운 세계 공용어'가 등장한다는 흥미로운 답변도 4.1%(410명)로 조사됐으며, '스페인어'는 4%(395명), '아랍어'는 1.4%(141명)를 차지했다. '각자 언어 그대로 사용한 후 통역기가 발달할 것'이라는 답변도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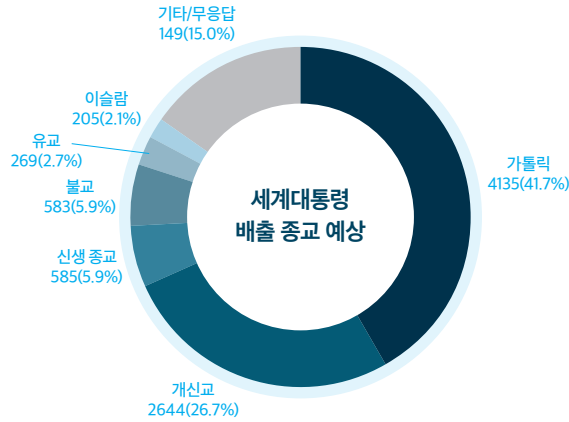
### 유럽, 아시아가 살기 좋은 지역이 될 것

50년 뒤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지역은 어디가 될 것이라고 예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34.1%(3385명)가 '유럽'을 선택했고, '아시아'는 23.8%(2358명), '오세아니아'는 20.3%(2012명)로 뒤를 이었다. '북미'를 선택한 응답자도 7.7%(758명)으로 조사됐으며 '남미'를 선택한 응답자는 5.5%(545명), '아프리카'를 선택한 응답자는 4.7%(464명)로 나타났다. '대한민국'은 '북극/남극', '지구 밖/우주/화성' 등의 답변과 함께 매우 낮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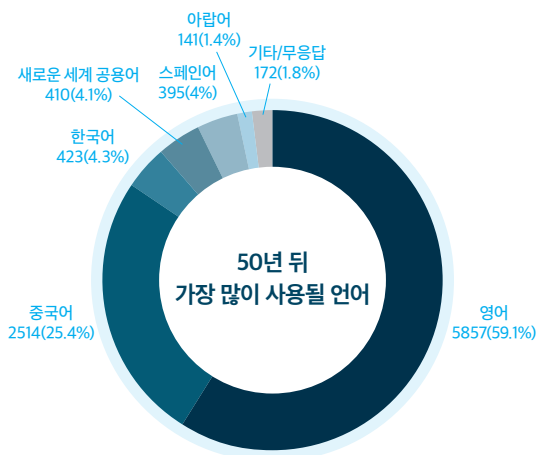
**Q** 앞으로 50년 후 국가의 대표적 형태는 어떠한 것이라고 예상하는가?



**Q** 만약 세계정부가 수립된다면 최초의 '세계대통령'은 어느 종교 문화권에서 나오리라고 보는가?



**Q** 50년 뒤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될 언어는?



## ‘경제적 부를 창출하는 사람’이 존경받을 것

50년 후 가장 유망한 직업 분야가 무엇이 될 것인지 묻는 질문에 응답자들은 ‘종교 분야’를 가장 많이 꼽았다. 미래에 가장 존경받는 인물은 ‘경제적 부를 창출하는 사람’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부를 창출하는 이유와 목적이 흥미롭게 분석됐다.

### 50년 후 가장 유망한 직업은 ‘종교 분야’

50년 후 가장 유망한 직업 분야가 무엇이 될 것인지 묻는 질문에 응답자들은 ‘종교 분야’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 설문은 22개 선택지에서 3개 이내를 중복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종교 분야’를 선택한 응답자는 2983명이다. ‘농어임업 분야’는 2395명, ‘우주공학 분야’는 2169명으로 종교 분야의 뒤를 이어 미래 유망한 직업 분야로 꼽혔다. ‘교육 분야’는 952명, ‘정보통신기술 분야’는 923명으로 집계됐고, ‘정신건강 분야’를 선택한 응답자들은 358명으로 조사됐다.

‘로봇산업 분야’와 ‘경영기획 분야’, ‘사회복지 분야’를 선택한 응답자들도 있었다. 50년 후 유망한 직종으로 ‘의료 분야’와 ‘예술 분야’를 선택한 응답자가 한 명도 없다는 사실이 흥미롭다. 후마니타스칼리지 홍승태 교수는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응답자들이 현재 세계문명의 전개과정에서 드러나는 종교 간 갈등, 과학 중심의 이성적 사유가 갖는 한계, 인간 삶의 정신적 영역과 종교적 치유의 가능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았다.

### ‘경제적 부 창출’과 ‘타인 위한 헌신’ 공존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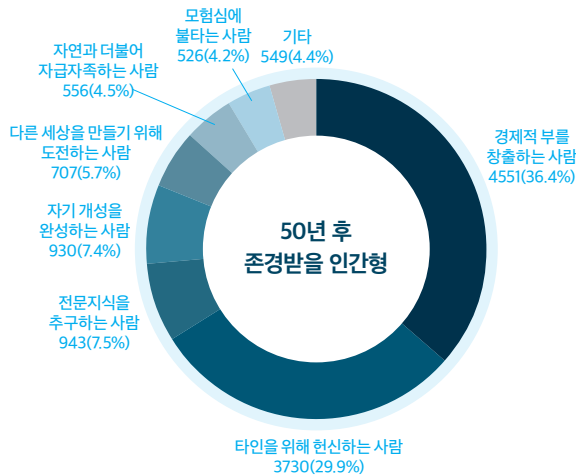
50년 후 가장 존경받을 인간형에 대해서는 4551명(36.4%)의 응답자가 ‘경제적 부를 창출하는 사람’을 선택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3개 이내의 항목을 중복 선택하도록 한 이 질문에서 3730명(29.9%)이 ‘타인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을 택해 2위에 올랐다. 앞서 언급한 두 항목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한 가운데 943명(7.5%)이 ‘전문지식을 추구하는 사람’을, 930명(7.4%)이 ‘자기개성을 완성하는 사람’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707명(5.7%)이 ‘다른 세상을 만들기 위해 도전하는 사람’이 미래에 존경받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외에도 ‘부를 사회에 헌신하는 사람’, ‘공감능력을 가진 사람’, ‘포용력을 가진 사람’, ‘정의로운 사람’ 등이 기타 의견으로 집계됐다. 이 항목은 보다 심층적 해석이 요구돼 ‘중복 응답 문항 분석’ 결과를 들여다봤다. ‘경제적 부를 창출하는 사람’을 선택한 응답자들은 중복 응답으로 ‘전문지식을 추구하는 사람’, ‘다른 세상을 만들기 위해 도전하는 사람’을 꼽았다. 2위를 차지한 ‘타인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은 ‘다른 세상을 만들기 위해 도전하는 사람’과 함께 선택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 경제적 부를 창출하는 사람이 아니라, 전문지식을 추구하거나 다른 세상을 만들기 위한 도전을 위해 부를 창출하는 사람을 존경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Q** 앞으로 50년 뒤 가장 유망한 직업 분야는 무엇이 될 것이라고 보는가?  
(3개 이내 선택 가능)

순위	직업 분야	빈도
1	종교 분야	2983
2	농어임업 분야	2395
3	우주공학 분야	2169
4	교육 분야	952
5	정보통신기술 분야	923
6	생명공학 분야	374
7	정신건강 분야	358
8	로봇산업 분야	233
9	경영기획 분야	163
10	사회복지 분야	156
11	음식식료 분야	88
12	도시계획 분야	59
13	게임산업 분야	46
14	스포츠레저 분야	43
15	건축 및 토목 분야	18
16	교통운송 분야	18
17	소방안전 분야	11
18	각급 공무원	10
19	수의학 분야	8
-	의료 분야	0
-	예술 분야	0
-	기타	16
	총계	16052

**Q** 앞으로 50년 뒤 가장 존경받는 인간형은 무엇이 될 것이라고 보는가?  
(3개 이내 선택 가능)



## 대학교육을 받는 이유

경희 구성원은 대학교육을 받는 가장 큰 이유로 '취업 대비'를 선택했다. 다음은 '학벌'이었다. 대학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가치는 '전공지식 전수'와 '취업역량 제고'로 나타났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그대로 투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 대학은 '더 나은 삶'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나

현재 자신이 대학교육을 받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를 묻는 질문에 '취업 대비'를 선택한 응답자가 34.3%(3399명)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학벌'을 위해서라는 응답이 21.8%(2157명)를 차지했다. 대학에 다니는 목적을 실용적 차원으로 인식하고 있는 응답자가 약 56%에 달한다. 한편 '학문탐구'를 선택한 응답자는 18.9%(1872명), '가치관 형성'이 목적이라는 응답도 15.4%(1531명)로 낮은 비율을 차지했다. '인맥 확대'를 선택한 응답자는 4.3%(422명)로 집계됐다. 약 5%를 차지한 기타 응답은 '다들 하니깐', '부모님의 권유'라는 답변과 '자아실현', '다양한 경험', '진로탐색' 등 다소 대조되는 응답들로 구분됐다.

심층토론 결과는 위와 같은 응답과 차이를 보였다. FGI에 참여한 학생들은 위와 같은 답변이 사회의 현실적 요구에 대응한 것이라고 해석하면서도, 취업 준비에 급급한 학생들의 대학생활에 우려를 표시했다. 실용적 가치도 중요하지만 대학교육을 통해 발견한 가치가 삶의 전반적인 질을 좌우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학생들은 토론에서 취업 준비 기관으로 전략하고 있는 대학을 향해 뼈아픈 질문을 던졌다. '과연 대학이 더 나은 삶과 세계를 이룩하는 데 기여하고 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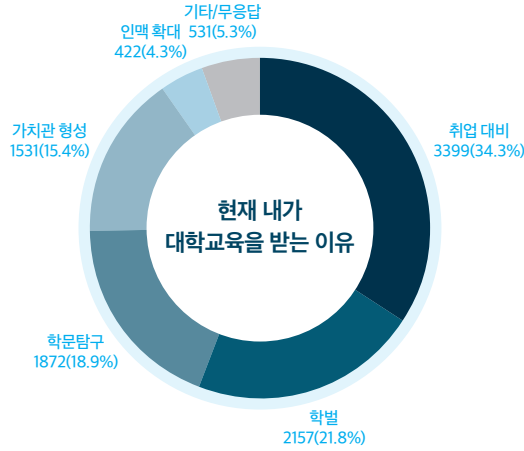
### 대학, 전공지식과 취업역량 강화해야

현재 국내외 대학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가치는 '전공지식 전수'로 나타났다. 14개 선택지 중 3가지 이내로 중복 선택이 가능하도록 설계된 문항에서 2866명(17%)이 '전공지식 전수'라고 답해 1위에 올랐다. '취업역량 제고'와 '경제적 가치 창출'이라는 실용적인 가치는 각각 2024명(12%), 1580명(9.3%)이 선택해 뒤를 이었고, '사고력 확장'과 '진리탐구'는 각각 1463명(8.7%), 1287명(7.6%)이 선택해 그 다음을 차지했다. '관계 형성'이 중요한 가치라는 응답은 7.6%(1286명), '리더 양성'은 7.0%(1191명), '인간다움 추구'는 6.6%(1117명), '다양성 추구'는 6.4%(1076명)의 비율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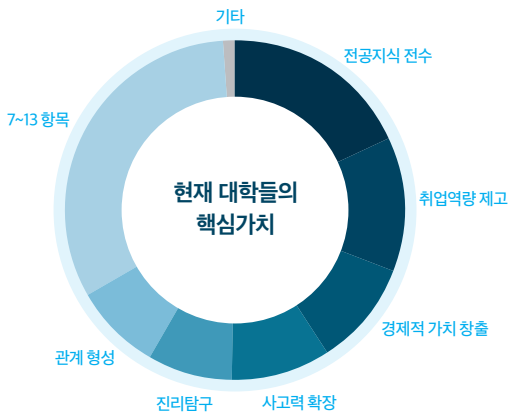
중복 응답을 분석한 결과, '전공지식 전수' 선택자들은 '취업역량 제고'와 '경제적 가치 창출'을 함께 선택했고, '취업역량 제고' 선택자들의 복수 응답 또한 '경제적 가치 창출', '전공지식 전수'로 나타났다. 전공지식 전수를 통한 전문화와 경제적 가치 창출 역시 취업과 연관되기 때문에 취업 문제가 가장 민감하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FGI 참여자들은 우리 시대가 경제적 가치 창출을 제1 목표로 삼고 있고 이것이 대학의 이념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면서, 대학이 전공지식 전수와 취업역량 강화에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줄 것을 요청했다.



**Q 현재의 내가 대학교육을 받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



**Q 현재의 국내외 대학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3개 이내 선택 가능)**



순위	대학의 가치	빈도 (%)
1	전공지식 전수	2866 (17.0)
2	취업역량 제고	2024 (12.0)
3	경제적 가치 창출	1580 (9.3)
4	사고력 확장	1463 (8.7)
5	진리탐구	1287 (7.6)
6	관계 형성	1286 (7.6)
7	리더 양성	1191 (7.0)
8	인간다움 추구	1117 (6.6)
9	다양성 추구	1076 (6.4)
10	자아성찰 강조	892 (5.3)
11	사회공헌	758 (4.5)
12	주체성 함양	696 (4.1)
13	문명사회 모색	508 (3.0)
-	기타	157 (0.9)
	총계	16901 (100)

## 대학, '인간다움 추구'해야

경희 구성원은 현재 국내외 대학들이 더 나은 삶과 세계를 이룩하는 데 별다른 기여를 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학이 인간다움, 사고력, 다양성 등을 추구한다면 사회적 책임을 더 수행할 수 있다고 보았다.

### 대학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는가

현재 국내외 대학들이 더 나은 삶과 세계를 이룩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한 가장 많은 답변이 '보통이다'로 나타났다(45%, 4430명). '그렇지 않다'는 28%(2805명), '매우 그렇지 않다'는 7%(737명)로 집계됐다. 반면 '그렇다'를 선택한 응답자는 17.3%(1715명), '매우 그렇다'를 선택한 응답자는 2%(149명)로 나타났다. 현재 대학들이 더 나은 삶과 세계를 이룩하는 데 긍정적인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자는 전체의 약 19%에 불과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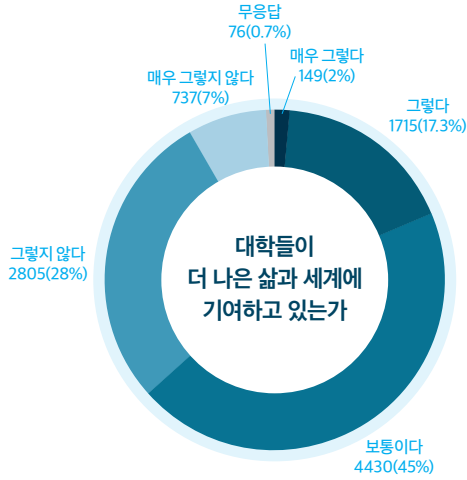
현재 국내외 대학들이 더 나은 삶과 세계를 이룩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면 어떤 기능 때문이라고 생각하는지 묻는 질문에 가장 많은 수의 응답자가 '인간다움 추구'(15.9%, 3263명)를 선택했다. 다음으로 '사고력 확장'이 11.5%(2360명), '다양성 추구'가 10.6%(2170명), '자아성찰 강조'가 10.2%(2097명)로 각각 유사한 비율로 나타났다. '진리탐구'(9.8%, 2003명), '주체성 함양'(8.2%, 1688명), '전공지식 전수'(8.0%, 1632명), '사회공헌'(7.1%, 1460명)이 뒤를 이었다. '관계 형성'(4.8%, 982명), '리더 양성'(4.8%, 972명), '문명사회 모색'(3.4%, 696명), '경제적 가치 창출'(2.7%, 550명), '취업역량 제고'(2.7%, 546명) 등은 비교적 적은 선택을 받았다.

### 대학이 살아 있어야 지구사회가 살아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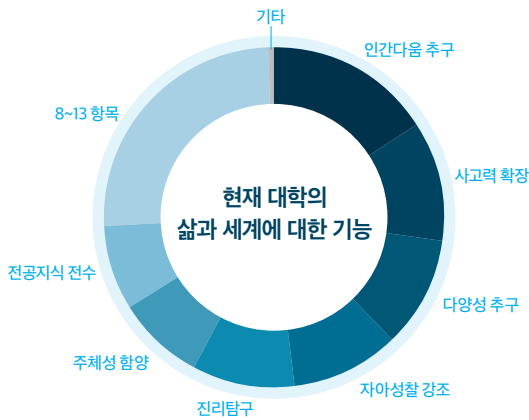
대학의 사회적 책임을 주제로 한 집담회도 열기가 높았다. 철학과 여자영 학생은 대학이 사회적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답변 비율이 높은 것에 대해 놀라움을 표하면서, 대학의 기능이 실용적 차원으로 빠르게 이동하기 때문이라고 원인을 분석했다. 여자영 학생은 대학이 '인간다움'이란 가치를 중심으로 살아 있어야 개인과 사회, 국가와 지구사회가 살아난다며 대학의 공공성을 강조했다.

토론회의 전반적 분위기도 '인간다움'으로 수렴됐다. 현실적으로는 취업역량 제고, 경제적 가치 창출이 중시되지만, 더 나은 사회를 위해서는 인간다움, 자아성찰, 다양성 등의 추구가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대학에 인간다움의 추구를 요구하는 이유는 현재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가장 시급한 과제가 인간다움이기 때문이라는 해석에 이어, 더 나은 삶이 반드시 경제적 측면과 연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의견도 제기됐다. 전공지식을 인간다운 삶과 이어주는 실질적 교육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와 같은 의견들은 대학이 인간다움을 추구하는 데 있어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추구의 메시지로 읽을 수 있다.

**Q** 현재의 국내외 대학들이 더 나은 삶과 세계를 이룩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Q** 현재 국내외 대학들이 더 나은 삶과 세계를 이룩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면, 대학의 어떤 기능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는가? (3개 이내 선택 가능)



순위	대학의 역할 기여	빈도 (%)
1	인간다움 추구	3263 (15.9)
2	사고력 확장	2360 (11.5)
3	다양성 추구	2170 (10.6)
4	자아성찰 강조	2097 (10.2)
5	진리탐구	2003 (9.8)
6	주체성 함양	1688 (8.2)
7	전공지식 전수	1632 (8.0)
8	사회공헌	1460 (7.1)
9	관계 형성	982 (4.8)
10	리더 양성	972 (4.8)
11	문명사회 모색	696 (3.4)
12	경제적 가치 창출	550 (2.7)
13	취업역량 제고	546 (2.7)
-	기타	42 (0.2)
	총계	20461 (100)

## 미래대학은 '자아성찰 강조'해야

미래대학이 대학의 사회적 역할을 다하기 위해 추구해야 할 가치는 다양하게 나타났다. '자아성찰 강조'에 이어 진리탐구, 전공지식 전수, 다양성 추구, 사고력 확장 등이 고루 선택됐다. 관계형성, 취업역량 제고, 경제적 가치 창출 등도 현재 인식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 미래대학이 추구해야 할 가치는 '자아성찰 강조'

더 나은 삶과 세계를 이룩하는 데 기여하기 위해 미래대학이 가장 우선적으로 추구해야 할 가치는 무엇인가. 14개 선택지 중 3가지 이내로 중복 응답하도록 질문했다. 이에 대해 '자아성찰 강조'라는 답이 19.1%(3859명)로 가장 많았다. '진리탐구' 14.1%(2858명), '전공지식 전수' 13.2%(2675명), '다양성 추구' 11.7%(2360명), '사고력 확장' 10.2%(2063명)로 집계되며 유사한 비율을 보였다. '인간다움 추구'(8.2%, 1663명), '관계형성'(5.9%, 1193명), '취업역량 제고'(4.5%, 910명)가 뒤를 이었다. '사회공헌'(3.7%, 751명), '문명사회 모색'(3.3%, 661명), '리더 양성'(3.1%, 620명), '주체성 함양'(2.5%, 510명), '경제적 가치 창출'(0.5%, 102명) 등은 비교적 적은 선택을 받았다.

중복 응답 결과가 흥미롭다. 1위 '자아성찰 강조', 2위 '진리탐구', 3위 '전공지식 전수'를 선택한 응답자들이 중복 응답으로 '인간다움 추구'를 가장 많이 선택했다. 이는 미래대학이 추구해야 할 가치가 인간다움 추구하고 연계돼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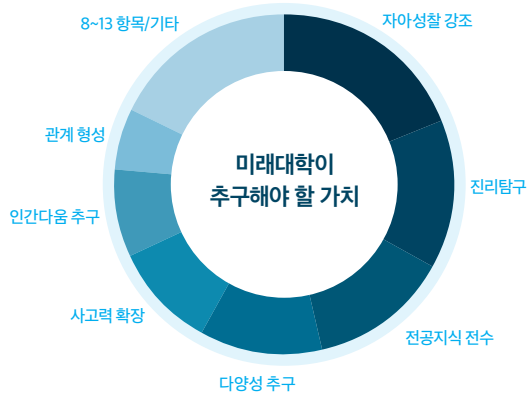
현재 대학이 추구하고 있는 가치와 미래대학이 추구해야 할 가치에 대한 답변을 비교했더니 현재와 미래 사이에 간극이 컸다. 미래대학은 '자아성찰 강조', '전공지식 전수', '진리탐구'를 현재보다 높은 상위 핵심가치로 설정하고 대학을 운영해야 한다고 보았다. 반면 현재 중시하고 있는 '경제적 가치 창출', '주체성 함양', '리더 양성', '인간다움 추구' 등의 가치는 미래대학에서는 중요도가 떨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미래대학이 발전을 거듭해 현재의 대학보다 긍정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볼 수 있지만, '사회공헌', '문명사회 모색'에 대한 인식이 낮은 것은 납득하기 어려워, 보다 심층적 해석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 교양교육이 중요하다

이에 대한 FGI 결과는 교양교육 강화로 드러났다. 심층토론회 참가 학생들은 거시적으로 자아성찰, 진리탐구를 추구해야하고, 미시적으로는 취업을 위한 전공지식을 쌓아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전공교육과 교양교육을 분리시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기능적 지식과 가치적 지혜를 융합하고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학문의 과정과 결과가 지혜로 나타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사회 구조와 고등교육이 상호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면서 사회 전체가 함께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학생들의 이 같은 의견에 대해 후마니타스칼리지 김윤철 교수는 미래대학은 인문학적 소양을 기르는 교양교육과 전문적이고 실용적인 교육의 결합을 통해 타자와 더불어 인간다움을 실현하는 세계시민형 인재를 길러내야 한다는 요구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

**Q** 더 나은 삶과 세계를 이룩하는 데 기여하기 위해 미래의 대학이 가장 우선적으로 추구해야 할 가치는 무엇인가? (3개 이내 선택 가능)



순위	추구해야 할 가치	빈도 (%)
1	자아성찰 강조	3859 (19.1)
2	진리탐구	2858 (14.1)
3	전공지식 전수	2675 (13.2)
4	다양성 추구	2360 (11.7)
5	사고력 확장	2063 (10.2)
6	인간다움 추구	1663 (8.2)
7	관계 형성	1193 (5.9)
8	취업역량 제고	910 (4.5)
9	사회공헌	751 (3.7)
10	문명사회 모색	661 (3.3)
11	리더 양성	620 (3.1)
12	주체성 함양	510 (2.5)
13	경제적 가치 창출	102 (0.5)
-	기타	5 (0.0)
	총계	20230 (100)

## 미래에는 정신적 스승이 존경받을 것

대학평가에 대한 대학사회의 시각은 찬반이 엇갈린다. 학생들의 절반 이상이 대학에 대한 외부기관의 평가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불필요하다는 의견보다 두 배 이상 높았다. 미래대학에서 가장 존경받는 교수상은 '정신적 스승'이었다.

### 대학평가, '교수와 학생 간 관계' 중시해야

대학에 대한 외부기관의 평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절반이 넘는 학생들이 필요하다는 답을 내놓았다. '그렇다'는 40.8%(4045명), '매우 그렇다'는 13.1%(1302명)로 대학에 대한 외부기관 평가가 필요하다는 응답자가 전체의 약 54%를 차지했다. '보통이다'를 선택한 응답자는 25%(2507명)로 나타났다. 반면 '그렇지 않다'는 14.2%(1411명), '매우 그렇지 않다'는 5.4%(116명)로 외부기관 평가가 불필요하다는 응답자는 전체의 약 20%로 조사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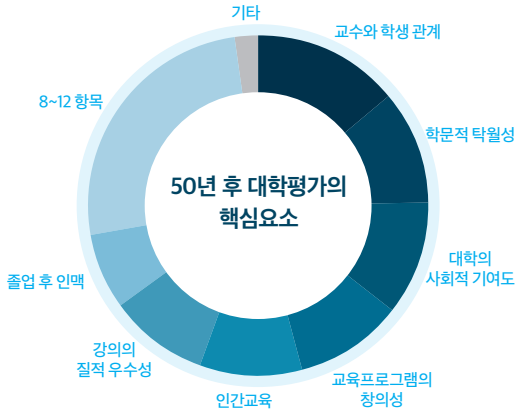
50년 후에도 대학평가가 필요하다면 평가 기준의 핵심은 무엇이 될 것인가. 13개 선택지 중 3개 이내를 자유 선택하도록 설계된 문항에서 가장 많은 선택을 받은 항목은 '교수와 학생 간 관계'(14.1%, 2774명)였다. 현재 대학에서 교수자와 학습자 사이가 얼마나 소원해져 있는지 그대로 드러나는 대목이다. 향후 대학 운영에 적극 반영해야 할 사안이다.

이어 '학문적 탁월성'(10.8%, 2134명), '대학의 사회적 기여도'(10.7%, 2101명), '교육프로그램의 창의성'(10.4%, 2043명), '인간교육'(9.7%, 1907명), '강의의 질적 우수성'(9.5%, 1865명) 등이 각각 유사한 비율로 꼽혔고, '졸업 후 인맥'(7.1%, 1399명), '명성 있는 교수진'(6.6%, 1304명), '국내외 대학 평가 지수'(6.1%, 1192명)가 그 뒤를 따랐다. 복수 응답 분석 결과, 상위 46%에 달하는 1위부터 4위까지의 답변과 함께 선택된 응답이 '강의의 질적 우수성'으로 나타났다. 대학은 교수와 학생 간 교류 강화와 동시에 강의의 질적 향상을 위해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인격 형성에 도움 주는 정신적 스승 원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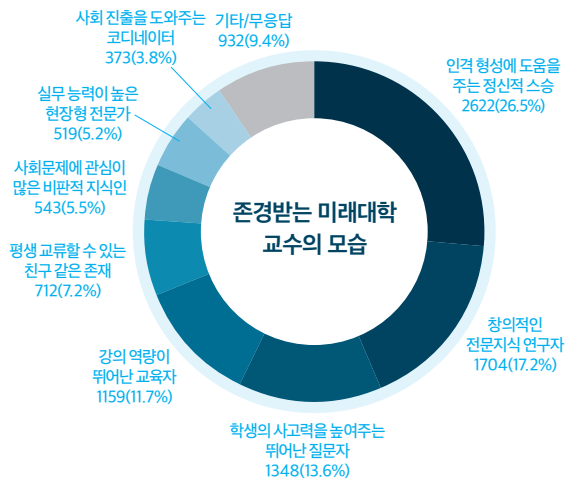
미래대학 평가에서 교수와 학생 간의 관계가 중요한 척도라면, 미래대학에서 존경받는 교수는 어떤 모습일까. 가장 많은 학생들이 '인격 형성에 도움을 주는 정신적 스승'(26.5%, 2622명)을 꼽았다. '창의적인 전문지식 연구자'라는 답변이 17.2%(1704명)로 뒤를 이었으며, '학생의 사고력을 높여주는 뛰어난 질문자'(13.6%, 1348명), '강의 능력이 뛰어난 교육자'(11.7%, 1159명)라는 의견도 비교적 많았다. '평생 교류할 수 있는 친구 같은 존재'는 7.2%(712명), '사회문제에 관심이 많은 비판적 지식인'은 5.5%(543명)가 이상적 교수의 모습으로 꼽았다. 실무와 취업에 도움을 주는 '기업경영 등 실무 능력이 높은 현장형 전문가'는 5.2%(519명), '사회 진출을 돕는 코디네이터'는 3.8%(373명)가 선택했다. 비판적 지식인을 높이 평가하지 않은 것은 의외로 보인다. 하지만 인격 형성에 도움을 주는 교수에 이어 평생 친구, 사회 진출 돕는 코디네이터 등과 같은 역할을 기대하고 있는 것을 보면, 학생과 친밀한 교수상의 정립이 더욱 절실해보인다.

**Q 50년 후에도 대학평가가 필요하다면, 평가의 핵심요소는 무엇이 될 것인가?**  
(3개 이내 선택 가능)



순위	미래대학평가 핵심요소	빈도 (%)
1	교수와 학생 관계	2774 (14.1)
2	학문적 탁월성	2134 (10.8)
3	대학의 사회적 기여도	2101 (10.7)
4	교육프로그램의 창의성	2043 (10.4)
5	인간교육	1907 (9.7)
6	강의의 질적 우수성	1865 (9.5)
7	졸업 후 인맥	1399 (7.1)
8	명성 있는 교수진	1304 (6.6)
9	국내외 대학평가 지수	1192 (6.1)
10	대학 간의 연대	920 (4.7)
11	취업률	918 (4.7)
12	학교 시설	699 (3.6)
-	기타	421 (2.1)
	총계	19677 (100)

**Q 미래의 대학에서 존경받는 교수의 모습은 무엇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 구성원으로서 자부심 느낀다

경희 구성원은 강의의 질, 교수상, 대학의 핵심가치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면서도 경희대에 대한 만족도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교직원들의 평가보다 높았다. 만족도에 이어 구성원으로서 자부심을 느낀다고 답한 학생도 약 58%에 달했다.

### 부정적 평가는 열 명 중 한 명 이하

현재 경희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구성원들의 생각을 조사했다. 경희에 대한 종합적 만족도를 5점 척도로 평가한 문항에서는 대체로 좋다는 의견이 전체의 약 57%로 나타났다. 경희대에 대한 종합적 평가를 묻는 질문에 '좋다'라고 평가한 응답자는 52.5%(5200명), '아주 좋다'라고 평가한 응답자는 4.1%(403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그저 그렇다'라는 입장을 보인 응답자는 34.8%(3450명)로 조사됐으며, '좋지 않다'는 응답은 6%(608명), '아주 좋지 않다'는 평가는 2%(158명)로, 부정적 평가를 보인 응답자는 약 8%로 나타났다. 학교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가진 학생이 열 명 중 한 명 이하꼴이었다. 경희대 재학생과 교직원 각각 400명을 대상으로 한 응답 샘플을 비교해본 결과 경희대 재학생이 교직원보다 10%정도 높은 비율로 경희대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재학생 중 2.3%(9명)가 '아주 좋다'를, 57.4%(229명)가 '좋다'를 꼽아 59.7%가 긍정적으로 평가한 반면, 교직원은 4%(16명)가 '아주 좋다'를, 44.5%(178명)가 '좋다'를 꼽아 48.5%가 긍정적 평가를 내렸다. 경희대 재학생의 만족도가 교직원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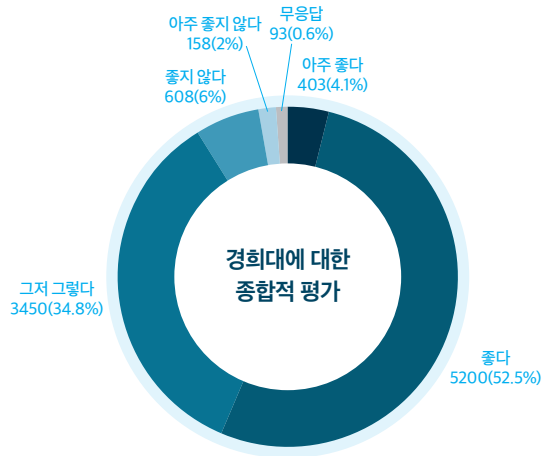
### 자부심을 느낀다는 답변이 월등히 높아

경희 구성원으로서의 자부심을 묻는 질문에서도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현재 경희대 구성원으로서 자부심을 느끼는가를 묻는 질문에서 '그렇다'고 대답한 응답자는 49.8%(4939명)로 가장 많았고, '매우 그렇다'를 선택한 응답자도 8.4%(828명)로 나타났다. 경희 구성원으로서 자부심을 느낀다고 응답한 응답자의 비율이 약 58%로 절반이 넘는다. '보통이다'를 선택한 응답자는 32.3%(3202명), '그렇지 않다'를 선택한 응답자는 6.8%(670명), '매우 그렇지 않다'를 선택한 응답자는 1.4%(140명)였다. 구성원으로서 부정적 인상을 갖고 있는 응답자는 약 9%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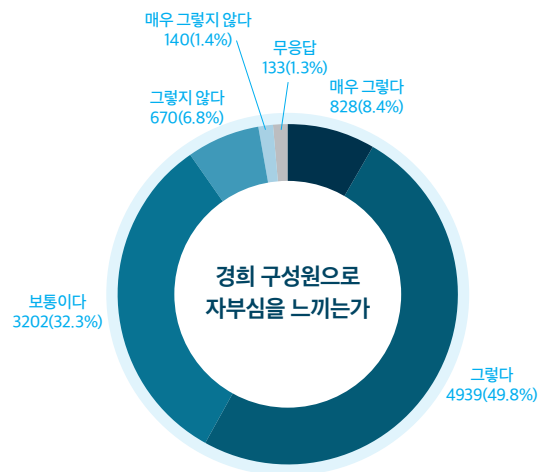
경희대에 대한 종합적 만족도 결과와 마찬가지로 경희대 재학생이 교직원보다 자부심을 더 느끼는 것으로 집계됐다. 재학생이 자부심을 느낀다는 응답은 59.1%, 교직원은 46.3%였다. FGI에서도 참가자 대다수가 경희대에 만족하고 구성원으로서 자부심을 느낀다는 데 동의했다. 그 이유로는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양교육, 의학계열의 경쟁력, 비교적 잘 구축되어 있는 각종 거버넌스에 대한 만족도를 들었다. 하지만 부정적 평가에 귀를 기울여 보다 나은 경희를 건설하는 데 참고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Q 현재의 경희대학교를 종합적으로 평가한다면?



Q 현재 경희대학교 구성원으로서 자부심을 느끼는가?



## 경희대의 세계평화 기여도는 ‘보통’

‘경희의 미래, 인류의 미래’는 개교 60주년 이후 경희의 공식 슬로건이다. 세계평화는 경희가 개교 이래 추구해온 핵심가치이자 실천 운동이기도 하다. 하지만 대학에 대한 만족도에 비해 구성원의 경희의 역사와 비전에 대한 이해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 세계평화에 대한 인식 변화해야

현재 경희대가 세계평화에 기여하고 있다고 보는지를 묻는 질문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의견이 조금 더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희대가 세계평화에 기여하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보통이다’라는 답변이 45.8%(4539명)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그렇다’는 19.3%(1918명), ‘매우 그렇다’는 2.2%(222명)로 조사됐다. 반면 ‘그렇지 않다’를 선택한 응답자는 25.5%(2526명), ‘매우 그렇지 않다’를 선택한 응답자는 5.9%(584명)로, 중립적 입장을 제외하면 긍정과 부정의 비율이 약 21% 대 32%로 부정적 의견이 다소 우세하다.

경희의 66년 역사는 세계평화운동과 깊은 연관성이 있다. UN ‘세계평화의날’ 제정을 주도했고 이어 세계평화대백과사전 발간과 평화복지대학원 설립 등 1980년대 이후 다양한 기구와 프로그램을 통해 ‘학문과 평화’의 전통을 쌓아왔다. 이보다 앞선 1965년에는 세계대학총장회(IAUP)의 창립에 깊이 관여하기도 했다. 1999년 서울NGO세계대회, 2009년 세계시민포럼(WCF) 및 세계시민청년포럼(WCYF) 창립에 이어 2012년에는 UNA1와 공동으로 ‘세계평화의날 창립 30주년 국제회의’를 공동 개최하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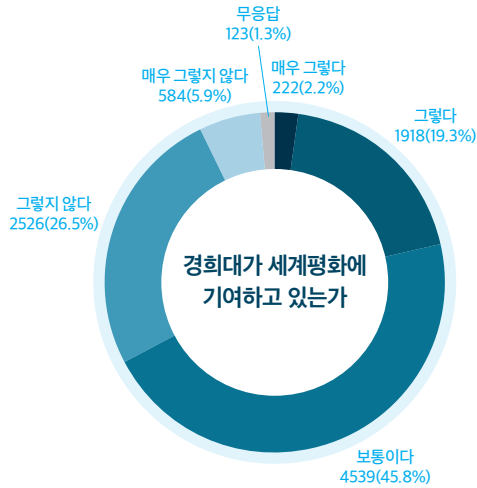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적 의견이 높게 나온 것은 학생들이 세계평화, 지속가능한 인류 문명과 같은 담론이 너무 거창해서 자신의 학업이나 미래의 삶과 무관한 것으로 여기기 때문으로 보인다. 예술디자인대학 김혜경 교수는 평화를 위한 작은 실천, 더 나은 인류사회를 위한 교육 및 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직접 경험하게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시민교육의 확대, 지구사회봉사단(GSC)의 활성화와 더불어 입학 주간, 개교기념 주간, 목련음악회 등 새로 기획된 행사가 정착된다면 경희의 역사와 비전에 대한 이해가 보다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 경희대는 사회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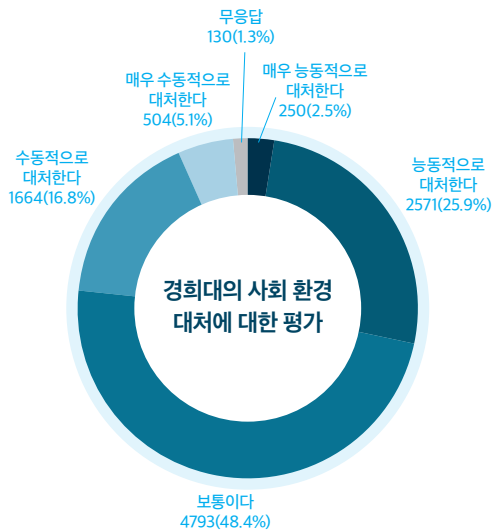
대학을 둘러싼 사회 환경 변화에 대한 경희대의 대처 능력에 대해서는 능동적이라는 응답이 약 28%, 수동적이라는 응답이 약 22%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보통이다’를 선택한 응답자는 48.4%(4793명)였다.

‘능동적으로 대처한다’고 평가한 응답자는 25.9%(2571명), ‘매우 능동적으로 대처한다’고 평가한 응답자는 2.5%(250명)였다. 반면 ‘수동적으로 대처한다’는 의견은 16.8%(1664명), ‘매우 수동적으로 대처한다’는 의견은 5.1%(504명)로 조사됐다. 수동적이라고 응답한 결과에 주목한다면, 변화에 대처하는 정책 개발과 이에 대한 적극적 홍보를 요구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Q 경희대학교가 세계평화에 기여하고 있다고 보는가?



Q 경희대학교가 대학을 둘러싼 사회 환경 변화에 어떻게 대처한다고 보는가?



## 강점은 ‘교양교육’, 약점은 ‘동문의 사회 진출’

현재 경희대의 강점을 묻는 질문에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응답자가 ‘교양교육’을 꼽았다. 경희대의 약점으로는 ‘동문의 사회 진출’, ‘전공교육’ 등이 비슷한 비율로 나타났다. 향후 학교 운영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는 항목이다.

### 현 경희대의 강점, 47.1%가 교양교육 꼽아

현재 경희대의 강점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47.1%(4670명)가 ‘교양교육’을 꼽아 가장 높은 응답률을 기록했다. 이어 ‘국제화’ 13.5%(1338명), ‘전공교육’ 10.7%(1060명), ‘융복합 분야’ 8.1%(799명) 순으로 강점을 꼽았다. ‘동문의 사회 진출’(4%, 393명), ‘교수의 연구 역량’(3.5%, 349명), ‘사회적 실천’(3.3%, 331명), ‘대학원 교육’(1.4%, 137명)을 선택한 응답자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교양교육’이 강점으로 꼽힌 것은 후마니타스칼리지 설립에 따른 대내외의 긍정적 평가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교수의 연구 역량’과 ‘대학원 교육’이 낮게 나타난 것은 대학이 강조해온 ‘마음껏 가르치고 마음껏 연구하는 대학’이 큰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는 반증으로 봐야 할 것이다.

### ‘동문의 사회 진출’, ‘전공교육’ 강화 시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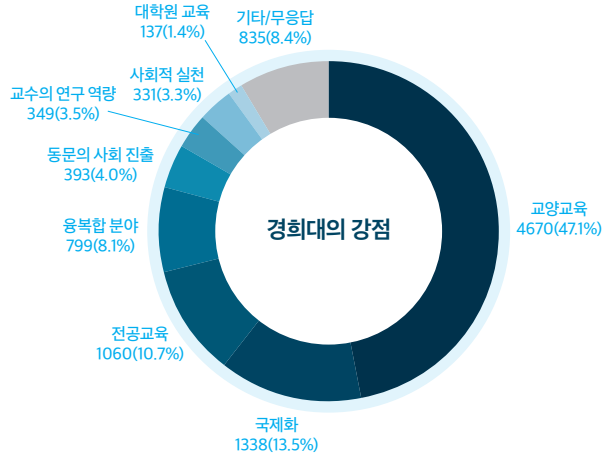
현재 경희대의 약점을 묻는 항목에 ‘동문의 사회 진출’이 19.4%(1928명)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전공교육’이 18.5%(1830명), ‘융복합 분야’가 13.6%(1345명)로 뒤를 이었다. ‘사회적 실천’ 9.6%(953명), ‘교양교육’ 8.4%(835명), ‘교수의 연구 역량’ 6.6%(652명), ‘국제화’ 5.8%(576명), ‘대학원 교육’ 5.6%(551명)가 각각 약점으로 집계됐다. 약 12%에 달하는 기타 응답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노후된 시설’, ‘재정 관리/재정난’, ‘전공 차별’, ‘서울·국제 캠퍼스 간 괴리’, ‘학생과의 소통’, ‘교양교육의 비대화’, ‘학생복지/학생지원 프로그램’ 등의 문제가 제기됐다.

경희대 재학생과 교직원의 응답 샘플 각각 400개를 비교 분석한 결과, 교직원(16.3%, 65명)이 경희대 재학생(3.8%, 15명)보다 약 5배를 상회하는 비율로 ‘대학원 교육’을 약점으로 꼽아 주목을 요한다. 학부 전공과 대학원의 교류 협력, 현재 추진 중인 연계협력 클러스터와 대학원의 교류 강화 등을 통해 대학원의 위상을 제고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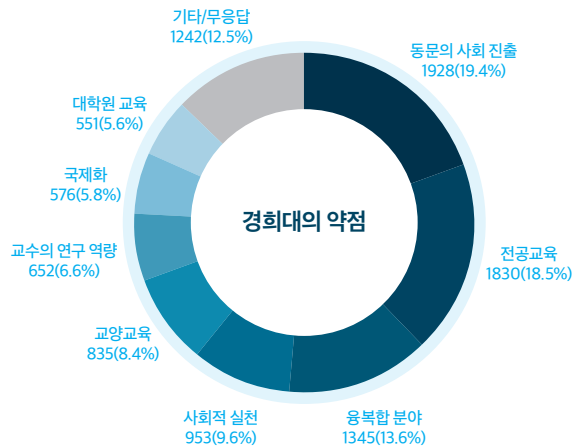
### 교양교육과 전공교육 간 괴리 좁혀야

FGI 결과, 학생들 대다수가 위와 같은 결과에 동의했다. 경희대의 강점으로 교양교육이 꼽힌 것은 후마니타스칼리지가 매우 큰 영향을 주었다고 분석했다. 한편 행정학과 윤성훈 학생은 전공교육과 교양교육의 괴리를 문제로 꼽았다. 교양 수업에서는 시민으로서의 역할에 대해 고민하는데, 전공 영역으로 들어가게 되면 교양 수업에서 배운 내용들과 단절되는 느낌을 받는다고 밝혔다. 전공교육과 교양교육이 긴밀하게 연계되지 않는 한 학생들의 이 같은 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대학의 정책적 판단이 요청되는 대목이다.

Q 경희대학교의 강점은 어떤 부문에 있다고 생각하는가?



Q 경희대학교의 약점은 어떤 부문에 있다고 생각하는가?



## 미래 경쟁력은 ‘인문학’

학생들은 경희의 현 경쟁력과 미래의 경쟁력이 어디에 있다고 보는가. 대학의 경쟁력은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지향점과 무관하지 않다. 학생들은 ‘인문학’을 현재와 미래 경쟁력의 핵심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 항목들 역시 대학 정책 수립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 현재의 경쟁력은 ‘의학계열’, 미래엔 ‘인문학’

현재 경희대학교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전공 분야는 ‘의학계열’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24.6%(2440명)가 ‘의학계열’을 꼽아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했다. ‘인문학’이 20.6%(2041명)로 뒤를 이었고, ‘교양’은 12.7%(1256명)를 차지했다. ‘인문학’과 ‘교양’을 합하면 33.3%로 ‘의학계열’보다 높은 수치다. 이어 ‘공학계열’ 11.5%(1142명), ‘사회과학’ 9%(893명), ‘체육’ 5.1%(501명), ‘예술’ 4.8%(473명), ‘자연과학’ 3%(295명) 순으로 나타났다.

50년 후 경희대학교에서 가장 경쟁력 있을 것 같은 전공 분야는 ‘인문학’이 20.4%(2022명)로 가장 높았다. 다음은 ‘공학계열’(15.9%, 1572명), ‘의학계열’(14.5%, 1441명), ‘교양’(11.3%, 1118명) 순이었다. 뒤이어 ‘사회과학’ 8.9%(882명), ‘응용과학’ 8.1%(798명), ‘예술’ 5.8%(575명), ‘자연과학’ 5.7%(565명)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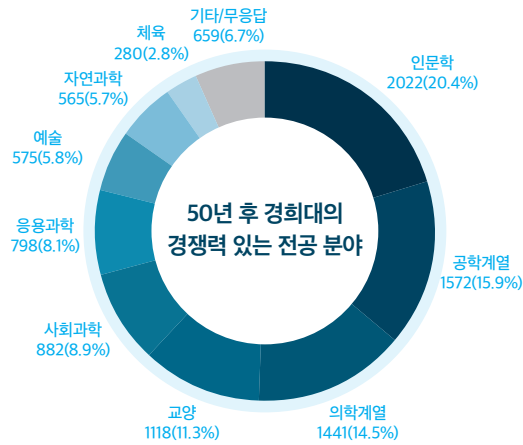
위 두 문항을 비교하면, 응답자들은 향후 응용과학과 공학계열, 자연과학과 예술계열의 경쟁력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인문학 분야는 현재와 미래 모두 경쟁력을 가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반면 의학, 체육계열의 전공 경쟁력은 다소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 ‘인문학적 소양’ 갖춘 인재 양성 일관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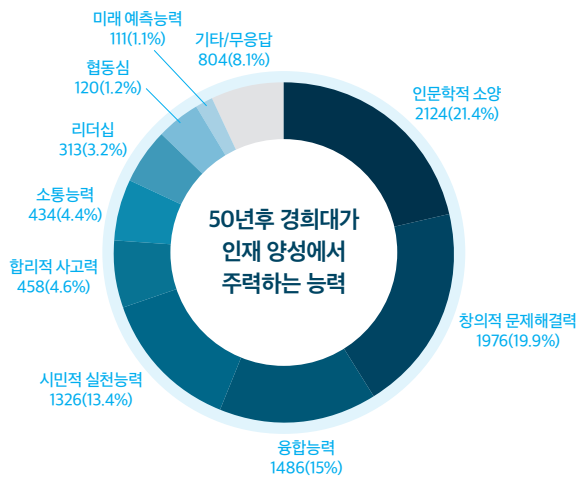
현재 경희대가 어떤 능력을 갖춘 인재 양성에 주력하고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과반이 넘는 51.7%(5124명)가 ‘인문학적 소양’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고 답했다. ‘시민적 실천능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는 응답도 12.3%(1218명)로 뒤를 따랐다. ‘창의적 문제해결력’을 갖춘 인재 양성은 7.4%(733명), ‘융합능력’은 6%(597명), ‘합리적 사고력’은 4.6%(458명), ‘소통능력’은 4.4%(434명)로 나타났다. 약 8%가 ‘취업준비형 인재’, ‘전문지식을 갖춘 인재’, ‘기업에 적합한 인재’ 등이라고 답했다.

50년 후 경희대가 어떤 능력을 갖춘 인재 양성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21.4%(2124명)가 ‘인문학적 소양’을 갖춘 인재를 양성할 것이라고 답했다. 수치는 낮아졌지만 현재와 같이 1위다. ‘창의적 문제해결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할 것이라는 응답이 19.9%(1976명)로 뒤를 따랐다. ‘융합능력’을 갖춘 인재는 15%(1486명), ‘시민적 실천능력’은 13.4%(1326명)로 나타났다. 경쟁력과 인재상에 대한 학생들의 이 같은 인식은 교양교육을 중심으로 한 경희대의 교육철학이 학생들에게 충분히 수용된 결과로 봐야 할 것이다.

**Q 50년 후 경희대학교의 가장 경쟁력 있는 전공 분야는 무엇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Q 50년 후 경희대학교는 어떤 능력을 갖춘 인재 양성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하는가?**



## 미래 핵심가치와 총장의 교육철학

미래 경희가 추구해야 할 핵심가치와 미래대학 운영자의 자질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학생들은 ‘인간다움’을 추구하는 가운데 ‘교육철학’이 확고한 총장이 대학을 이끌어가야 한다고 보았다. 기업 인이라도 교육철학이 분명하다면 대학을 운영할 수 있다고 답했다.

### 미래 경희의 핵심가치는 ‘인간다움’

‘인간다움’이 미래 경희가 추구해야 할 핵심가치로 꼽혔다. “50년 후 경희대가 추구해야 할 핵심가치는 무엇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가”라는 문항에 대해 ‘인간다움’(15.4%, 404명)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하지만 답변 비율이 여러 항목으로 고루 분산되어 있어 눈길을 끈다. ‘진리탐구’ 11.5%(302명), ‘사고력 확장’ 10.9%(286명), ‘주체성 함양’ 10%(262명), ‘다양성’ 9.1%(239명), ‘전공지식 전수’ 8.1%(214명) 등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어 ‘자아성찰’(7.8%, 206명), ‘사회공헌’(7%, 183명), ‘리더 양성’(6.4%, 168명)이 그 뒤를 따랐다.

반면 ‘취업역량’(4.3%, 114명), ‘문명사회 모색’(3.9%, 102명), ‘관계 형성’(3.5%, 93명), ‘경제적 가치’(1.9%, 49명) 등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은 낮았다. 4절의 미래대학 핵심가치 문항 결과와 좋은 유비를 이룬다.

### 대학 총장은 ‘교육철학’이 우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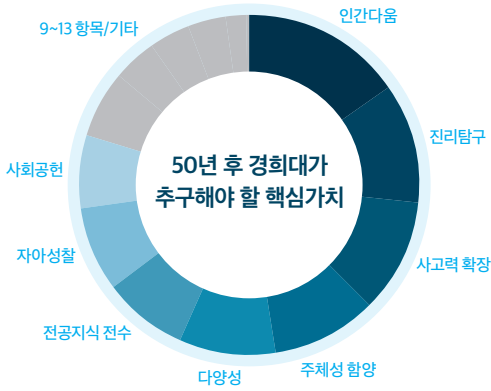
현재 경희대학교 총장이 갖춰야 할 필수 덕목을 묻는 질문에 ‘교육철학’을 꼽은 응답자가 전체의 33.6%(3327명)로 가장 많았다. ‘미래비전’을 꼽은 응답은 29.3%(2902명), ‘경영능력’을 총장의 필수 덕목으로 지목한 응답은 18.8%(1866명)로 3위를 차지했다. ‘리더십’은 6.1%(606명), ‘전문지식’은 5.2%(514명)가 선택했다.

50년 후 경희대학교 총장이 갖춰야 할 필수 덕목을 묻는 질문에서도 ‘교육철학’을 꼽은 응답자가 전체의 36%(3569명)로 가장 많았다. ‘미래비전’을 꼽은 응답은 33.5%(3316명), ‘경영능력’을 지목한 응답은 11.3%(1124명)로 집계됐다. 현재 총장의 덕목과 비교해볼 때, 다른 부분은 유사하지만 ‘미래비전’에 대한 중요도가 조금 더 강조되었다고 할 수 있다. 재학생과 교직원의 응답 샘플 400개를 비교한 결과, 재학생은 ‘교육철학’의 비율이, 교직원은 ‘리더십’ 항목의 비율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나 대비를 이뤘다.

FGI에서도 위와 같은 의견이 도출됐다. 대학은 교육기관이므로 현재와 미래대학 공히 총장의 교육철학이 필수 덕목이라는 것이다. “기업 경영인이 총장이 되는 것을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주제는 올바른 교육철학을 가지고 있다면 경영인이어도 무방하다는 결론으로 모아졌다. 굳이 경영능력과 교육철학, 둘 중에 하나만 고르라면 교육철학 쪽을 택하겠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토론이 갖는 특성상, 학생들의 이상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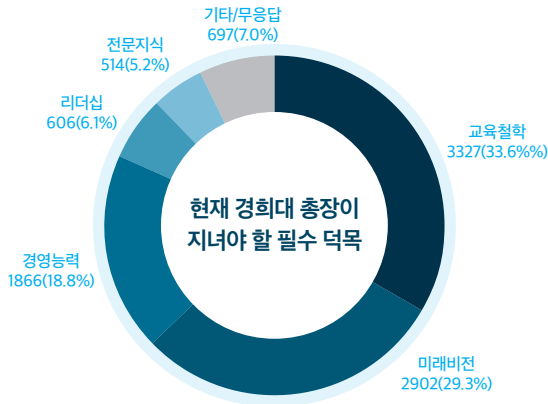


**Q 50년 후 경희대학교가 추구해야 할 핵심가치는 무엇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가?**  
(3개 이내 선택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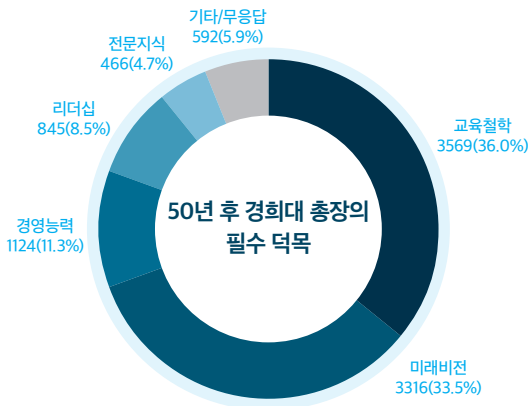


순위	추구해야 할 핵심가치	빈도 (%)
1	인간다움	404 (15.4)
2	진리탐구	302 (11.5)
3	사고력 확장	286 (10.9)
4	주체성 함양	262 (10.0)
5	다양성	239 (9.1)
6	전공지식 전수	214 (8.1)
7	자아성찰	206 (7.8)
8	사회공헌	183 (7.0)
9	리더 양성	168 (6.4)
10	취업역량	114 (4.3)
11	문명사회 모색	102 (3.9)
12	관계 형성	93 (3.5)
13	경제적 가치	49 (1.9)
-	기타	5 (0.2)
	총계	2627 (100)

**Q 2014년 현재 경희대학교 총장이 지녀야 할 필수 덕목은 무엇인가?**



**Q 50년 후 경희대학교 총장이 지녀야 할 필수 덕목은 무엇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가?**



## 세계로 뻗어나가는 대학

경희 구성원은 50년 후 경희대학교의 위상을 어떻게 전망하고 있을까. 예상보다는 높지 않게 나타났다. 세계대학순위를 132위로 내다봤다. 향후 50년 이내 경희인이 노벨상을 받는다면 '평화' 분야에서 수상자가 나올 것이라고 예상했다.

### 50년 후 세계대학순위는 132.6위

50년 후 경희대학교의 세계대학순위를 예상해보라는 개방형 질문에는 총 8536명이 응답했다. 평균을 산출한 결과, 응답자들이 예측한 50년 후 경희대의 세계대학순위는 132.6위로 나타났다. 2014년 경희대는 QS 세계대학순위 275위를 차지했다. 대학의 위상을 외부 평가기관의 순위로 한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대학의 위상은 그보다 훨씬 복합적인 의미를 갖기 때문이다. 또한 현재와 같은 대학 순위는 평가 기준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정량 평가 위주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지적도 벌써부터 제기돼왔다.

그간 대학이 발표해온 중장기 발전 전략에 의하면 경희대는 2020년을 전후해 아시아 최정상권, 세계적 명문으로 도약한다. 이 같은 미래비전이 학생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었다면 50년 뒤 경희는 세계대학 50위권 이내로 진입한다는 답이 우세했을 것이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정책 홍보를 보다 활성화할 필요성이 있다.

### 노벨상을 받는다면 '평화'와 '문학' 분야

향후 50년 이내 경희대학교 구성원 혹은 졸업생이 노벨상을 받는다면 어느 분야가 최초가 되겠느냐는 질문에 '평화' 분야를 꼽은 응답자가 전체의 34.7%(3443명)로 가장 많았다. '문학' 분야를 꼽은 응답은 22.2%(2200명)로 2위를 차지했으며, '생리학' 분야를 지목한 응답이 11.6%(1153명)로 그 뒤를 이었다. '물리학' 분야라는 응답은 8.1%(799명), '화학' 분야는 7.8%(776명)로 나타났다. 창작 이래 경희가 지속적으로 추구해온 세계평화 운동에 대한 인식이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 문학 분야가 높게 나타난 것은 타 대학에 비해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동문 문인의 활약상에서 비롯됐을 것이다.

### 해외 캠퍼스가 세워진다면 '아시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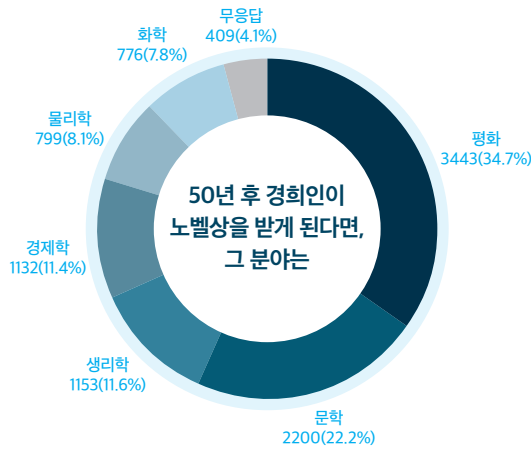
향후 50년 이내에 경희대학교 해외 캠퍼스가 세워진다면 어느 지역에 최초로 세워지겠느냐는 질문에 '아시아'를 꼽은 응답자가 전체의 47.2%(4682명)로 가장 많았다. '유럽'이라는 응답이 22.7%(2252명)로 2위를 차지했다. 이어 '북미' 12.3%(1223명), '아프리카' 5.8%(577명), '오세아니아' 4.3%(427명), '남미' 4%(392명)로 집계됐다. 경희대는 1960년대 중반부터 해외 대학과 자매결연을 맺어 현재 해외 600여 개 대학과 교류하면서 국제화 역량을 높여가고 있다. 또한 국내 대학 중 외국인 유학생 수가 가장 많은 대학이기도 하다.

Q 50년 후 경희대학교의 세계대학순위는 몇 위일 것으로 예상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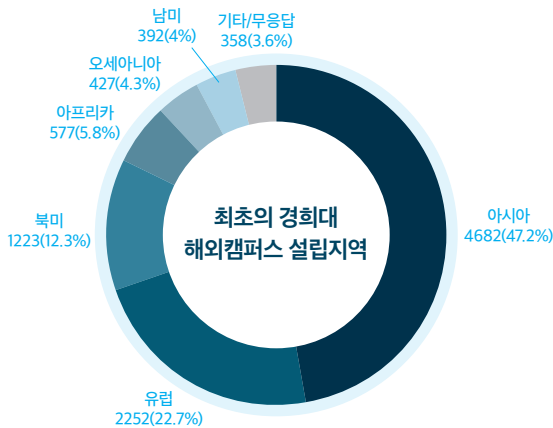
# 132.6

약 132.6위 | 총 8536명 응답

Q 앞으로 50년 이내에 경희대학교 구성원 또는 졸업생이 노벨상을 받는다면 어느 분야가 최초가 되겠는가?



Q 앞으로 50년 이내에 경희대학교의 해외 캠퍼스가 세워진다면 어느 지역에 최초로 세워지겠는가?





# 대학의 미래와 핵심가치: 주요 대학과 이미지·능력 비교 분석

‘미래리포트’와 함께 진행된 ‘대학의 미래와 핵심가치’ 연구는 대학의 정체성을 관념적 언어가 아닌 구체적 이미지로 형상화하는 방법론을 활용했다.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경희의 위상을 도출하기 위해 서울 시내 주요 대학 이미지와 비교했다. 의인화 기법을 통해 경희대 학생의 이미지를 구체화한 데 이어 로고스(이성), 에토스(품성), 파토스(감성) 영역에서도 타 대학과 비교 분석을 시도했다. 그 결과 경희대생의 자화상은 정의감과 배려심이 있는 20대 초반의 여성 문화예술가로 그려졌다.

## 경희인이 그린 경희 자화상

20~24세 여성, 키 171~175cm의 보통 체형  
유니섹스 캐주얼이 어울리는 문화예술가

학생 4700여 명을 대상으로 대학을 인격적 주제로 의인화하는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성별, 연령, 얼굴형, 체형, 키, 옷차림, 직업 등 7개 항목을 제시한 뒤, 각 대학을 떠올렸을 때 연상되는 이미지가 무엇인지 알아봤다.

이번 조사에서 경희대학교의 외형 이미지는 “20~24세 여성, 유니섹스 캐주얼이 어울리는 문화예술가”로 나타났다. 2014년 고교생연구소가 전국 고등학생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이미지 연구에서도 경희대는 “여성이면서 다정다감한 ‘볼매’(볼수록 매력적인) 사회과학도”라는 평가가 있었다.

측정 항목별 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경희대의 성별 이미지는 ‘여성’이 81.8%로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했다. 연령 이미지는 ‘20~24세’가 40%, ‘25~29’세가 35.2%였다.

비교 대상 대학 중에서 경희가 가장 젊은 이미지를 갖고 있었다. 얼굴형은 ‘계란형’이 61.7%를 차지했고, 체형을 묻는 질문에서는 ‘보통’(37.8%)과 ‘날씬한’(36.1%)이라는 응답이 경합했다. 키와 옷차림 이미지 항목에서는 ‘171~175cm’가 37%, ‘유니섹스 캐주얼’이 38.1%로 응답률이 가장 높았다. 직업 이미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35.6%가 ‘문화예술가’라고 답했다. 그 뒤를 이어 ‘NGO 리더’라는 응답이 14.3%를 차지했다.



### 경희대

20~24세 여성

유니섹스 캐주얼이 어울리는 문화예술가



**A대**  
25~29세 남성  
정장이 어울리는  
법률 전문가



**B대**  
30~34세 남성  
정장이 어울리는  
연구개발직



**C대**  
25~29세 남성  
캐주얼 정장이 어울리는  
연구개발직



**D대**  
25~29세 여성  
캐주얼 정장이 어울리는  
의료 전문가



**E대**  
25~29세 남성  
캐주얼 정장이 어울리는  
사무직



**F대**  
25~29세 남성  
트레이닝복이 어울리는  
연구개발직

## 로고스, 에토스, 파토스

9개 평가 요인 중 감성-에토스 측면의 '친근성'이 5.2점으로 최고점  
인문성·이타성·공동체성 높이 평가한 반면, '지성' 점수는 4.54로 가장 낮아

### 주체적 능력 이미지 연구 방법

일찍이 아리스토텔레스는 사람들에게 말로 믿음을 줄 수 있는 능력의 세 가지 차원을 제시한 바 있다. 첫 번째는 말 그 자체인 로고스(logos), 두 번째는 말하는 사람의 품성인 에토스(ethos), 세 번째는 듣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정서로서의 파토스(pathos).

'대학의 미래와 핵심가치' 연구팀은 대학을 의인화했을 때 연상되는 주체적 능력을 로고스(이성), 에토스(품성), 파토스(감성) 등 3개의 범주로 나눠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세부 요인으로 (1) 지성 (2) 인문성 (3) 정의 (4) 수월성 (5) 책임 (6) 공감성 (7) 친근성 (8) 공동체성 (9) 이타성 항목을 제시하고 응답자에게 7점 만점 기준으로 점수를 매기도록 했다. 이 조사 역시 6개 대학과의 이미지 비교 방식으로 진행됐다.

경희대만을 대상으로 세 측면을 평가했을 때 감성-파토스 측면이 평균 4.87로 가장 높았으며, 이성-로고스(평균 4.69), 품성-에토스(평균 4.59) 순이었다. 세부 요인별로는 '친근성'이 5.20으로 최고점을 얻었으며 '인문성'이 평균 4.90으로 두 번째로 높았다. 반면 '지성'은 4.54로 가장 낮았다.

### 이성-로고스

로고스는 논리적 추론 능력을 의미한다. 이는 이성적 앎을 구성할 수 있는 능력을 전제한다. 이런 이미지를 투영해 대학을 하나의 인격적 주체로 의인화했을 때, 로고스를 갖추었다는 것은 학문을 탐구하고 지식을 쌓으며, 그러한 일을 수행할 수 있는 비판력·분석력·이해력 등의 지적 능력을 겸비했음을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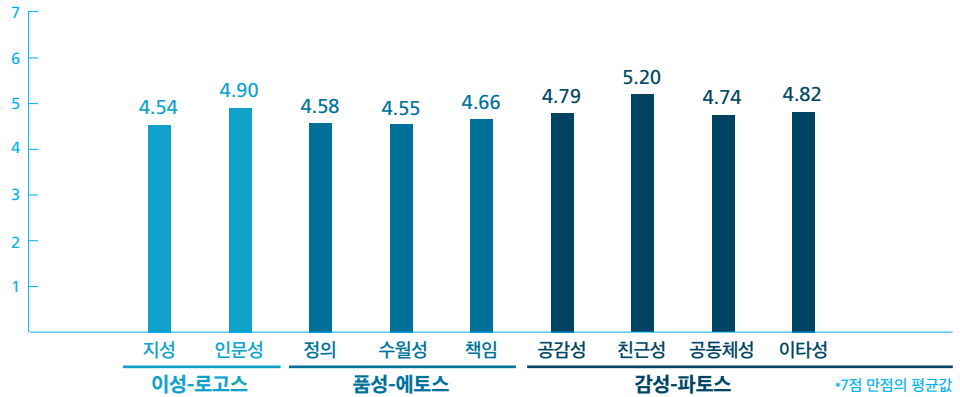
로고스는 대학이 말과 이성을 통해서 합리적인 앎(과학적 대상에 대한 앎), 실천적인 앎(윤리적 가치에 대한 앎), 심미적인 앎(소통과 공감에 대한 앎)을 생산하고 교육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이성-로고스는 앎을 생산하고 교육하는 영역이자 사회와의 소통을 통해서 앎을 공유하는 영역이다.

### 품성-에토스

에토스는 말하는 사람의 품성을 높여 타인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능력을 말한다. 설득의 수단으로서 에토스는 윤리적 품성과 행동으로 설득력을 높이는 능력으로 이해되지만, 그 능력을 온전히 발휘하기 위해서는 그보다 더 큰 능력인 '삶을 잘 살 수 있는 능력'이 전제돼야 한다. 이런 이미지를 대학에 투영하면, 대학이 단순히 기술적 능력이나 지식만을 함양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 속에서 통찰력을 발견하고 이를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현명함을 갖추고, 선한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 타인을 배려하고 좋은 일을 하려고 노력하며, 공공의 이익을 위해 힘쓰는 모습을 그려볼 수 있다.



## 경희의 주체적 능력 이미지



## 대학의 능력 이미지로서의 로고스, 에토스, 파토스

능력 이미지	세부 요인	능력 내용	영역
이성 (로고스)	지성	- 과학과 지식, 앎을 생산하고	- 진리 추구와 앎의 교육 영역
	인문성	소통할 수 있는 능력	- 앎을 통한 사회 및 현실과의 소통 영역
품성 (에토스)	정의	- 탁월한 삶을 살 수 있는 능력	- 앎의 실천 영역
	수월성	- 탁월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 품성과 교육의 영역
	책임	교육하는 능력 - 탁월한 가치를 제시할 수 있는 능력	
감성 (파토스)	공감성	- 가치 공유를 통해 공동체를	- 소통과 공감의 영역
	친근성	구성할 수 있는 능력	- 공동체의 영역
	공동체성	- 공동체에서 기쁨, 즐거움, 연대감과	- 창의적인 문화의 영역
	이타성	같은 긍정적인 정서를 유지하고 확장할 수 있는 능력	

품성-에토스는 대학이 실천이성 또는 실천적 지혜를 통해서 자신의 탁월성을 이뤄내는 능력이자 학생이나 사회에 탁월한 가치를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이다. 또한 학생 스스로 탁월한 삶을 꾸려갈 수 있도록 교육하는 능력이기도 하다.

## 감성-파토스

파토스는 듣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능력을 말한다. 파토스는 원래 ‘신체적 감각’을 뜻하는 말이지만, 이는 단순히 기분이나 정서에 한정되지 않고 신체적 느낌에서 영성에 이르기까지 사람의 마음과 몸에 해당하는 많은 부분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달리 말해, 파토스는 가치의 정서적인 공유 또는 몸으로 느껴지는 가치를 통해 설득하는 능력이다. 그런 의미에서 파토스는 대학이 자신의 가치를 탁월하게 표현함으로써 대학이라는 공간을 가치공동체로 구성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따라서 감성-파토스는 몸과 마음이 맞닿아 있는 소통과 공감의 영역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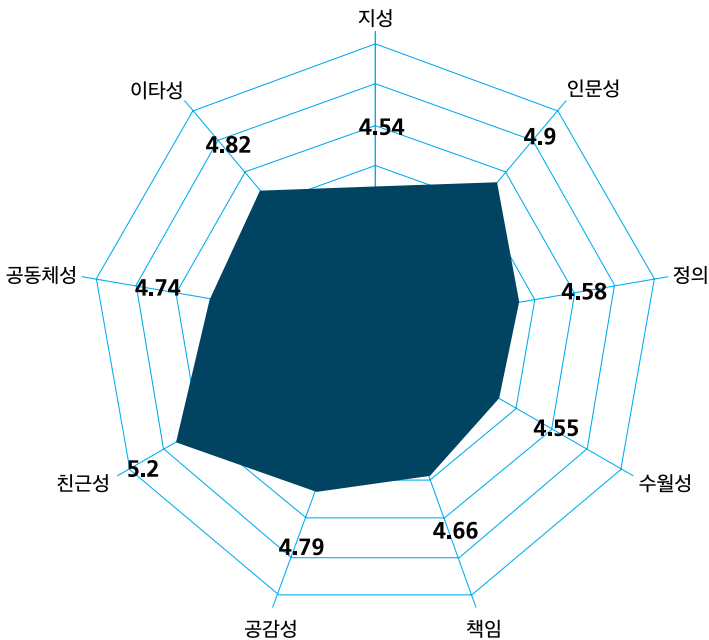
## “경희는 정의롭고 배려심 많은 친근한 대학”

친근성·이타성·공감성·정의 4개 요인에서 평균 점수 가장 높아  
지성·수월성 2개 요인은 7개 대학 중 6위에 머물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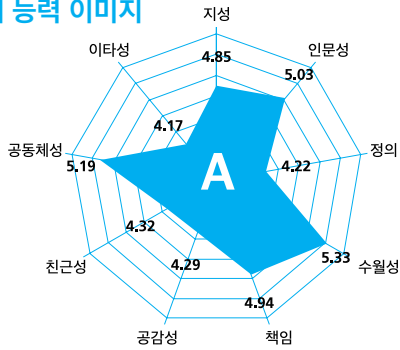
다른 6개 대학과 비교할 때, 경희대는 품성-에토스 능력 이미지 중 ‘정의’ 요인, 감성-파토스 이미지 중 ‘공감성’, ‘친근성’, ‘이타성’ 요인에서 가장 높은 평균을 보이고 있다. 공감성, 친근성, 이타성은 다른 대학에 비해 월등히 높은 평가를 얻었다.

이 같은 결과는 경희대가 다른 6개 대학에 비해 올바르고 정의로우며 윤리적이고 관대한(정의 요인) 이미지로 평가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학생들은 경희대가 소통과 공감을 중시하고 배려심이 있으며(공감성 요인), 친근감이 있고 호감이 가며 따뜻하고 다정다감하며(친근성 요인), 친절하고 동정심이 많으며 이해심이 많은(이타성 요인) 이미지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 경희대의 능력 이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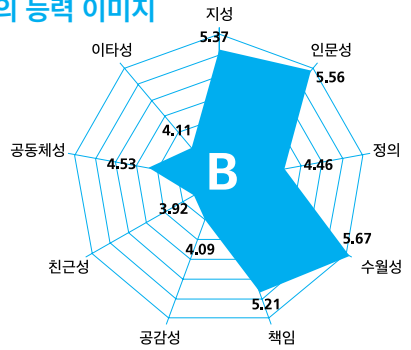


### A대의 능력 이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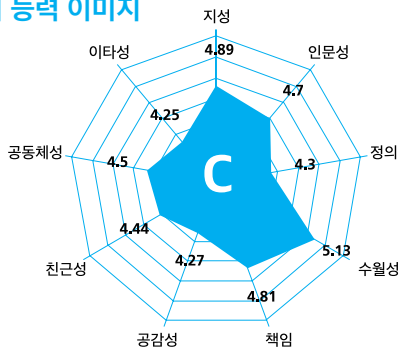
품성-에토스 측면의 수월성 요인이 평균 5.33으로 가장 높게 평가됐다. 공동체성(5.19), 인문성(5.03), 책임(4.94) 순의 평균을 나타냈다. 반면 감성-파토스 측면의 이타성 요인이 평균 4.17로 가장 낮았다.

### B대의 능력 이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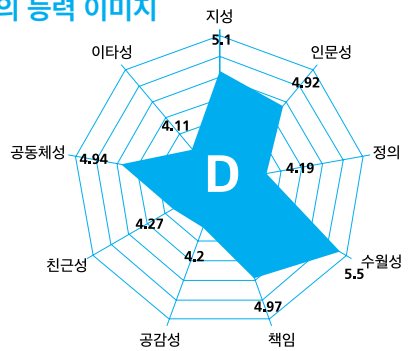
수월성 요인이 평균 5.67로 가장 높았으며, 이성-로고스 측면의 인문성(5.56)과 지성(5.37)도 그에 못지않은 높은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감성-파토스 측면의 친근성(3.92), 공감성(4.09) 요인과 큰 차이를 보였다.

### C대의 능력 이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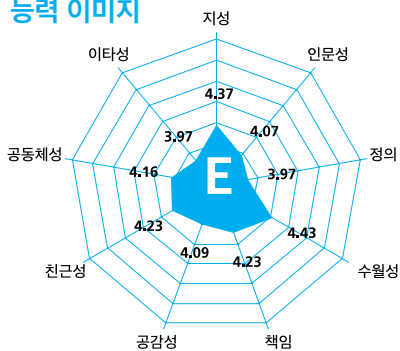
품성-에토스 측면의 수월성 요인(5.13)에 이어, 이성-로고스 측면의 지성(4.89)과 품성 측면의 책임(4.81)이 높은 평균을 얻었다. 감성-파토스 측면의 이타성(4.25)과 공감성(4.27)의 평균이 낮았다.

### D대의 능력 이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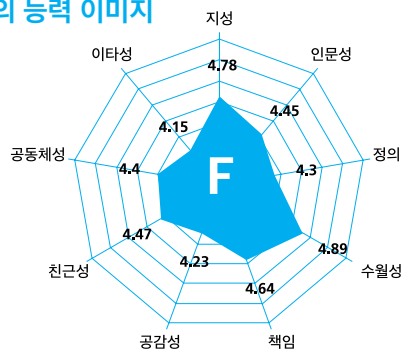
수월성 5.5, 지성 5.1, 책임 4.97, 인문성 4.92로 여러 요인들이 고른 분포를 보여줬다. 반면에 감성-파토스 측면의 이타성 평균이 4.11로 가장 낮았다. 정의(4.19), 공감성(4.2), 친근성(4.27)도 낮게 평가됐다.

### E대의 능력 이미지



다른 대학에 비해 평균 점수가 전체적으로 낮았다. 모든 요인이 평균 4.5를 넘지 못했으며, 수월성이 4.43으로 가장 높았다. 지성(4.37), 책임과 친근성(4.23)이 뒤를 이었다. 정의와 이타성이 가장 낮은 3.97을 기록했다.

### F대의 능력 이미지



모든 요인이 5.0 이상을 얻지 못한 가운데 4점대에 형성되는 분포를 나타냈다. 수월성이 4.89로 가장 높았으며, 지성(4.78)과 책임(4.64)이 뒤를 이었다. 이타성 요인이 4.15로 가장 낮았다.

## “지성과 수월성, 더 높아져야 한다”

현재의 능력 이미지 9위인 '지성' 요인, 미래의 기대 이미지 1위  
품성-파토스 영역의 책임-수월성, 기대 이미지 2~3위

### 영역별 기대 이미지 vs 현재 이미지

‘대학다운 미래대학’을 지향하고 있는 경희대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학생들이 미래의 경희에 기대하고 있는 능력 이미지를 조사했다. 이성-로고스, 품성-에토스, 감성-파토스 영역별 기대 수준은 이성-로고스의 평균값이 5.38로 가장 높았다. 품성-에토스(5.33), 감성-파토스(4.96) 순이었다. 현재의 능력 이미지 평균값을 미래의 기대 이미지 평균값과 비교했을 때, 품성-에토스 이미지의 차이가 0.74로 가장 컸다. 그 다음은 이성-로고스 능력 이미지였다(차이값 0.69). 감성-파토스의 기대 이미지와 현재 이미지는 차이가 거의 없었다.

### 9개 요인별 기대 이미지 vs 현재 이미지

주체적 능력의 현재 이미지에 대한 요인별 평가 순위는 (1) 친근성 (2) 인문성 (3) 이타성 (4) 공감성 (5) 공동체성 (6) 책임 (7) 정의 (8) 수월성 (9) 지성 순이었다. 반면, 미래의 경희에 기대하는 능력 이미지 순위는 (1) 지성 (2) 책임 (3) 수월성 (4) 인문성 (5) 정의 (6) 공동체성 (7) 공감성 (8) 친근성 (9) 이타성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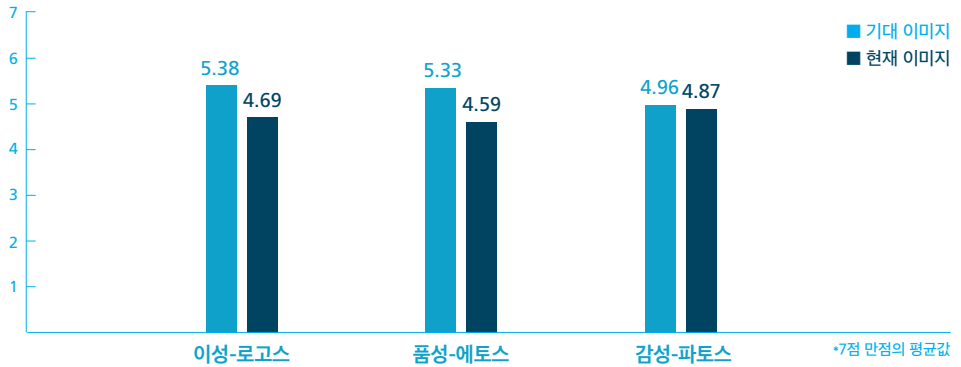
경희의 현재 이미지에서 가장 낮게 평가된 '지성' 요인이 미래의 기대 이미지 순위에서 1위를 차지했다. 두 번째로 낮게 평가됐던 '수월성' 요인은 기대 이미지 3위, 현재 이미지 6위였던 '책임'은 기대 이미지 2위였다. 큰 폭의 순위 바뀜이 이뤄진 이들 3개 요인에 대한 현재와 미래의 차이값은 지성 (0.89), 수월성(0.80), 책임(0.75) 순으로 차이가 컸다. 이 부분에 대한 학생들이 기대 정도가 높음을 말해주는 결과다.

한편, 경희의 현재 이미지 1위를 차지했던 '친근성'은 기대 이미지 8위였으며, 현재 이미지 3위였던 '이타성'은 기대 이미지 9위였다. 특히 친근성의 경우 다른 8개 요인의 기대 이미지 평균값이 현재 이미지보다 높은 것과 달리, 5.20에서 4.97로 마이너스 값을 기록한 것이 눈길을 끈다.

### 함의

이 같은 분석 결과는 인격적 주체로서 경희대의 능력 이미지가 감성 측면에서는 충분하지만, 이성과 품성의 측면에서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품성 차원의 기대 이미지와 현재 이미지의 차이가 가장 크게 나타나 경희대 학생들의 주체적인 능력을 키워주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절실한 것으로 보인다.

## 이성·품성·감성 기대 이미지 vs 현재 이미지



## 9개 요인별 기대 이미지 vs 현재 이미지

구분	구분	기대 이미지	현재 이미지	차이값
이성 (로고스)	지성	5.43	4.54	0.89
	인문성	5.34	4.90	0.44
품성 (에토스)	정의	5.21	4.58	0.63
	수월성	5.35	4.55	0.80
	책임	5.41	4.66	0.75
감성 (파토스)	공감성	4.98	4.79	0.19
	친근성	4.97	5.20	-0.23
	공동체성	5.01	4.74	0.27
	이타성	4.88	4.82	0.06

\*7점 만점의 평균값

## 9개 요인의 현재 vs 미래 이미지 순위

순위	현재	미래
1	친근성	지성
2	인문성	책임
3	이타성	수월성
4	공감성	인문성
5	공동체성	정의
6	책임	공동체성
7	정의	공감성
8	수월성	친근성
9	지성	이타성

## 경희의 교훈과 대학의 핵심가치

**사상의 민주화: 성찰적 반성과 진리 탐구를 통한 탁월성 성취**

**생활의 민주화: 성숙한 공동체 성원으로서 교양과 지식을 실천**

**학원의 민주화: 소통하고 공감하며 가치 있고 행복한 삶 추구**

### 경희의 교육 이념과 미래메시지

1964년 5월 18일, 경희는 '개교 100주년 기념식에 보내는 메시지'(미래 메시지)를 발표했다. '문화세계의 창조'라는 창학정신으로, 과학교육·인간교육·정서교육을 구현해 세계적인 대학으로 도약하겠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었다.

과학교육은 학생들이 성찰적 반성과 진리 탐구를 통해 개인의 탁월성을 성취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합리'의 영역이다. 이는 경희의 교훈 '사상의 민주화'와 연결된다. 인간교육은 교양의 기초 위에서 앎을 실행하는 성숙한 공동체 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하는 '실천' 영역이다. 경희의 교훈 '생활의 민주화'와 연결된다. 정서교육은 자신을 포함한 모든 대상과 소통하고 공감하며 궁극적인 행복을 누릴 수 있게 하는 '심미'의 영역이다. 경희의 교훈 '학원의 민주화'와 연결된다.

### 경희의 정체성과 대학의 핵심가치

대학이 자아와 세계에 대한 성찰 및 탐구를 수행하는 학술공동체라는 관점에서, 대학의 본질적 가치는 (1) 합리 (2) 실천 (3) 심미 영역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그런데, 이는 경희의 창학정신과 교육 이념, 학술과 실천을 결합해온 전통과 다르지 않다.

경희대 학생들이 꿈꾸고 있는, 그리고 경희가 이뤄야 할 미래대학의 핵심가치를 알아보기 위해 (1) 합리 (2) 실천 (3) 심미, 세 차원의 개념적 틀을 설정했다. 5점 만점 척도로 총 47개 문항의 설문조사를 실시한 뒤 공통 요소를 추출해 8개 세부 요인으로 측정 항목을 범주화했다. 참고로, 실천 분야의 '대학의 기업화'는 기업 투자 유치, 경쟁 강화, 엘리트 지향, 고객 지향, 국제 지향 등 5개 항목에 대한 응답을 종합한 것이다.

대학의 핵심가치에 관한 설문 항목은 앞서 소개한 대학의 능력 이미지와 조응한다. 예를 들어 합리 차원의 세부 요인인 전문인·교양인 양성은 능력 이미지의 지성·인문성 요인과 관련성을 갖는다.

## 대학의 핵심가치와 경희의 교훈

대학의 핵심가치	경희의 교육 방침	경희의 교훈
합리	전문인 양성 교양인 양성	과학교육 사상의 민주화
실천	시민사회 기여 대학의 기업화 삶의 가치 실현	인간교육 생활의 민주화
심미	사회적 소통 공동체 구현 창의적인 문화	정서교육 학원의 민주화



## 대학의 핵심가치 측정 항목

핵심가치	세부 요인	능력 이미지
합리	전문인 양성	지성
	교양인 양성	인문성
실천	시민사회 기여	정의
	대학의 기업화	수월성
	삶의 가치 실현	책임
심미	사회적 소통	공감성
	공동체 구현	이타성
		공동체성
		친근성
	창의적인 문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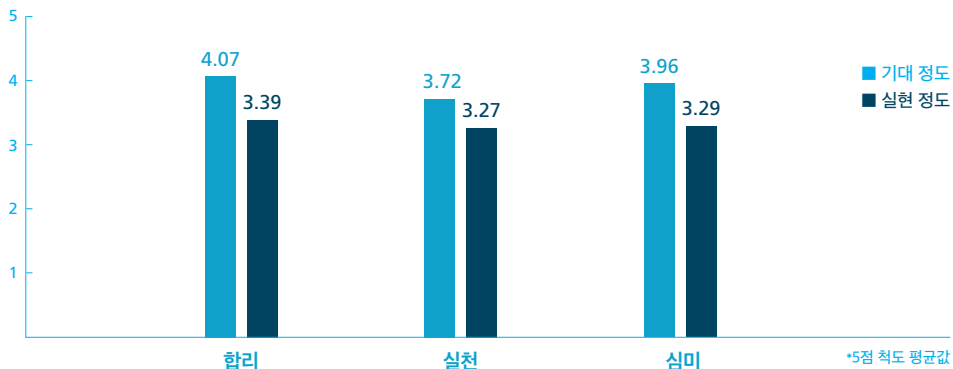
## 합리와 심미가 중요한 미래 가치

합리 영역에 대한 기대, 평균 4.07로 가장 높아  
실천에 대한 기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

대학의 핵심가치 중에서 '합리'가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경희대 학생들은 평가했다. 경희가 미래에 실현해야 할 핵심가치를 묻는 설문조사에서 '합리'에 대한 기대값(4.07)이 가장 높았다. 심미(3.96), 실천(3.72)이 그 뒤를 이었다. 핵심가치에 대한 현재의 실현 정도 역시 합리(3.39), 심미(3.29), 실천(3.27) 순이었다. 이상은 모두 5점 척도의 평균값이다.

합리에 대한 기대 정도와 실현 정도의 평균값 차이는 약 0.68, 심미는 0.67이었다. 반면, 실천의 경우는 평균 0.45로 두 핵심가치와 큰 격차를 보였다. 합리성과 심미성에 대한 학생들의 요구가 높다는 뜻이다. 실천에 대한 기대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은 '학문과 평화'의 경희 학풍과 전통, 특히 후마니타스칼리지 설립과 지구사회봉사단 창설 이후 활발하게 펼쳐온 높은 수준의 지구적 공헌 노력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 대학의 핵심가치 기대 정도 vs 실현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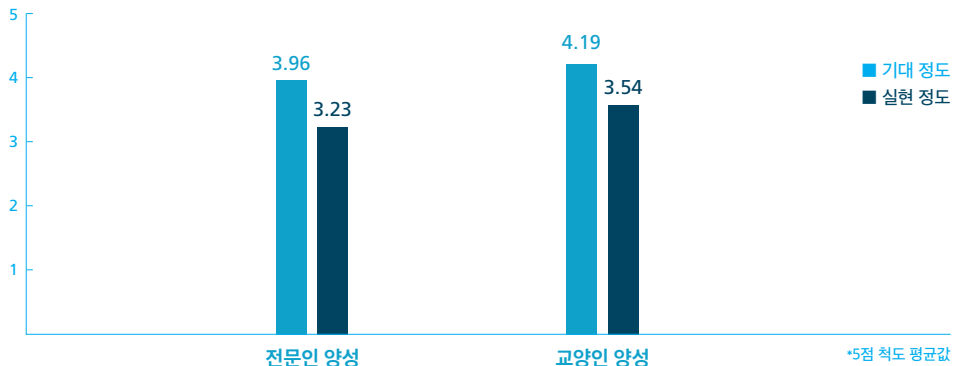
## 미래대학 핵심 요인은 ‘교양인 양성’

‘교양인 양성’에 대한 기대 정도 및 실현 정도, 8개 항목에서 1위  
‘전문인 양성’에 대한 기대 정도는 5위로 중간 수준

대학의 핵심가치에 대한 실증 조사에서 경희대 학생들은 8개 항목 중 합리 영역의 ‘교양인 양성’을 가장 많이 지목했다. 평균값을 기준으로 한 전체 순위에서 교양인 양성은 기대 정도(4.19)와 실현 정도(3.54) 모두에서 1위를 차지했다. 이는 후마니타스칼리지를 기반으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제공되고 있는 데 따른 결과로 분석된다. 한편 ‘전문인 양성’에 대한 결과는 기대 정도가 3.96(5위), 실현 정도가 3.23(6위)이었다.

합리의 14개 세부 항목별 기대 정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학문 탐구’가 평균 4.56으로 가장 높았다. 다양한 사고 촉진(4.42), 전문지식 함양(4.42), 교양인 양성(4.41), 잠재성 실현과 개발(4.29), 능력 계발(4.15), 진리 탐구(4.15), 인재 양성(4.12), 전문 인력 양성(4.07), 인문학 강화(3.90) 순으로 기대가 높은 반면 ‘탁월성 지향’이 평균 3.55로 가장 낮았다. 통섭형 교육(3.62), 산학 연계(3.69), 실무 교육(3.70) 순으로 낮은 평균을 보였다. 즉, 경희대 학생들은 합리 중에서 ‘학문 탐구’가 가장 잘 실현되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그 반대로 ‘탁월성 지향’은 가장 실현되지 않기를 바라는 핵심가치로 설정하고 있다.

### 합리의 기대 정도 vs 실현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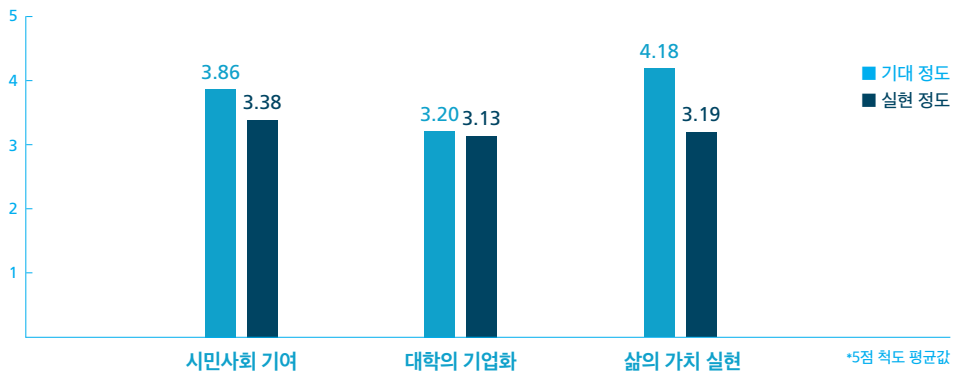
## “사회적 책임, 높은 수준이다”

‘삶의 가치 실현’에 대한 기대, 전체 항목 중 2위  
‘시민사회 기여’ 실현 정도는 3.38로 높게 평가

경희대 학생들은 실천 영역의 ‘삶의 가치 실현’에 대한 기대 정도가 높았다. 평균값 4.18로 측정 항목 8개 중 2위였다. ‘삶의 가치 실현’에 해당하는 세부 항목은 적성 찾기, 삶의 방향 제시, 가치 정립 등이다. 시민사회 기여(3.86)와 대학의 기업화(3.20)에 대한 기대는 낮은 수준이었다. 그와 대조적으로 실현 정도에 대한 평가에서 ‘시민사회 기여’는 평균 3.38(2위)로 높은 점수를 얻었다. 이는 경희대의 사회적 책임이 높은 수준에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실천의 17개 세부 항목별 기대 정도를 살펴보면, ‘가치 정립’이 평균 4.27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적성 찾기(4.19), 시민의식 함양(4.16), 인성교육 지향(4.12), 삶의 방향 제시(4.09), 사회 발전에 기여(4.08), 사회 참여(3.99), 민주시민 양성(3.97), 국제 지향(3.96) 순이었다. 반면에 ‘경쟁 강화’가 평균 2.86으로 가장 낮았다. 고객 지향(2.90), 엘리트 지향(3.07), 기업 투자 유치(3.21)에 대한 기대 역시 크지 않았다. 경희대 학생들은 실천 중에서 ‘가치 정립’이 가장 잘 실현되기를 기대하고 있는 반면, ‘경쟁 강화’가 가장 실현되지 않기를 바라는 핵심가치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 실천의 기대 정도 vs 실현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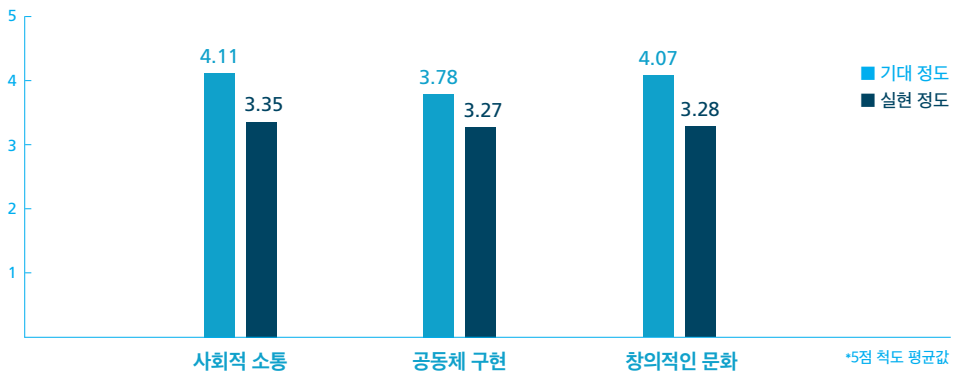
## 자기를 표현하며 세상과 소통해야

‘사회적 소통’ 및 ‘창의적인 문화’에 큰 기대감 나타내  
 세부 항목별 기대 정도는 ‘자기 표현’이 가장 높아

심미의 핵심가치에 대한 경희대 학생들의 기대감이 전반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대 정도의 평균값은 사회적 소통이 4.11(3위), 창의적인 문화는 4.07(4위)였다. 두 항목은 실현 정도 순위에서도 같은 순위를 차지했다. 공동체 구현(3.78)에 대한 기대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심미의 핵심가치에 대한 기대 정도를 세부 항목별로 살펴보면, 15개 항목 중 ‘자기 표현’(4.20)이 가장 높았다. 비전 찾기(4.19), 소통 능력 향상(4.17), 창의성 발현(4.15), 다양한 문화 경험(4.14), 사회성 함양(4.13), 개성 존중(4.11), 상상력 촉진(4.00), 가치 공유(3.99) 순이었다. 반면에 ‘낭만적 공동체’가 평균 3.39로 기대감이 가장 낮았으며, 그 다음이 다문화 감수성(3.52)이었다. 이 같은 결과를 통해 경희대 학생들이 심미의 핵심가치 중에서 ‘자기 표현’이 가장 잘 실현되기를 기대하고 있는 반면, ‘낭만적 공동체’ 실현을 가장 기대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심미의 기대 정도 vs 실현 정도



## ‘삶의 가치 실현’을 위한 노력 필요

현재와 미래 비교에서 ‘삶의 가치 실현’이 0.99로 가장 큰 격차  
창의적인 문화, 사회적 소통, 전문인 양성 등도 실현해야 할 핵심가치

미래에 대한 기대와 현실 간의 괴리는 불만족을 낳고 발전을 저해하는 원인이 된다. 따라서 그런 요인을 파악하고 그 간극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요구된다.

핵심가치의 기대 정도와 실현 정도 간의 차이가 가장 큰 항목은 ‘삶의 가치 실현’(0.99)이었다. 그 다음으로 창의적인 문화(0.79), 사회적 소통(0.76), 전문인 양성(0.73) 순으로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 네 가지 핵심가치를 더 잘 실현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이나 실제적인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삶의 가치 실현’은 8개 항목의 평균값 순위에서 기대 정도(2위)와 실현 정도(7위) 간의 변동 폭이 가장 컸는데, ‘시민사회 기여’는 그와 정반대인 결과를 나타냈다. 즉 기대 정도(6위)와 실현 정도(2위)가 큰 폭의 순위 변화를 보였지만 그 차이값은 0.48에 지나지 않았다. 현실 만족도와 미래에 대한 전망이 매우 긍정적이라는 분석이 가능하다. 한편 ‘대학의 기업화’는 핵심가치 실현 정도와 기대 정도 간의 차이가 0.07로 가장 적었다. 이는 대학의 기업화에 대한 학생들의 기대 수준이 매우 낮기 때문에 도출된 결과로 해석된다.

### 대학의 핵심가치 8개 측정 항목의 기대 정도 vs 실현 정도

순위	항목	핵심가치	차이값	기대 정도(순위)	실현 정도(순위)
1	삶의 가치 실현	실천	0.99	4.18(2)	3.19(7)
2	창의적인 문화	심미	0.79	4.07(4)	3.28(4)
3	사회적 소통	심미	0.76	4.11(3)	3.35(3)
4	전문인 양성	합리	0.73	3.96(5)	3.23(6)
5	교양인 양성	합리	0.65	4.19(1)	3.54(1)
6	공동체 구현	심미	0.51	3.78(7)	3.27(5)
7	시민사회 기여	실천	0.48	3.86(6)	3.38(2)
8	대학의 기업화	실천	0.07	3.20(8)	3.13(8)

• 5점 척도 평균값

---

## 미래 정책 방향

**주체적 능력: 이성-로고스, 품성-에고스 이미지 제고해야**

**미래의 핵심가치: 합리와 심미의 핵심가치 실현해야**

‘대학의 미래와 핵심가치’ 연구를 통해 경희대를 인격적 주체로 의인화하는 방법으로 외형적 이미지와 능력 이미지를 형상화하고, 미래대학의 핵심가치를 도출하고자 노력했다. 그 결과 학생들이 생각하는 경희의 강점과 약점, 대학다운 미래대학으로 나아가기 위한 경희의 지향과 정책 방향에 대한 윤곽을 그려낼 수 있었다.

**대학 이미지:** 이성-로고스, 품성-에토스, 감성-파토스 등 세 차원에서 경희대의 능력 이미지를 조사한 결과, 이성과 품성 이미지의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것을 이루는 하위 요소는 지성, 인문성, 정의, 수월성, 책임 등이다.

**미래대학 핵심가치:** 대학 본연의 정체성과 경희의 창학정신 및 교훈의 연관성 위에서, ‘합리·실천·심미’ 세 가지 핵심가치를 설정한 뒤 현재의 실현 정도와 기대 정도를 파악했다. 그 결과 합리와 심미의 핵심가치 실현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전문인 및 교양인 양성(합리), 사회적 소통, 공동체 구현, 창의적인 문화(심미) 등이 그에 해당한다.



# 더 깊은 목소리: 심층조사 및 연구

설문조사는 과학적인 방법으로 문항을 설계했다더라도 일정한 한계와 오차가 있다. 정량적으로 측정된 결과에 담긴 보다 깊은 뜻을 파악하기 위해 다양한 기법의 심층조사를 수행했다. 성별, 단과대학별, 학년별로 적극적인 참여 집단을 모집한 뒤 수차례에 걸쳐 토론을 진행하고 분석 틀을 활용해 의미를 추출했다. 심층조사에는 다음의 조사 및 분석 방법이 동원됐다.

- 포커스 그룹 인터뷰
- 소셜 픽션
- 다이어그램
- 미래 연표
- 담론 분석(공정 탐구, 의미 네트워크 분석)

# 설문 응답의 숨은 뜻 파악하기

포커스 그룹 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 FGI)는 대량 조사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심층조사 방법의 하나로, 참여자들이 설문 문항 및 결과에 대해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미래리포트'와 '미래 핵심가치' 연구팀은 수차례에 걸친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통해 설문 결과에 드러나지 않은 응답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취합하고 분석했다. 예를 들어, 50년 후 한국사회의 가장 큰 문제로 빈부격차와 고령화를 지적했는데, 포커스 그룹 인터뷰 과정에서 많은 학생들은 이들 문제가 취약한 사회복지 시스템과 연관돼 있다고 말했다.

## 미래리포트 포커스 그룹 인터뷰 (요약 발췌)

### 1. '나'의 현재와 미래

#### 현재 삶의 가치

- 왜 행복이 가장 큰 가치일까? 행복해야 한다는 압박이 아닐까?
- 행복은 궁극적인 가치이지만, 경제·사회가 심화되면서 남들보다 행복해져야 한다는 압박관념이 자리 잡았다고 볼 수 있다.
- 대학이 경쟁과 학점을 중시하기 때문에 자아실현도 중요한 가치로 떠오른 것 같다.
- 자아실현을 통해서 타인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면, 그것은 이기적이거나 자기 보존적인 행동을 넘어설 것이다.

#### 미래 삶의 가치

- 50년 후 나의 삶의 중요한 가치를 묻는 질문에 대부분의 학생이 '건강'이라고 답한 것이 인상 깊었다.
- 50년 뒤면 우리 나이가 70대가 되었을 때인데, 그때도 자아실현은 가능할 것 같기도 한데 왜 현재에 비해 응답률이 떨어졌을까?
- 50년 후에는 자아가 이미 실현돼 더 이상 발전시킬 자아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 여유가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한다. 정신적인 풍요를 위해서 물질적인 것이거나 시간적, 심리적인 여유가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 50년 후 가장 소중한 가치로 '건강'과 '여유'가 중요하게 인식된 것은 복지제도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우리 사회의 문제점을 보여준다. 그래서 '건강'과 '여유'의 가치가 중요한 것으로



떠오른 것이다.

- 50년 후의 나에게 전문지식이 가장 필요하다는 응답이 많은 것은 그만큼 '먹고살기 힘든' 사회이기 때문이 아닐까 한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큰 영향을 준 것 같다.
- 돈(경제력)이 최우선이 아니라는 결과가 의미 있어 보인다.
- 인간관계가 중요하다는 응답도 많았다.
- 그러나 어떻게 보면 전문지식과 인간관계 모두 돈(경제력)과 연관돼 있다.

## 2. 한국사회의 현재와 미래

### 남북통일

- 50년은 많은 변화가 있을 수 있는 시간이다. 이데올로기 문제만 해결되면 그 안에 남북 통일이 이뤄질 수 있다.
- 남북통일 가능성에 대한 응답 결과가 반반씩 나온 게 놀랍다. (통일 가능 51%, 불가능 49%)
- 김정은이 사망한 뒤 남북통일이 가능하다.
- 오히려 남측이 더 문제일 수도 있다. 기득권층이 생각을 바꿔야 한다.
- 지난 70년 동안 대립되는 체제에서 살아왔는데, 과연 통일이 되더라도 의사 소통이 가능할 지, 우리가 북한 주민을 수용할 수 있을지 걱정된다.
- 통일이 되더라도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국 영향을 받을 것이다.
- 국가 간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자주 통일은 힘들 듯하다.

### 사회 문제

- 빈부격차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
- 실제로 체감하는 빈부격차와 미디어에서 보도하는 내용이 다른 경우도 있다.
- 빈부격차가 생기는 원인은 저소득 계층을 지원하는 사회복지 시스템 부족과 관련이 있고, 복지는 정치 문제와 연결된다.
- 민주주의의 위기는 사회정의가 바로 서지 못하게 됨을 의미하며, 이는 빈부격차를 더욱 심각하게 만든다.
- 50년 후 한국사회에서는 빈부격차와 고령화가 가장 큰 문제가 될 것이다. 현재의 출산율 저하가 곧 고령화 문제를 가져올 것이다.
- 현재의 결혼 제도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성 간의 결혼과 법적 혼인인데, 앞으로 큰 변화가 있을 것 같다.
- 유럽의 경우, 법적혼과 사실혼 비율이 50:50이다. 우리도 이를 따를 것 같다.
- 동성결혼 인정은 세계적, 시대적 흐름이다.

### 3. 인류의 현재와 미래

#### 인류사회의 문제

- 국가 간 부의 양극화가 가장 큰 문제로 지목된 이유는, 그것이 기후변화와 지역적·종교적 갈등 등 다른 문제를 내포하는 것으로 보았기 때문인 것 같다.
- 기후변화는 그 자체로도 중요하지만, 탄소배출권 등 국가 간의 문제와 연결된다.
- 국가 간 부의 양극화와 기후변화 문제가 언론에 많이 보도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온 것은 아닐까?
- 종교나 인종 갈등으로 인한 분쟁이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
- 전쟁이 한번 일어나면 파생되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몇 배의 노력과 비용이 필요하다.
- 하지만 전쟁과 테러 역시 국가 간 부의 양극화가 원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 한국사회 내의 종교갈등과 인종갈등이 심각하지 않은 결과로 본다.
- 생태계 파괴와 기후변화는 돌이킬 수 없는 인류 최대의 문제다.
- 그런 문제는 피부에 와닿지 않아서 인식이 약하다. 그러나 부의 문제는 직접적으로 느껴진다.
- 부의 양극화 문제는 현재 대학생들에게 가장 밀접하고 심각하게 다가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관심이 컸던 것 같다. 국가 간 부의 양극화에 의해 나타나는 힘과 돈의 불균형이 기후변화 등 다양한 문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한 것 같다. 개인의 삶의 질이 국가의 부와 관련돼 있다고 여겨서 가장 시급한 문제로 꼽은 것 같다.

#### 지속가능성

- 인류가 실현해야 할 핵심가치로 '다원주의'가 많이 지목됐는데, 이는 앞의 설문 항목인 전쟁이나 폭력성과 연관된다.
- 인류 역사에서 갈등과 폭력이 없던 시기는 없었다.
- 갈등은 나쁜 것이 아니다. 오히려 다원주의 실현에 꼭 필요한 요소다. 문제는 폭력이다.
- 인간 내부에 폭력에 대한 욕구가 존재하며, 폭력 없는 사회는 실현 불가능하다고 본다.
- 다원주의, 나눔과 봉사, 생명 존중에 대한 응답률이 높았는데, 이를 뒤집어 생각하면 현실 세계에서 그 가치들이 잘 구현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 세 가지 핵심가치는 모두 빈부격차 문제와 연결되는 것 아닐까?
- 자본주의의 변화를 통해 다원주의 실현이 가능하고, 그것이 빈부격차 문제 해결로도 이어질 것이다. 북유럽 방식의 복지국가가 핵심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국가 형태라고 생각한다.
- 다원주의, 나눔과 봉사, 생명 존중. 이 세 항목을 아우르는 키워드는 공동체 의식이다.

## 4. 대학의 현재와 미래

### 고등교육의 현실

- 영어과에 다니면서도 인문학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이번에 후마니타스 교양 과목을 공부하며 생각이 크게 바뀌었다. 처음으로 내가 원했던 공부를 한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 경제학 전공인데, 대학에 들어와서 성공이란 무엇인지에 대한 답을 찾고 싶었다. 성공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어야 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것이 인문학적 교양임을 알게 됐다. 인문학 공부를 통해 경제학에 대한 이해가 더 깊어진 것 같다.
- 공학 전공이 많은 국제캠퍼스에는 인문학이 필요 없다고 말하는 학생들이 많다. 하지만 후마니타스 교양 과정을 이수한 뒤 생각이 달라지는 경우도 많다.
- 개인의 그런 경험들과 관계없이, 대학교육을 받는 이유를 묻는 설문조사에서 취업역량 제고, 경제적 가치 창출, 전공지식 전수 등 세 항목의 응답률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국내 대학의 핵심가치는 결국 '취업'이다.
- 솔직히, 성격적으로 인문학적 취향이지만 취업이 잘 되는 현실을 고려해 공대에 들어왔다.
- 일시적으로 실리를 추구하는 대학이 좋게 보일지 모르나, 궁극적으로는 가치를 추구하는 대학이 살아남을 것이다.

### 미래대학의 핵심가치

- 취업역량 제고 등 현실적인 가치를 중시하면서도 미래대학은 인간다움을 추구해야 한다는 모순된 결과가 나왔다.
- 머릿속으로는 진리탐구나 인간의 가치 탐색과 같은 대학의 본질적 가치에 대한 인식을 갖고 있으나 현실적 요구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 후마니타스칼리지의 영향도 있는 것 같다.
- 더 나은 사회를 위해서는 인간다움도 필요하지만 경제적 능력을 쌓기 위한 전공지식 전수 역시 필요하다.
- 더 나은 삶, 더 나은 세계가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 단순히 경제적으로 발전한 사회인지 아니면 민주적인 가치가 확립된 사회인지, 그에 대한 합의가 이뤄져야 미래대학이 추구해야 할 핵심가치가 도출될 것이다.
- 미래대학은 인문학적 소양을 기르는 교양교육을 통해 인간다움을 실천하고 진리를 탐구하며 다양성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인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 미래 상상은 현실 변화의 모색

노벨평화상 수상자이자 그라민 은행 창립자인 무함마드 유누스(Muhammad Yunus)는 “공상과 학소설(Science Fiction)이 결국 과학을 움직였다. 먼저 상상해야 변화가 일어난다. 사회를 변화시키려면 소설 픽션(Social Fiction)을 써야 한다”고 말했다. 심층조사 기법의 하나로써, 소설 픽션은 이상적인 미래에 대한 집단적 상상을 통해 현실 문제에 대한 대안과 해결책을 모색하는 방법이다. ‘미래리포트’와 ‘미래 핵심가치’ 연구팀은 소설 픽션 개념을 채택한 ‘공상다방(共想茶房)’을 기획하고 경희의 여러 구성원이 한데 모여 미래를 상상해보는 자리를 마련했다. 대학의 미래, 인류의 미래를 위해서는 세계시민 의식과 공동체 의식 함양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 Q1 개인주의를 넘어, 어떻게 연대(정치적 결사, 생활공동체 등등)가 가능할 것인가?

- 진정한 연대는 진정한 의미의 개인주의가 정착될 때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나는 존엄성을 가진 존재이며 인간으로서 그에 합당한 대우와 권리를 누릴 수 있고 더불어 의무와 책임도 져야 한다는 생각이 정착할 때 모두가 동등한 인간으로서 견고한 연대가 세워질 것이라 믿는다.
- 개인주의와 이기주의는 다르다. 개인주의는 나쁜 것이 아니다. 다만, 개인주의가 심해져서 이기주의로 흘러가는 것을 경계해야 하는 것이다. 사람들이 연대를 하는 것도 결국은 개인주의의 결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 공동체가 성립되고 유지되기 위해서는 각 개인이 원하는 것들이 그 공동체의 행위에 의미 있는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여기서 개인들의 바람이란 공동체의 와해나 구성원의 삶을 악의적으로 위협하는 것을 배제한다는 전제 조건이 있다. 여기서 누가 그 판단을 내리는가가 문제다. 그러므로 공동체 성립 단계에서 공통된 가치 판단의 기준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 연대와 단결, 공동체 결사를 통해 정치적 목소리를 내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작동 원리이다. 따라서 연대와 단결이 꼭 개인주의의 틀을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우리가 연대를 하기 위해서는 자본주의의 폐해를 극복해야 한다.
- 지역공동체 같은 작은 공동체부터 시작해 공동체의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작은 연대로부터 연대 의식을 키우고 확산하는 것이 중요하다. 공동체에 대한 의식을 바꾸고 개인주의적 사고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작은 것에서 큰 것으로, 아래에서부터 위로의 변화가 필요하다.
- 교육이 선행돼야 한다. 현대 사회는 지나치게 사람을 몰아세우고 지치게 만들기 때문에 개인이 스스로 타인과의 연대가 필요함을 깨닫고 의식적으로 노력하지 않는다면 생활에 매몰돼버리기 쉽다. 따라서 이를 막기 위한 교육이 선행돼야 한다.
- 자유주의의 진정한 의미를 가르치고 시민적 덕성을 함양하는 시민교육이 필요하다.

- 안 될 것 같다. 그냥 안 되는 거 같다. 망한 거 같다.
- 개인이 연대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효용이 개인적 활동보다 클 때 참여가 가능할 것이다. 생활공동체의 예를 들면, 일주일에 한 번의 노력으로 일주일 동안의 식사를 해결할 수 있는 '공동 식탁'은 개인이 혼자서 식탁을 차리는 것의 수고스러움을 덜기 위한 편의와 효용으로부터 출발했다.
- 개인주의가 만연한 시대라고 하지만 사람이 항상 개인주의 논리에 따라 산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공동체라 불릴 만한 단체나 생활은 언제나 존재해왔다.
- 공동체는 거창한 취지나 큰 규모로 시작되거나 만들어질 수 없다고 생각한다. 서로 뜻이 맞는다든지 같은 마을에 산다는 등의 유대 관계에 의한 소규모 집단의 결합에서 연대 가능성을 찾는다면, 개인주의를 넘어서는 공동체주의가 차츰 확산되고 더 큰 공동체로의 이행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본다.

## Q2 유토피아가 가능하다면 (또는 실현된다면) 그 사회가 반드시 지니게 될 필수적인 특징은 무엇인가?

- 물질적 풍요는 물론이고 정신적 가치도 풍요로운 세상이었으면 좋겠다. 내가 현실 속에서 가장 크게 느끼는 문제는 빈곤이기 때문이다. 그것이 절대적 빈곤이건 상대적 빈곤이건, 혹은 물질적 가치의 지나친 추구로 인한 정신적 가치의 빈곤이건.
- 유토피아란 최대한 많은 사람이 최대한 행복하고 만족하는 세상일 것이다. 그렇다면 먼저 그 구성원들의 '행복'이 어떻게 극대화될 수 있으며, 그것이 집합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발현될 수 있는지 알아야 한다. 인간은 물질적 풍요와 정신적 풍요가 조화될 때 행복을 느낀다.
- 선한 마음,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하는 사회 분위기. 이것은 결국 사람 간의 신뢰에서 비롯되므로 신뢰가 사회적 자본으로 충분히 쌓여 있는 모습이 유토피아의 풍경일 것 같다.
- 유토피아는 도덕을 기반으로 한 사회이며 가난이 없어야 한다. 더 가진 자와 덜 가진 자는 있을지언정 모두가 일정 수준 이상의 삶을 누릴 수 있는 여건이 확보돼야 한다.
- 서로에게 시기와 질투를 느끼지 않는 사회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이 부족하지 않게 재화와 자원을 갖고 있어야 한다. '부'가 특정 직업에 집중되지 않고 모두에게 돌아가야 한다.
-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동등한 기회를 얻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공산주의 사회처럼 모든 재화와 물건을 공유하는 '결과의 평등'이 아니라, 그것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누구에게나 동등하게 주어져야 한다.
- 유토피아는 세계적이어야 한다. 국가나 민족에 대한 편견이 없어야 한다. 자국을 사랑하는 만큼 외국을 사랑해야 세상의 분쟁이 줄어든다.
- 부족함이 죄로 여겨지지 않는 것. '나'의 의미를 넓혀 모자람을 보듬어주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생산성이 부족해서 쓸모없다고 치부되는 일들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발전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 인본주의가 첫째여야 할 것 같다. 유토피아도 결국 사람들이 사는 세계다. 따라서 다른 무엇보다 인간을 중요시해야 할 것이다. 그 다음은 규율이다. 꼭 지켜지는 규율, 누구도 피해나갈 수 없는 규율이 필요하다.

---

• 유토피아가 현실과 결합하기 위한 제1 조건은 현실성, 그 다음이 이상성이라고 본다. 유토피아는 현실과 결합하면서 사라지지만, 강력한 현실 기반 위에서 이뤄지지 않는 유토피아는 유토피아 그 자체에서 끝나고 만다.

• 부의 분배가 최우선이다. 사유재산제를 폐지하지 않더라도 국가가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사회적 자본만으로도 국민의 삶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 다음으로 엘리트주의적 공직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국민 누구든 무작위로 선발하고 매 회기마다 교체하면 된다. 권력을 탐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 특정한 집단의 유토피아가 아니라 전 세계가 이상적인 사회가 되어야 지속적이고 진정한 유토피아 사회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 이상적인 유토피아라면 인간의 행복을 보장해야 할 것이다. 행복을 느끼는 것이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 경제적 윤택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합법적인 규율과 준칙 외에는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

### **Q3** 대학이 더 나은 개인의 삶과 더 나은 인류사회를 이룩하는 데 기여하지 못한다면, 대학의 어떤 측면이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하는가?

---

• 대학이 기업에 노동력을 제공하는 기계적인 역할을 하는 기관으로 변질되는 것이 위험하다고 생각한다. 대학은 이윤을 내는 곳이 아니라 학문을 배우는 곳인데, 졸업 후의 취업에만 집중하면 그 설립 목적이 흐려질 것 같다. 이윤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인류나 사회를 고민하는 사람이 없어질 것 같다.

• 취업률을 우선시하는 것, 성적을 어떻게든 나누려 하는 것이 위험 요소다. 경쟁을 장려하는 것은 나쁘지 않으나, 목적성이 없는 보급형 인간만을 만드는 것 같다. 고등학교의 목표가 대학 보내기, 대학의 목표가 취업시키기가 된다면 인간의 삶에 그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겠는가.

• 고등학교 다닐 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산다는 느낌을 받은 적이 없는데 대학교에 와서도 이런 감정을 느끼는 대학생이 많은 것이 문제라고 생각한다. 대학은 많은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스스로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자립심을 길러줘야 한다. 그러나 학점과 관계된 전공과 스펙 위주의 분위기 때문에 대학생의 삶이 피폐해지고 있다. 학점이라는 평가 수단이 목적이 되는 상황이 계속돼서는 곤란하다.

• 대학은 배움의 장이라기보다는 취업을 위한 하나의 스펙이 되었다. 대학 입학 때부터 많은 학생들이 남보다 더 좋은 학점을 따기에만 연연하는 것 같다. 대학교육이 진정한 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원한다면 학생들을 평가하고 점수를 매기기보다는 충분히 사고할 시간, 토론할 시간, 고민할 시간을 줘야 한다.

---

## Q4 대학이 더 나은 삶과 더 나은 인류 사회를 이룩하는 데 기여하기 위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개혁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

---

- 취업 위주의 교육이다. 개인의 자기 계발과 질적으로 행복한 삶을 위해, 취업 위주의 경직된 교육을 지양하고 다양한 교육을 실현해 대학의 본질을 구현해야 한다.
- 비단 대학만의 문제라기보다, 입시제도 자체의 문제도 있지만 현재의 대학교육은 상당히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한다. 어떤 학문을 배울 때 그 학문의 이론이 기초가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높은 수준의 '이론'이 필요한 인원은 그리 많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실무적인 요소가 더 많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 학생 개개인의 다양성이 인정되는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 또 일률적으로 취업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창의성과 사고력을 향상시키는 교육 방식을 모색해야 한다.
- 대학은 지식의 확장을 위한 공간이지 순위 매기는 장소가 아니다. 상대평가를 없애고 절대평가를 함으로써 절대적인 지식 탐구에 힘써야 한다.
- 학생 개개인의 삶에 대한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 학생들이 학교로부터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세심하게 파악하고, 학생들의 사회 진출이 더 원활해지도록 하는 징검다리 역할을 해야 한다.
- 형식적인 수업을 줄이고 실제 살아가는 데 필요한 덕목 같은 것을 가르쳐주는 수업이 더 많았으면 한다.
- 학생들이 마음놓고 공부할 수 있도록 복지나 시설 개선에 신경을 써야 한다. 교양 과목에서 전 인류적인 수업을 많이 진행하고, 실습과 현장학습도 겸해야 효율적일 것이다.
- 세계시민 의식과 공동체 의식 함양,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의사소통 기술 교육이 필요하다.
- 요즘 대학들은 취업률 위주로 모든 과를 결정한다. 그로 인해 여러 가지 전공들이 존중받지 못하고 학과 통폐합으로 가는 경우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 더 나은 개인의 삶과 더 나은 인류사회를 이룩하길 원한다면 다양한 전공을 중시해야 한다. 취업률을 따지기보다는 더 전문적인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 인간이 진정으로 추구해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 학생 스스로 생각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한다.

## 2029년의 ‘나’와 ‘우리’ 상상하기

‘미래리포트’ 연구팀은 15년 후인 2029년의 나, 그리고 그때의 나와 관계된 우리의 모습을 상상해보는 방식으로 다이어그램(diagram) 연구를 진행했다. 미래의 나의 직업, 그 일과 전공 간의 연관성, 대학 공부에서 미흡했던 점, 미래 사회에서 나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목표와 가치관 등에 대한 구체적인 문항을 제시한 뒤, 간단 명료한 문장으로 작성하게 했다. 이를 통해 더 나은 나, 더 나은 세계, 그리고 미래대학의 가치에 관한 생각을 엿볼 수 있었다. 성별, 연령별, 전공별로 다양한 다이어그램이 작성된 점이 흥미롭다.

### 15년 후 미래를 상상하는 다이어그램 (요약 발췌)

#### 주거환경학과 1학년 학생

**2029년의 나:** 나는 의상과 인테리어를 융합한 디자이너다. 내 가치관을 실현하고 있는 사람이다. 집 짓기와 무료 옷 나눔 활동을 하고 있다. 나는 경희대에서 주거환경학을 전공했다. 주거환경과 의상디자인 수업을 받아 두 영역을 융합하는 사람이 되었다. 나는 경희에서 학점에 얽매이지 않았다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왜냐하면 내 미래에 대해 고민을 해볼 시간과 여유가 없었기 때문이다.

**2029년의 우리:** 우리는 현재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기본 생활에 필요한 옷조차 없는 사람들을 지원하는 단체를 운영한다. 우리는 개인의 이익과 소득도 중요하지만, 자신이 이룬 것을 베푸는 일이 소중하다는 점도 알고 있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지금 핵이 없고 생명을 존중하고 통일된 사회 속에 살고 있다.

#### 언론정보학과 1학년 학생

**2029년의 나:** 나는 유명 강사다. 사람들과 소통하는 사람이다. 나는 경희대에서 언론정보학을 전공했다. <인간의 가치 탐색>, <우리가 사는 세계> 수업을 통해 세상과 인간을 바라보는 시각이 깊어졌다. 나는 경희에서 수학과 인문학을 엮은 융합교육을 했다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왜냐하면 복잡해지는 세계에서는 수학과 통계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2029년의 우리:** 우리는 현재 자본주의 체제의 문제가 극에 달한 세계에 살면서, 사회 구성원의 공감과 동의 아래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우리는 세계와 인간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다. 더 나은 세계와 문명을 위해 고민하는 사람들이다. 더 나은 문명을 만들고 싶기 때문이다. 우리는 빈부격차가 완화되기를 바라는 사회에 살고 있다.



### 간호학과 1학년 학생

**2029년의 나:** 나는 간호사다. 소아과에서 아픈 아이들이 빨리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하고 있다. 나는 경희대에서 간호학을 전공했다. 대학을 다니면서 심리학을 배웠다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왜냐하면 소아과에서 일하려면 아이들을 이해하는 마음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2029년의 우리:** 우리는 현재 집안 사정이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 무료 검진을 해주고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하고 있다. 우리는 경희대학교 간호학과에서 함께 공부한 친구, 고등학교 때부터 친하게 지내온 다른 대학 간호학과 출신의 친구들이다. 우리는 아이들이 돈이 없어서 치료를 못 받는 상황을 만들고 싶지 않다. 아이들이 상처받으며 자라기를 원하지 않는다. 우리는 지금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세상에 살고 있다.

### 생물학과 2학년 학생

**2029년의 나:** 나는 약사다. 나는 지역사회의 의료보전에 봉사하는 사람이다. 약국을 운영하며 글 쓰는 일을 하고 있다. 나는 경희대에서 생물학을 전공했다. 사회봉사 교과를 수료하다가 봉사의 가치를 배운 후 진로를 바꿨다. 나는 이과생들에 대한 인문학 강좌의 접근 장벽이 좀 더 낮았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왜냐하면 인문학적 소양을 쌓고 싶은 마음은 컸지만 수업이 너무 어려워 뭔가를 배우기는커녕 따라가기조차 벅찼기 때문이다.

**2029년의 우리:** 우리는 현재 빈곤국 사람들의 기본권과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해주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우리는 주기적으로 해외봉사를 하다가 만난 내 남편, 그 나라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은 지식인, 빈곤 문제를 유전공학적 관점에서 해결하기 위해 봉사하는 선배 생물학자들이다. 인류에 대한 박애정신과 책임감을 갖고 모든 사람이 인간의 기본권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우리는 지금 인류 전체가 공동체 의식을 갖고 서로 도우며 어우러져 사는 평화로운 세계에 살고 있다.

### 물리학과 2학년 학생

**2029년의 나:** 나는 이론물리학자다. 카이스트 교수로 재직하면서 여러 연구소 일을 병행한다. 입자물리와 초끈이론을 연구한다. 나는 경희대에서 물리학을 전공했다. 경희에서 다양한 콜로키움 경험을 쌓았다. 대학에서 철학과 수업을 듣고 형이상학적 생각을 했다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왜냐하면 철학은 물리학의 다른 모습이기 때문이다.

**2029년의 우리:** 우리는 현재 아시아 공동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를 찾는 데 주력하고 있다. 우리는 아시아 국가 주축으로 순수하게 과학을 탐구하는 사람들이다. 우주의 원리를 이해하고 아시아의 과학력을 높이고자 한다. 우리는 국경을 넘어 과학으로 순수하게 뭉칠 수 있는 사회에 살고 있다.

## 의상학과 2학년 학생

**2029년의 나:** 나는 엄마다. 나는 따뜻한 사람이다. 나는 육아를 하고 있다. 나는 경희대에서 의상학을 전공했다. 다양한 전공과 관련된 교육을 받아 폭 넓은 지식이 있는 사람이 되었다. 다만 체육 관련 공부를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왜냐하면 그 방면에 흥미가 없기 때문이다.

**2029년의 우리:** 치열한 경쟁 속에서, 우리는 빈부 격차, 정보 격차, 건강 격차를 목인하며 살고 있다. 우리는 자신의 삶을 살기에도 급급한 사람들이다. 우리는 우리 가족이 행복하길 바라기 때문이다. 우리는 지금 자신에게 집중하는 사회에 살고 있다.

## 무역학과 2학년 학생

**2029년의 나:** 나는 국제구호 활동가다. 빈곤과 기아로 고통받는 아프리카 아동들을 돕고 있다. 아프리카에 살면서 그들이 홀로 일어설 수 있도록 공정무역을 전파하고 있다. 나는 경희대에서 무역학을 전공했다. 시민교육 수업을 통해 '실천'의 영향력을 알게 된 후 지금의 내가 되었다. 나는 학점에 매달리지 않고 다방면의 수업을 들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왜냐하면 학점에 연연해 관심 있는 분야의 수업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다.

**2029년의 우리:** 우리는 현재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공정무역의 중요성과 그 방법을 교육하고 있다. 우리는 오래 전부터 국제구호 활동가를 희망해온 언니, UNAI Aspire에서 함께 활동한 부원들, 외무영사직으로 일하면서 나와 같은 꿈을 가졌던 나의 거들짝들이다. 우리는 세계 빈곤 퇴치에 우리의 작은 노력이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우리는 지금 빈곤문제가 아주 소수의 나라, 소수의 인구에 국한된 세계에 살고 있다.

## 국어국문학과 3학년 학생

**2029년의 나:** 나는 과학 전문 채널 PD다. 독일 베를린에 살면서 해외 여러 곳을 다니고 있다. 지금은 심해 환경 관련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는 중이다. 경희대에서 국문학과 생물학을 복수 전공하고 교환학생으로 핀란드를 다녀온 후 언어와 과학에 큰 관심을 갖게 됐다. 나는 인간 심리에 관한 공부를 좀 더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왜냐하면 언어와 자연과학 사이의 틈을 연결하려면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2029년의 우리:** 우리는 현재 사라져가는 수많은 생물 종을 보존하고 복원하는 일을 하고 있다. 우리는 핀란드에서 만난 친구, 해외의 다큐멘터리 제작진, 경희대 생물학과에서 함께 공부한 동료들이다. 우리는 인간이 개입해서 망가져가는 자연을 보존하는 동시에, 자연에서 배우며 생태계의 일원으로 함께 살아가기를 원한다. 우리는 지금 다양성과 개성을 인정해주며, 차별을 없애가고,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세상에 살고 있다.

### 기악과 3학년 학생

**2029년의 나:** 나는 피아니스트다. 학생들을 가르치며 연주 활동도 한다. 나는 경희대에서 피아노를 전공했으며 교수법도 배웠다. 대학을 다니면서 예술을 중심으로 한 중핵교과를 공부했다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왜냐하면 중핵교과는 인문학에 집중돼 있기 때문이다.

**2029년의 우리:** 우리는 현재 전국 각지의 문화적으로 소외된 지역을 찾아다니며 연주 활동을 하고 있다. 우리는 같은 과 후배인 아내, 나를 가르치신 선생님, 그리고 동기들이다. 우리는 예술의 가치가 점점 잊혀지는 사회의 삭막함을 깨고 삶에 여유를 주고 싶다. 우리는 조금씩 문화예술에 지원을 아끼지 않는 문화적인 나라에 살고 있다.

### 언론정보학과 3학년 학생

**2029년 나:** 나는 방송국의 편성국에서 일하고 있다. 커리어우먼이자 엄마인 사람이다. 나는 경희대에서 언론정보학을 전공했다. 경희대에서 인문학 교육의 영향을 받아 내 아이에게 책을 많이 읽힌다. 나는 이공계열 과목을 공부했다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2029년의 우리:** 우리는 현재 부당한 공권력에 맞서 소외계층과 약자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일을 하고 있다. 우리는 정의에 대해 고민하는 사람들이다. 억울하게 희생당하는 사람이 없는 세상을 만들고 싶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전히 강자가 약자를 억누르는 사회에 살고 있다.

### 스페인어학과 4학년 학생

**2029년의 나:** 나는 농부다. 나는 성실하고 근면한 사람이다. 나는 스페인의 발렌시아에 살면서 농사를 짓고 작물을 재배하고 있다. 나는 경희대에서 스페인어학을 전공했다. 지금의 나는 경희에서 스페인어와 인문학적 소양, 고품질의 교육을 받은 결과다. 경희가 소수 정예의 심도 있는 강의를 해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대형 강의가 많았다.

**2029년의 우리:** 우리는 현재 발렌시아의 작은 마을에 오두막을 짓고 농사를 지으며 자급자족하고 있다. 우리는 남미·스페인과 관련된 직장 동료로 만나 결혼을 한 부부다. 인간성이 피폐해져가는 극한 경쟁의 물질주의 사회에서 벗어나, 미약한 힘으로나마 자연 중심의 인본주의적, 평화적, 박애적인 사회를 만들어내고 싶다. 우리는 지금 인간 문명의 손이 거의 닿지 않는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자급자족하며 평화롭게 살고 있다.

# 경희인이 내다본 한국, 세계, 경희

‘미래리포트’ 연구팀은 설문조사 참가자에게 2015년부터 2029년까지 어떤 일이 일어날지 상상해보라는 과제를 주고 그 결과를 취합해 ‘미래 연표’를 작성했다. ‘미래 연표’ 작성은 응답자들이 자신의 역사적 시야를 확장하고 현실 개선의 의지를 담아 미래에 대한 전망을 세워보는 기회였다. 한국의 미래와 관련, 북한핵, 남북통일 가능성, 일본과의 외교 관계에 대한 언급이 많았다. 세계의 미래와 관련해서는 미국과 중국의 갈등, 지역 분쟁, 경제 위기, 지구온난화 등 어두운 전망이 많았다. 경희의 미래에 관해서는 대학의 질적 변화와 국제적 위상 제고에 관한 의견이 많았다.

## 2015~2029년 미래 연표 (요약 발췌)

	한국의 미래	세계의 미래	경희의 미래
<b>2015</b>	일본과의 외교적 대립 대통령 관련 비리 조사 빈부격차 등 사회문제 심화	중국의 영향력 증가 국제적 경기 침체 지구온난화의 위험 실감	개교100주년위원회 구성 대형 강의 및 학점제 논의 교양교육 강화
<b>2016</b>	복지 증세 고위 공무원 연금 개혁 학생인권조례 강화 웨어러블 기기 대중화	미국·중국 긴장감 고조 국제적 금융 위기 재발 에이즈 치료약 발명	후마니타스 교육 방식 개혁 외부 기관의 대학평가 거부 Space 21 적극 추진
<b>2017</b>	역사적식 확고한 대통령 선출 교육평가 및 입시제도 변화 한류 아이돌 문화 약화	이스라엘·팔레스타인 평화회담 IS와 미국의 대립 지구 차원의 환경운동	융합교육 강화 입시제도 변화 학점 교류 확대
<b>2018</b>	북한체제 붕괴 일본의 위안부 문제 사과 표준 시급 7000원으로 인상	세계평화 유지 방안 논의 드론 배달업 활성화 애플·삼성·구글 합병 바이오헬스 개발	후마니타스칼리지 강화 Space 21 완공 세계대학순위 상승
<b>2019</b>	북한과 대립, 긴장감 고조 경제난에 대한 해결책 마련 수능 철폐	미국·중국 간의 전쟁 위기 개인정보 유출 방지 세계법 제정 가정용 로봇 상용화 전 세계 환경 협약	개교 70주년 서울·국제 캠퍼스 교류 독자적인 위성 발사
<b>2020</b>	남북통일 계획 논의 4대강 복원 사업 독도 소유권 문제 해결 다문화 가정 비율 증가	한국·미국·중국 통일회담 일본, 정규군 편성 참치 멸종 위기	새로운 대학교육 제시 미래학과 개설 대학평가 순위 상승

	한국의 미래	세계의 미래	경희의 미래
2021	북한 핵 전면 포기 복지제도 확대 GDP 3만 달러 달성 한국인 최초 달 착륙 성공	중국·일본 영토 분쟁 격화 중국 내 소수민족 평화회의 북극곰 멸종	교양교육 혁신 과학·인문학 통합 교육 해외(중국) 분교 설립
2022	남북통일 인구 감소 문제 본격 논의 월드컵 우승	유럽, 통일정부 수립 중국 경제력(GDP) 미국 추월 사상 최대의 자연재해 발생	학점제 폐지 입시제도 혁신 주도 해외 분교 설립 확대
2023	군비 축소 대학 평준화	인도의 급성장 NASA, 화성의 지구화 계획 발표 3D 프린터 개인화	후마니타스 교육의 위기 취업을 저조 인문학 우수 대학 선정
2024	북한개발위원회 발족 새로운 대기업 등장 원자력발전소 철폐	대륙 단위의 통합정부 수립 핵무기 폐기 민간인 우주여행 시작 자기부양 자동차 개발	전 대학의 사이버화 사회적 약자 우대 정책 실시 국내 대학 3위 도약
2025	군 징집제 폐지 백두산을 한국 영토로 인정 물 부족 사태 발생	세계대전 막기 위한 조약 체결 세계 각국, 약탈 문화재 반환 오일쇼크 컴퓨터칩 인체 삽입에 성공	지구촌미래건설학과 개설 세계 대학평가 80위권 북한에 평양캠퍼스 건설
2026	주한 미군 축소 복지국가로 전환 목초지 부족 문제 심화	세계정부 창설 논의 화성에 기지 건설 몰디브, 해수면 아래로 침몰	노벨상 수상자 배출 세계평화연구원 설립
2027	통일대통령 선출 범죄 증가, 비자·영주권 강화 한국 최초 노벨 생리의학상	미국과 중국, 세계평화 주장 세계난민기금 창설 심장 만드는 줄기세포 배양 성공	-
2028	남북한을 잇는 철로 개통 북한 주민에게 민주주의 수업 제2의 김연아 탄생	세계평화를 위한 지구촌 협약 물 부족 문제 해결 암흑물질의 실체 발견	-
2029	저출산 및 고령화 문제 심각 삶에 대한 만족도 10위권 진입 중소기업 활성화(일본 수준)	세계정부 설립 한반도 통일 전쟁 없는 세계	후마니타스 교육 재혁신 인터넷 강의 50% 이상 세계적 명문대학으로 도약

## 긍정 탐구에서 의미 네트워크 분석까지

‘미래 핵심가치’ 연구팀은 5가지 연구 방법으로 과제를 수행했다. (1) 설문조사 (2) 긍정 탐구 (3) 포커스 그룹 인터뷰 (4) 소설 픽션 (5) 의미 네트워크 분석 등이다. 이 중 긍정 탐구와 의미 네트워크 분석은 ‘미래리포트’ 연구에서 사용되지 않은 기법이다. 연구팀은 얻어진 결과에서 보다 심층적인 의미를 밝혀내기 위해 담론 분석을 시도했다. 담론 분석의 목적은 수치화된 설문조사 결과를 구체적인 체험의 언어로 번역하고 그 안에 내포된 함의를 짚어내는 데 있다. 예를 들어, 긍정 탐구를 통해 학문, 공존, 주제·자율, 성찰·실천, 자유 등 미래대학의 5가지 핵심가치가 제시됐다.

### 긍정 탐구(Appreciative Inqui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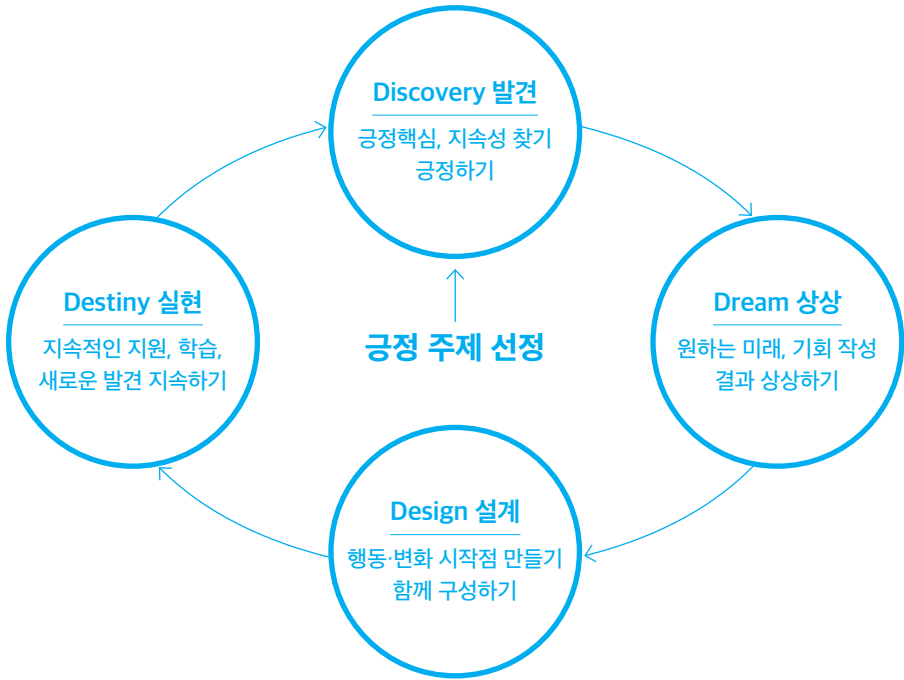
긍정 탐구는 ‘조직은 풀어나야 할 문제가 아니라 인간이 만들어낸 긍정적 체계’라는 관점에서 출발한다. 조직 자체가 문제에 대한 해법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 같은 긍정성은 부정적으로 편향된 시각에 균형을 잡아주고 이해의 범위를 넓혀준다. 긍정 패러다임은 인간이나 집단에 대한 이해를 확장할 가능성을 제공한다. 결론적으로, 긍정 탐구는 불안보다는 열정을 불러일으키고 한계보다는 가능성에 집중하면서 대화를 진행해나가고, 현실에 대해 새롭게 말하는 방법을 배우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궁극적으로 새로운 현실을 창조해나가기려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

긍정 탐구에는 여러 가지 원리들이 결합되어 있다. 가장 기본적인 원리는 다음의 4가지다. 최근에는 이 원리를 기반으로 세분화된 5가지 원리가 제시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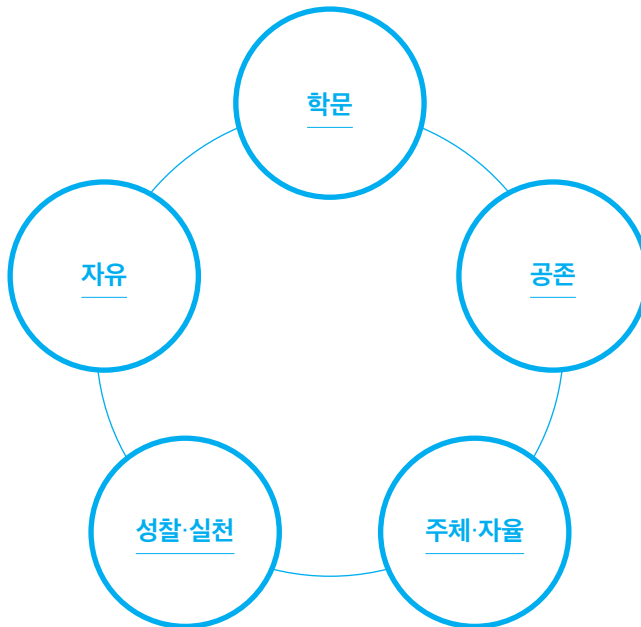
- **긍정적일 것(appreciative):** 가치와 가능성, 좋은 점 등을 찾아내고자 의도적으로 노력한다.
- **실용적일 것(applicable):** 추상적인 논의들을 실제 경험 및 관계와 결부시키고 여기서 창출된 언어가 실제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 **도전적일 것(provocative):** 기존의 현실을 수용하되 순응적이지 않고, 새로운 질문과 아이디어를 만들어내고, 시각의 전환을 꾀한다.
- **협동적일 것(collaborative):** 긍정 탐구의 모든 과정은 참여와 대화를 통해 이뤄진다. 일방적인 긍정성이나 새로운 아이디어는 소용이 없으며, 협동 과정에서 얻어진 결과만이 반영되고 인식된다.

긍정 탐구 실행에 특별한 절차나 형식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기본 원리와 순서를 따르되 상황에 맞게 변용할 수 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4-D 모델이다. 4-D 모델은 크게 발견(Discovery), 상상(Dream), 설계(Design), 실현(Destiny), 네 단계로 구성된다.(그림 1 참조) 연구팀은 4-D 모델을 기본으로 하되 구체적인 현실 조건과 맥락을 감안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했다.

긍정 탐구의 4D 모델 그림 1



긍정 탐구에서 제시된 미래대학 핵심가치 그림 2



- **발견 단계:** 먼저 일대일 인터뷰를 통해 '대학이 나의 삶을 풍요롭게 했던 경험'을 나누도록 했다. 그 뒤 인터뷰 내용을 소그룹에 소개하고 이를 종합해 모두가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 **상상 단계:** 발견 단계에서 도출된 대학의 핵심가치별로 그룹을 나누고, 핵심가치와 관련된 소그룹 토론을 가졌다. 참가자 모두가 세 차례씩 테이블을 이동해 가장 관심 있는 3개의 핵심가치에 관해 논의할 수 있게 했다. 토론 내용을 종합해 공유했다.
- **설계 단계:** 앞의 두 단계에서 나왔던 내용을 정리하고 자신의 감상을 적도록 했다. 또한 나, 주위, 학교로 구분해 변화에 대한 의견도 수렴했다. 이 단계는 시간 제약으로 인해 온라인으로 진행했다.
- **실현 단계:** 연구 범위에서 벗어나는 단계라는 판단에서 생략했다.

그림 2는 긍정 탐구에서 경희대 학생들이 제시한 대학의 핵심가치다. (1) 학문 (2) 공존 (3) 주체와 자율 (4) 성찰과 실천 (5) 자유는 경희가 21세기 대학다운 미래대학으로 도약하기 위한 정책 수립에 반영되어야 할 가치들이다.

## 의미 네트워크 분석(Semantic Network Analysis)

담론 분석은 커뮤니케이션 메시지의 의미 혹은 핵심 아이디어를 조사하는 연구 방법이다. 지금까지는 주로 연구자가 직접 텍스트를 읽고 분류해서 분석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는데, 연구자의 주관성이 많이 개입한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돼왔다. 컴퓨터 프로그램을 활용한 의미 네트워크 분석은 그런 문제점을 극복하고 연구의 신뢰도와 타당성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연구 방법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 연구에서 사용한 KrKwic(Korean Keywords in Context: 한국어 키워드 분석 프로그램)은 핵심어의 출현 빈도를 기초로 대규모의 텍스트를 의미 있는 개념적 그룹으로 분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의미 네트워크 분석은 양적 통계 분석과 질적 담론 분석의 장점을 취해 대량의 텍스트 분석과 시각화를 가능케 해주는 연구 방법이다. 다시 말해, 양적으로 표현된 설문 결과와 질적 분석인 담론 분석을 연결하는 징검다리 역할을 할 뿐 아니라, 양적 분석이 지닌 깊이의 한계를 뛰어넘는 동시에 질적 분석이 지닌 해석의 주관성을 극복할 수 있게 해준다.

예를 들어, 그림 3은 긍정 탐구, 포커스 그룹 인터뷰 등에서 '경희대'라는 표현이 등장한 문장을 추출해 의미 네트워크를 분석한 '단어 구름'이다. 경희대라는 말에서 많은 학생들이 인문학·인간·가치·후마니타스 등 이성(로고스) 차원의 단어를 떠올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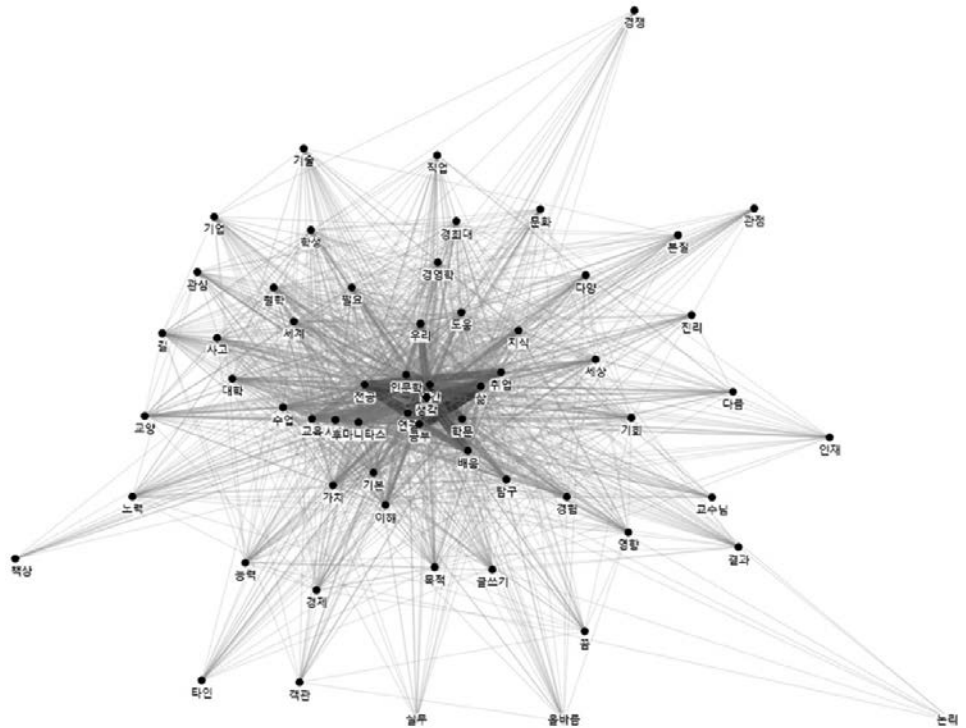
그림 4는 대학의 핵심가치 중 '합리'와 관련된 핵심어들의 언어 네트워크 분석 결과를 시각화한 것이다. 이 그림에서 눈에 띄는 단어들, 즉 지식·객관·전공·학문·생각·인재 등은 대학 능력 이미지의 '전문인 양성', 그리고 인문학·후마니타스·철학·삶·인간 등은 '교양인 양성' 요인에 해당한다.



경희의 능력 이미지에 대한 의미 네트워크 단어 구름 그림 3



미래대학 핵심가치 중 '합리' 관련 언어 네트워크 그림 4



# 2 청년세대의 꿈과 희망

키워드로 보는  
‘미래대학리포트’

1부에서 소개한 ‘미래리포트’와 ‘대학의 미래와 핵심가치’를 통합, 정리한 것이 ‘미래대학리포트’이다. 두 연구 조사에서 나타난 청년세대의 현실 인식과 미래 전망 가운데 공통점과 차이점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해, 대학 발전을 위한 기초 자료, 나아가 대학과 인류의 더 나은 미래를 모색하기 위한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1부에서 살펴보았듯이, 학생들의 현실 인식은 생각보다 정확했다. 50년 뒤 미래를 상상할 때에도 현실 인식이 그대로 투영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학생들의 설문 답변과 FGI, 소셜 픽션 등 심층토론에서는 곳곳에서 이중적 시각, 양가감정이 드러났다. 하지만 그것은 당연해보인다. 인간은 이상과 현실, 과거와 미래, 자아와 타자 사이에서 끊임없이 ‘흔들리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해석이다. 행복과 취업, 경제적 부 창출에 대한 관심이 한 축을 이루고, 정신적 스승, 인간다움, 자아성찰에 대한 갈구가 다른 한 축을 이루고 있었다. 두 축 사이의 간극이 매우 컸다. 이상과 현실, 현재와 미래 사이의 간극이 클수록 학생들은 힘들어진다. 현재는 불안하고 미래는 불투명하기만 하다. 이 간극을 좁혀주는 것이 대학교육이 해결해야 할 1차적 과제다.

# 최고의 가치는 오늘도 행복, 내일도 행복

- 행복에 대한 추구는 현재 불행하다는 반증으로 해석할 수도
- ‘대학의 미래와 핵심가치’ 연구에서 경희대 학생들의  
  감성 지수 높게 나타나 행복 관련 교육 효과 높을 것으로 기대
- 가치관 형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주변 사람들’
- 반면, 학생의 가치관 형성에 학교교육 영향력은 매우 낮아

---

## 행복, 자아성찰 교육 프로그램 서둘러야

20대 초반의 대학생들이 현재 추구하는 가치는 물론 50년 후, 그러니까 70대 초반에 추구할 가치로도 '행복'을 선택했다. 행복을 마다하는 인간, 행복을 무시하는 사회는 없다. 하지만 사랑이나 자유가 행복에 밀려났다는 것은 다양하게 해석해야 할 듯하다. 행복한 사람은 행복을 추구하지 않는다. 대학생들이 현재에도 또 미래에도 행복을 최고의 가치로 추구하겠다는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현재에도 불행하고, 미래에도 불행할 수 있다는 의미일 수 있다.

다만 50년 후에는 2위, 3위 자리에 변화가 생긴다. 건강과 여유, 사랑이 뒤를 잇는다. 행복을 구성하는 요소는 개인마다 다르고, 문화권에 따라 달라진다. 하지만 건강과 여유, 사랑은 모두 행복과 긴밀한 연관성이 있다. 학생 10명 중 4명이 행복을 가장 소중한 가치로 설정하고 있다. 하지만 대학은 학생들의 이 같은 요구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진정한 행복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진정한 행복에 이르는 길은 어디 있는가. 이와 같은 질문에 스스로 답하고, 그 답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이 절실하다.

학생들의 가치관 형성에 학교교육이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도 대학이 크게 반성해야 할 대목이다. 그런데 학교교육보다 훨씬 큰 영향을 미치는 '주변 사람들'은 누구인가. 부모나 형제자매가 아니고 미디어나 책, 종교도 아니다. 친구나 동료, 선후배들이다. 50년 후 가치관 형성에 큰 영향을 끼치는 요인 역시 '인간관계'로 드러났다. 주체적으로 관계 맺는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현재 상황이 그대로 투영된 것으로 이해된다. '돈' 즉 '취업'만 강조하는 가정, 학교, 사회가 깊이 성찰해야 할 대목이다.

하지만 낙관할 수 있는 근거도 있다. '대학의 미래와 핵심가치'(이하 '미래핵심가치') 연구 결과에 따르면, 경희대 학생들의 감성 지수가 이성이나 지성 지수에 비해 높다. 자아를 성찰하고 타자에 대한 공감 능력을 키우면서 관계를 맺는 능력을 길러준다면 학생들이 행복한 삶의 주인공으로 거듭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 남북통일은 가능하다?

## 낙관론과 비관론 팽팽

- 51:49 비율로 상반된 반응
- 통일 가능한 방식은 '남북협상'이 가장 높아
- 통일 한국의 지위는 '미국 영향을 받는다'가 가장 높게 나타나
- 젊은 세대의 통일에 대한 관심 저조한 가운데, 남북 화해 분위기 조성 필요성 지적

---

## “결과가 반반으로 나온 게 놀랍다”

포커스 그룹 인터뷰(FGI)에서 학생들이 더 놀라워했다. 학생들도 통일에 대한 비관론이 우세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51%가 낙관론을 펼친 것이다. 젊을수록 통일 문제를 경제 논리로 접근해 통일에 대한 반감이 높고, 기성세대에 비해 통일에 대한 관심도도 낮은 편이다. 그런데 경희대 학생들의 시각은 남다르게 나타났다.

이데올로기 문제만 해결되면 앞으로 50년 안에 통일이 가능하다는 견해가 나왔는가 하면, 오히려 남측 기득권층이 통일의 걸림돌이라는 의견까지 도출됐다. 대량 설문에서는 ‘전쟁으로 통일이 될 것’이라는 답이 열 명 중 한 명 이상(10.2%)으로 나타나 통일 문제에 대한 세대적, 사회적 합의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통일이 이뤄진 이후 한반도의 지위에 대해서도 학생들은 성숙한 입장을 보였다. 미국이나 국제기구의 영향을 받는다고 보는 것이다. 통일 한국이 자주적 위상을 가질 것으로 전망한 학생은 10명 중 채 둘이 되지 못했다(17%).

‘미래 핵심가치’ 연구에서 경희 교육의 약점은 지성과 수월성, 강점은 감성으로 나타났다. 통일 문제는 감성과 지성, 즉 정의와 책임 능력과 무관하지 않다. 지성과 감성이 조화를 이룰 때 통일에 대한 합리적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북한 주민을 우리와 동등한 인간으로 인정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공유하지 않는다면, 통일 이후 한국사회는 극심한 혼란에 빠질 수 있다. 통일 비용도 냉정한 지성과 정의로움에 기반할 때, 사회적 합의를 이뤄낼 수 있다. 통일과 동북아 주변 정세에 대한 학생들의 시각을 보다 넓은 차원, 즉 지구공동사회의 안목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과 실천 프로그램이 요구된다.

무엇보다 일국 시민성과 세계시민성이 조화를 이루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시급하다. 학생들이 소셜 픽션을 통해 “유토피아는 세계적이어야 한다”고 밝힌 것을 보면 더욱 그렇다. “국가나 민족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 자국을 사랑하는 만큼 외국을 사랑해야 한다”는 성숙한 시각을 가진 학생들이 있다. 세계평화는 남북통일을 외면하고서는 탁상공론에 그칠 수 있다. 대학을 중심으로 남과 북, 동북아지역이 공감과 연대를 이룬다면, 세계시민성은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로 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

# ‘인생 삼모작 시대’ 평생 직업 세 번 이상 바뀐다

- 평생직장은 사라진다.  
미래학자들의 예측과 일치
- 미래학자들, 일자리는 줄어도  
일거리는 줄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
- 평생 자신의 삶을 지탱해나갈 기초교육,  
인문학적 소양 강화 필요



---

## 직업보다 '가치'가 더 오래 간다

한 조사에서 대학생들에게 '자기 인생의 황금기가 몇 살 무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를 물었더니 대부분 20대 후반이라고 답했다 한다. 현재 대학생들의 평균 수명은 90세가 넘을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70년 이상 살아가야 하는데, 자기 생의 절정을 불과 10년 안쪽으로 설정하고 있는 것이다. 자기 삶에 대한 사유의 스케일이 지나치게 협소하다. 취업이 곧 성공이고, 연봉이 곧 삶의 질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학생들의 미래는 불안하고 왜소해질 수밖에 없다.

사회학자 지그문트 바우만은 행복의 상대 개념이 불행이 아니고 '의미 없음'이라고 말한다. 그러니까 의미 있는 삶이 행복한 삶이다. 의미는 어디에 있는가. 의미는 가치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다. 취업이나 창업을 평가절하하지는 이야기가 아니다. 대기업에 입사하거나 공무원이 되더라도, 청년 창업의 주인공이 되더라도 그 일을 통해 어떤 가치를 추구하느냐가 관건이다. 평생 추구해야 할 가치가 있다면, 그리고 그 가치가 자신은 물론 이웃과 사회에 긍정적 기여를 한다면, 어떤 직업을 갖느냐의 문제는 덜 중요해진다.

미래학자들이 예측한 것처럼 정규직 일자리는 계속 줄어들 것이다. 50년 뒤에도 평생직장은 없다. 하지만 일거리는 계속 창출된다. 그리고 평생 일을 해야 한다. 평화로운 인류 사회를 건설하는 데 동참하겠다, 차별없는 사회를 만드는 데 헌신하겠다, 굶어죽는 어린이가 없는 세상을 향해 나아가겠다, 기후변화 속도를 늦추는 일에 참여하겠다... 이와 같은 보편 가치를 삶의 이유로 선택한다면 어떤 직업을 갖든, 몇 개의 직업을 갖든 자신감에 넘칠 것이다. 직업의 종류나 연봉의 많고 적음에 의해 위축되지 않을 것이다.

평생직장이 없고, 미래에도 주당 44시간 노동할 것이라는 학생들의 응답은 미래를 비관적으로 전망한다는 결과로 해석된다. 대학이 사회와 함께 '돈이 전부다'라는 이데올로기를 약화시키지 않는다면 젊은이들의 미래는 계속 작아질 것이다. '미래 핵심가치' 조사 결과가 말해주듯, 감성과 품성, 이성이 균형을 이루는 교육이 절실하다. 대학이 학생으로 하여금 미래사회의 보편가치로 자리잡게 될 상호의존성, 다양성, 복잡성을 인정하는 온전한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 2위는 민주주의의 위기, 생태환경 위기에 대한 우려는 상대적으로 저조
- 빈부격차는 ‘배제된 삶’ ‘추방된 삶’ 양산하는 근본 원인
- 50년 뒤 고령화와 출산율 저하에 대한 우려 심각, 민주주의 교육 시급

빈부격차와  
고령화  
한국사회의  
가장 큰 문제

---

## ‘마지막 비상구’는 자기 - 정치, 풀뿌리 민주주의 강화

빈부격차가 현재 한국사회의 가장 큰 문제로 꼽혔다. 이 같은 인식은 현재 인류문명이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를 ‘부의 양극화’라고 지적한 문항과 깊은 연관성을 갖는다. 부의 차이는 단순히 소유나 소비의 차이를 뜻하지 않는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의 결핍은 교육, 의료, 복지, 문화뿐만 아니라 정치 사회적으로도 차별의 근거로 작용한다. 노숙자, 독거 노인, 1인 가구, 외국인 노동자 등 물질적 부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이들은 사회적으로 배제되거나 추방당하는 존재로 전락한다.

50년 후 한국사회가 직면할 가장 큰 난제로는 고령화가 지목됐다. 2위는 여전히 빈부격차. 세계적으로, 또 역사적으로 유례가 없는 고령화 사회가 사회적 이슈로 자리 잡은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경제적 공포’다. 노년층을 염연한 인간으로 여기지 않고 부양해야 할 짐으로 여기는 경제 논리가 확고한 프레임으로 작용한다. 경제 활동 인구 한 명이 노인 몇 명을 부양해야 한다는 논리가 고령화 사회를 ‘인간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게 한다.

노인은 버려져야 할 존재가 아니다. 어린이가 소중한 것처럼 노인 또한 존중받아야 마땅한 인간이다. 노인의 경험과 지혜는 사회적, 문화적 자산이다. 한 사회의 공동체적 성숙도를 가늠하는 척도 중 하나가 노인에 대한 그 사회의 태도이다. 노년층을 홀대하는 사회가 여성이나 약자, 장애인, 어린이를 귀하게 여길 리 만무하다. 고령화 사회에 대한 대안 마련은 근본적으로 공동체적 가치 회복에서 출발해야 한다.

현재 한국사회의 가장 큰 문제로는 ‘민주주의의 위기’가 2위로 선택됐다. 학생들이 현실을 정확히 읽어내고 있는 것이다. 학생들이 심층토론에서 50년 뒤에도 빈부격차가 심각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이유는 현재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이 부재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학생들의 토론 내용이 민주주의를 회복시켜 빈부격차와 고령화로 대표되는 사회적 난제들을 해결하라는 ‘호소’로 들린다.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시민의 자기 통치’가 아니었던가. 나의 삶으로부터 살아나는 풀뿌리 민주주의가 절실하다. 학생들이 민주주의를 직접 경험하면서 그 가치와 효과를 육화할 수 있는 교육이 요구된다.

- 경제적 부의 양극화에 이어 기후변화, 에너지 고갈에 대한 염려 순
- 학생들, 지구적 난제에 대해 정확하게 인식, 산업 문명에 대한 근본적 성찰 요구
- 탁월성, 시민성 고루 갖춘 ‘교양인’ 양성하는 프로그램 확대해야

## 지구적 부의 양극화 인류의 가장 큰 갈등 요인

---

## 교양인의 꿈과 희망이 ‘허리케인 일으키는 나비’

한국사회의 진전을 가로막는 장애물과 인류사회의 더 나은 내일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다르지 않다. 부의 양극화가 한 사회를 분열로 치닫게 한다면, 국가 간 부의 양극화는 국제적 갈등을 유발한다. 개인의 삶은 국가, 나아가 세계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그렇다면 민주주의는 일국적 민주주의만으로는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 앞서서도 강조했다듯이 민주주의는 이제 세계-민주주의로 심화, 확대되어야 한다. 지역에 기반한 시민 정치가 지구사회를 무대로 한 세계시민 정치로 성숙되어야 한다.

부의 양극화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것이 기후변화로 대표되는 지구적 난제다. 기후변화를 비롯해 에너지 고갈, 식량 배분의 불균형, 토양의 침식, 해양 오염 등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인간은 없다. 물론 가난한 국가, 노약자, 여성과 어린이가 먼저 피해를 입겠지만 결국 인류 전체가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영화 ‘인터스텔라’처럼 지구를 떠나 다른 행성으로 이주할 수도 없다. 비상구는 우리 안에 있다. 우리가 변화하는 것이다. 학생들은 심층 토론회에서 산업 문명,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근본적 성찰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자본주의 문명의 폐해를 극복하는 새로운 문명을 함께 꿈꾸자는 것이다.

학생들은 부의 양극화가 기후변화뿐만 아니라 전쟁과 테러와 같은 지구적 차원의 복합 위기와 연관된다고 보고 있다. 이 또한 정확한 인식이다. 학생들이 ‘부의 재분배를 위한 사회적 시스템의 구축’, ‘시민의 각성을 통한 권력 집중 해소’와 같은 현실적 대안을 내놓고 있다. 세계는 그물코처럼 연결되어 상호 영향을 주고 있다. 이를 긍정적으로 해석하면 우리가 저마다 ‘나비’가 될 수 있다. 우리의 꿈 하나가, 우리의 주장 한마디가 허리케인을 불러일으키는 나비의 날갯짓이 될 수 있다.

대학을 졸업한 사람은 ‘교육받은 인간’이다. 교육받은 인간은 누구인가. 그는 ‘탁월한 개인’인 동시에 ‘책임 있는 시민’이며, ‘성숙한 공동체의 성원’이다. 2011년 후마니타스칼리지가 출범하면서 제시한 인재상이다. 교육받은 인간, 즉 교양인이 지구적 난제를 극복하기 위해 애쓰는 ‘나비’일 것이다.

# 자본주의는 영원하다 제3의 혁명은 IT가 주도

- 10명 중 8명이 자본주의가 지속될 것이라고 답변
- 자본주의와 다른 문명 도래한다는 답은 10명 중 1.6명 수준
- 제3의 혁명은 IT에 이어 생명공학, 우주개발, 생태환경 분야 순

---

## 청년들의 ‘줄어드는 미래’, 상상력, 자신감 키워주는 교육 필요

자본주의는 ‘막강’하다. 학생 대부분이 50년 후 자본주의는 다른 종류의 문명과 결합해 더욱 발전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언뜻 납득이 가지 않는 답변이다. 앞에서, 부의 양극화에 대해서는 비판적 성찰이 요청된다고 주장하면서도 자본주의의 미래에 대해서는 영원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대량 설문 1차 결과를 놓고 토론회를 가졌을 때, 학생들의 이중적 시각을 어떻게 볼 것인가가 논의의 핵심 중 하나였다.

결론은 당연하다는 것이었다. 이성과 감정, 이론과 현실 사이에는 언제나 간극이 있다. 인간은 고정 불변하는 유일한 주체가 아니라 ‘과정으로서의 주체’라는 판결이 난 지 이미 오래다. 과정의 주체는 관계의 주체이기도 하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거나 관계에 의해 수시로 변화, 적응하는 존재다. 그래서 인간은 이중적, 다중적이다. 양가 감정은 인간의 보편적 특성이다.

지금 대학생들이 누구인지 돌아보면 학생들의 태도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1990년대 초중반에 태어난 이들은 한국사회가 일찍이 경험해보지 못한 경제 위기 속에서 자라났다. 한 집 건너 도산하거나 가장이 실직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성장했다. 학생들의 경제적 공포는 부모, 조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다. 기성세대는 전후 복구 시기를 거치면서 ‘돈이 전부’라는 가치관을 적극 받아들였다. 기성세대에게는 일자리가 있었다.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평생직장을 얻을 수 있었다.

하지만 젊은 세대는 다르다. 이들에게는 미래가 없다. ‘고용 없는 성장’의 한복판에서 취업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지만 정규직의 문은 좁기만 하다. 경제적 불안정이 심리적 불안정과 겹쳐진다. 자본주의라는 ‘막강한 갑’ 앞에서 젊은이들이 스스로를 ‘영원한 을’이라고 자책하고 있다. 제3의 혁명에 대한 예측이 IT분야에 이어, 생명공학, 우주개발 분야에서 일어날 것이라는 답변도 자본주의가 지속될 것이라는 집단무의식과 무관하지 않다.

결국 교육의 문제다. 학생들에게 지금과 다른 세계를 꿈꿀 수 있는 상상력, 인간의 얼굴을 한 공동체를 건설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희망을 심어주는 교육이 시급하다.

# 평화로운 세계시민사회? 거의 불가능하다

- 절대 다수(92%)가 인간의 폭력과 갈등 더 심해질 것이라고 전망
- 평화로운 인류사회를 위해 나눔과 봉사, 생명 존중, 다원주의 등 중요 가치로 꼽아
- 이성보다 품성(인성), 감성 관련 교육 프로그램 개발 필요



---

## 공동체 의식의 내면화가 지속가능한 문명을 위한 필수 요건

평화로운 세계시민사회의 가능성에 대한 학생들의 답변은 매우 부정적이었다. 10명 중 9명 이상이 '그렇지 않다'고 응답했다. 10명 중 8명 꼴로 50년 후에도 인간의 폭력성은 더 심해지거나 현재와 같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았다. 학생들의 이 같은 전망을 산업 문명의 지속가능성과 연관시켜 이해할 수 있을까. 산업문명이 자연에 대한 폭력성을 기반으로 발전을 거듭해왔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제3의 산업혁명이 일어난다고 해도 폭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요원해 보인다.

학생들은 집담회에서 인류 역사상 폭력이 없던 시기는 없었다면서도 갈등과 폭력을 구분한다. 갈등은 차이와 마찬가지로 다원주의를 가능하게 하는 필수 요소라는 것이다. 갈등과 차이를 폭력과 차별의 원인으로 보지 않고 풍요로운 다양성의 토양으로 볼 때 평화로운 세계시민사회가 도래할 것이라는 의견이다. 이어 학생들이 지속가능한 인류사회를 위해 우선적으로 실천해야 할 핵심가치로 꼽은 것은 나눔과 봉사, 생명 존중, 다원주의 등 공동체적 시민의식이다.

폭력성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필요하다. 심리학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공감, 연민, 배려와 같은 공동체적 감성은 유전적으로 계승된다. 최근 뇌과학이 발견한 '거울신경세포'가 결정적 증거다. 전두엽에 위치한 거울 뉴런을 통해 타인의 희로애락을 동일시(감정이입)한다. 하지만 타인에 대한 폭력성은 사회적으로 학습되는 것이라고 한다. 진화심리학에서도 이기적 유전자보다 이타적 유전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배타적 집단보다 협력하는 집단이 더 건강하고 행복하다는 것이다.

이 같은 연구 결과는 교육의 역할과 책임을 다시 보게 한다. 교육을 통해 세계시민을 탄생시킬 수 있게 된 것이다. 학교교육을 통해, 또 평생교육을 통해 세계시민을 길러내야 한다. 세계화가 국가 간 장벽을 허물고, 정보통신 기술이 시공간의 제약을 무너뜨리고 있다. 이와 동시에 긴장과 갈등, 차별과 배제의 경계선이 곳곳에서 뚜렷해지고 있다. 전쟁과 테러 못지 않게 자연 재앙 또한 빈발하고 있다. 공격성과 폭력성을 공공성과 공동체성으로 전환하는 세계시민교육이 교육의 또 다른 미래로 떠올라야 한다.

## 미래에 가장 존경받을 사람은 경제적 부 창출하는 사람

- '다른 세상을 만들기 위해 도전하는 사람'을 중복 선택, 복합적 의미 담겨
- 2위가 '타인에게 헌신하는 사람'(29.9%)으로 낮지 않은 편
- 다양하고 창의적인 사회 진출 지원하는 프로그램 개발 필요

---

## 자기 삶의 방식 스스로 발명하는 사회 진출 능력 길러줘야

대량 설문조사 결과를 집계하면서 가장 궁금했던 항목 중 하나가 미래에 가장 존경받을 사람이었다. 1위가 ‘경제적 부를 창출하는 사람’(36.4%)으로 나오자 한 교수가 “미국이나 유럽 같았으면 대서특필할 만한 뉴스”라고 말했다. 학생들이 자본주의나 세계시민, 인간의 폭력성, 남북통일 문제에 대해 예상 밖으로 성숙한 식견을 갖고 있다는 일부 교수들의 판단이 흔들렸다. ‘타인에 헌신하는 사람’이 미래에 존경받을 사람 2위(29.9%)로 나온 것만 해도 다행이라는 교수도 있었다.

그래서 중복 응답을 분석해보기로 했다. ‘경제적 부를 창출하는 사람’을 선택한 응답자가 그 다음으로 무엇을 선택했는지 살펴보았더니 ‘다른 세상을 만들기 위해 도전하는 사람’ ‘전문지식을 추구하는 사람’을 선택했다. 단지 사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경제적 부를 우선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세상, 전문지식의 제고를 위해 경제적 부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왔다. 경제적 부가 목적이 아니고 수단이었다.

지나친 확대해석일 수도 있다. 하지만 심층토론회에서 제기된 학생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위와 같은 의미 부여가 설득력을 갖는다. 영어학부에 재학 중인 한 학생은 “영어과에 다니면서도 인문학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후마니타스 교양 과목을 공부하면서 생각이 바뀌었다. 처음으로 내가 원하던 공부를 한다는 기분이 들었다”라고 말했다. 교양 과목을 수강하며 전공이나 진로에 대한 기존의 관점을 바꾸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에 다니는 가장 큰 이유는 ‘취업’이다. 문제는 학생들이 졸업 이후 사회 진출을 취업이 전부라고 여긴다는 것이다. 창업을 하겠다는 학생들도 있지만, 대기업이나 공무원 등 안정적인 직업을 원하는 학생들에 비하면 소수다. 다행스럽게도 학생들이 15년 뒤의 자신을 상상한 다이어그램을 살펴보면 나름대로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가겠다는 꿈과 희망이 잘 드러나 있다.

이번 조사 결과는 대학의 새로운 역할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다. 대학이 취업 말고도 의미 있는 사회 진출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사실을 보여줘야 한다. 종합적이고 실질적인 사회 진출 프로그램을 개발, 학생들이 스스로 삶의 방식을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 대학에 다니는 이유

## 첫째 취업

## 둘째 학벌

## 셋째 학문

- 대학교육을 받는 이유, 매우 현실적으로 나타나
- 학생들은 전공 및 실용교육 강화 요구
- 현재 대학은 '인간다움' '자아성찰' '사회공헌' 외면

---

## 모두가 '기업가형 인간'이 돼야 하는가

학생들이 대학에 다니는 이유는 매우 현실적이다. 취업 때문이다. 두 번째로 꼽힌 '학벌'과 다섯 번째로 꼽힌 '인맥 확대'도 진로와 직결되어 있다. 이 세 가지 답변을 모두 합하면 응답자 10명 가운데 6명이 취업을 위해 대학에 다닌다. “현재 대학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는 무엇인가”라고 묻는 질문에 ‘전공지식 전수’, ‘취업역량 제고’, ‘경제적 가치 창출’이라고 답한 것도 학생들이 대학에 다니는 이유와 같은 맥락이다.

학생들이 취업을 최우선 순위에 올려놓는 배경을 다각도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심층토론회에 참가한 한 학생은 “인문학 취향이지만 취업을 고려해 공대에 입학했다”라고 말했다. 이처럼 취업이 학생들 앞에 놓인 최대 과제이지만 안정된 일자리는 매우 제한돼 있다. ‘바늘구멍’ 같은 미래 앞에서 학생들의 선택지는 거의 없다. 무력감에 시달리면서도 취업에 매달릴 수밖에 없다.

학생들은 이 같은 현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 학생들은 무엇보다 공교육의 무책임을 비판한다. 중등교육이 대학 입시에 몰두하고, 대학에 입학하면 취업에 목매달기 때문에 올바른 삶, 바람직한 사회에 대해 스스로 깊이 사유할 기회를 갖지 못한다는 것이다. 언론에 대한 성토도 빼놓지 않는다. 언론이 정부 정책이나 불합리한 사회 현실을 제대로 비판해왔다면 청춘이 지금처럼 어둡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문제는 시장의 막강한 입김이다. 사회가 시장 논리에 의해 획일화되면서 대학생들이 저마다 시장이 요구하는 인간형, 즉 ‘기업가형 인간’(자기계발형 인간)으로 변모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사회학의 최근 관찰에 따르면, 개인의 삶은 이제 하나의 프로젝트로 바뀌고 있다. 성공과 실패 여부가 전적으로 개인의 능력에 의해 결정된다. 기업은 뒷짐을 진 채 ‘바늘구멍’을 통과한 승자만 골라낸다. 승자독식 구조의 악순환이다.

학생들은 취업을 위한 전공 및 실용교육을 강화해달라고 요구하면서도 미래대학은 ‘인간다움’, ‘자아성찰’을 위한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한다. 후마니타스교양교육연구소장 이영준 교수는 이 간극의 성격을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이것은 학생들의 절규다.”

- 기초·교양교육과 전공·실용교육의 연계 적극 강화해야
- ‘자아성찰’, ‘진리탐구’ 요구하는 동시에 ‘인간다움 추구’도 강조
- 인문 가치 중시하는 대학이 미래에도 살아남을 것

미래대학이  
추구해야 할 가치  
자아성찰,  
진리탐구

---

## 후마니타스 글쓰기, 미래교육의 한 모델

미래대학이 우선적으로 추구해야 할 가치는 무엇인가. 학생들의 응답은 1위부터 5위까지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였다. ‘자아성찰 강조’에 이어 ‘진리탐구’, ‘전공지식 전수’, ‘다양성 추구’, ‘사고력 확장’. 세 가지를 함께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된 문항이어서 중복 응답 결과를 재확인해 보았다.

‘자아성찰 강조’와 ‘진리탐구’를 선택한 학생들이 중복 응답으로 가장 많이 꼽은 것이 ‘인간다움의 추구’였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현재 대학이 추구하는 가치와 미래대학이 추구해야 할 가치는 크게 다르다. 현재 대학에서 이뤄지는 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결코 높지 않다는 반증이다. 심층토론회에서 학생들은 진리에 대한 탐구나 공동체적 가치 실현과 같은 대학의 본질적인 목적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취업을 통한 물질적 부에 대한 욕구를 무시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전공지식을 갈구하는 배경도 현실적이었다. 더 나은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인간다움도 필요하지만 전공지식을 통해 더 나은 사회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미래대학은 인문학적 소양을 통해 인간다운 삶이 어우러지는 사회를 꿈꿀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일시적으로 실리를 추구하는 대학보다는 궁극적으로 가치를 추구하는 대학이 살아남을 것”이라며 인문학의 미래에 대해 낙관하는 시각도 있었다.

미래대학이 추구해야 할 가치를 놓고 진행된 소셜 픽션에서도 학생들의 교육에 대한 기대는 매우 컸다. 교육 효과는 의외로 빨리 나타나기도 한다. FGI에서 다음과 같은 경험담이 소개됐다. “경희대에 입학한 뒤 글쓰기 수업을 들으면서 처음으로 ‘나’에 대해 오랜 시간, 깊게 생각해볼 수 있었다.” 이 학생은 생애 최고의 순간, 나를 슬프게 하는 것 등을 주제로 자기를 성찰하는 글을 쓰다 보니 우리 사회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다면서 “이런 것이야말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진정한 교육의 방향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교육의 미래는 이렇게 이미 시작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 학생들이 요구하는 교수상에 대한 교수사회의 대안 마련 시급
- 사회문제 관심 많은 비판적 지식인에 대한 호감도는 매우 낮은 편
- 교수와 학생 간 교감 부족에 대한 불만이 반영된 결과

미래대학이 요구하는 교수상  
‘인격 형성 도와주는  
정신적 스승’



---

## “교수님과 자주 만나고 싶다”

미래대학에서 학생들로부터 존경받는 교수는 어떤 교수일까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 결과 역시 오늘날의 현실이 그대로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현재 대학에 다니는 학생들은 ‘인격 형성에 도움을 주는 정신적 스승’을 만나고 싶어한다. 이와 같은 분석을 뒷받침해주는 항목이 미래대학 평가에 대한 설문 결과다. 학생들은 미래에도 대학을 평가해야 한다면 ‘학문적 탁월성’이나 ‘대학의 사회적 기여도’보다 ‘교수와 학생 관계’를 먼저 살펴봐야 한다고 답했다.

학생들은 ‘인격 형성에 도움을 주는 정신적 스승’ 외에 ‘학생의 창의력을 높여주는 뛰어난 질문자’, ‘강의 역량이 뛰어난 교육자’, ‘평생 교류할 수 있는 친구 같은 존재’를 꼽았다. 질문자, 교육자, 친구 같은 존재 모두 인격 형성에 도움을 주는 정신적 스승이 갖춰야 할 덕목이다. 한마디로 학생들은 교수와 자주 만나고 싶어하는 것이다.

학생과 교수 사이가 소원해진 일차적 원인은 학생이나 교수에게 있지 않다. 정부 혹은 외부기관의 대학 평가가 전통적 의미의 사제시간을 흔들어 놓았다. 교수의 연구 업적이 대학 평가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함에 따라, 교수들은 강의보다 논문 쓰기에 여념이 없어졌고, 결과적으로 교수와 학생 사이가 멀어지고 말았다. 학생들도 학문탐구보다는 취업을 위해 학점 취득을 원하면서 ‘스승’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줄어들었다.

대학평가는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 연구 역량을 강화하는 자극제 역할을 할 수 있다. 대학 평가 결과가 높아지면 취업률 제고, 산학 협력 확대와 같은 순기능을 기대할 수 있다. 학생들도 무조건 대학평가에 반대하지 않는다. 절반이 넘는 학생들이 외부 기관의 평가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문제는 대학의 자율성이다. 대학이 평가 순위를 높이기 위해 학술기관으로서의 정체성을 외면한다면 대학과 기업의 차이는 사라지고 말 것이다.

학생들의 목소리에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는 상황이다. 대학이 답해야 할 때다. 이를 위해 새로운 대학평가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 학생들이 응답했듯이 사제시간, 학문적 탁월성, 사회적 기여도, 교육의 창의성 등에 따라 명문을 가리는 새로운 척도가 시급하다. 물론 이때의 명문대들은 서열화되지 않을 것이다. 단 하나의 1위가 아니고 저마다 일류인 대학들이 상호 보완 관계를 갖게 될 것이다.

# “나는 경희인이다” 구성원으로서 자부심 높아

- 경희대에 대한 종합적 만족도 높게 나타나(약 57%)
- 의인화 조사 결과, 경희인은 ‘감성적이고 생동감 넘치는 여성 문화예술인’
- 타 대학에 견주어 정의롭고 배려심 많은 대학으로 인식

---

## 20~24세 유니섹스 캐주얼 어울리는 여성, 감성적이고 실천적 이미지가 강점

‘미래리포트’ 대량 설문 결과, 경희대 학생들의 대학에 대한 만족도와 구성원으로서의 자부심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강의의 질적 수준, 교수상, 고등교육 전반에 대한 비판적 시각에 견주어 모교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미래 핵심가치’ 연구 결과도 크게 어긋나지 않았다. 교직원들의 답변과 비교해도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다. 학생들의 만족도와 자부심이 교직원들보다 10% 포인트 가량 더 높았다.

심층토론 결과 경희대에 대한 만족도와 자부심이 높은 이유를 살펴볼 수 있었다. 참가 학생들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양교육, 의학계열의 경쟁력, 비교적 잘 구축된 각종 거버넌스가 주요 원인이라고 의견을 모았다. 앞으로 15년 뒤 2029년의 ‘나’와 ‘우리’를 상상하는 다이어그램에서도 위 항목과 관련된 의식, 즉 교양교육의 미래 효과를 엿볼 수 있다. 다이어그램은 미래의 한 시기로 먼저 가서, 자신의 현재 직업과 과거 대학 공부와의 연관성 등을 간단명료한 문장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일종의 ‘미래 회상’이다.

언론정보학과 1학년 여학생은 15년 뒤 사람들과 소통하는 유명 강사가 되어 있을 것이라며, 교양과목(‘인간의 가치 탐색’ ‘우리가 사는 세계’)을 통해 인간과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깊어진 덕택이라고 ‘과거를 회상’한다. 무역학과 2학년 여학생은 후마니타스 시민교육 수업을 통해 ‘실천’의 의미를 알게 되어 2029년 현재 아프리카에서 국제구호 활동을 펼치고 있고, 물리학과 2학년 남학생은 같은 시기 우주의 원리를 밝혀내기 위해 아시아 과학자들과 공동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경희대생들에게 경희대생의 외형적 이미지를 물어보았더니 ‘20~24세 여성, 유니섹스 캐주얼이 어울리는 문화예술가’로 나타났다. 비교 대학 대부분이 남성인 것과 좋은 대비를 이룬다. 미래사회가 남성성(이성)에서 여성성(감성)으로, 하드웨어(정치경제)에서 소프트웨어(문화예술) 쪽으로 이동할 것이라는 예측에 동의한다면 고무적인 자기인식이 아닐 수 없다. 이 같은 결과는 ‘주체적 능력 이미지 비교’ 조사와 깊은 연관성을 갖는다. 경희대생은 타 대학생에 비해 품성(정의감), 감성(공감성, 친근성, 이타성)이 최고 수준에 달했다. 이 또한 향후 대학의 중장기 발전 전략을 수립할 때 유의해야 할 부분이다.

- 경희의 현 강점은 교양교육, 국제화, 전공교육 순
- 약점은 동문의 사회 진출, 전공교육, 융복합 분야 순
- 지적 수월성 강화하는 교육 정책 마련해야

경희의 현 강점은 교양교육  
경희를 대표하는  
전공 분야 육성 시급

---

## 연계협력 클러스터 통해 전공 역량, 대학원 위상 강화해야

‘교양교육’과 ‘동문의 사회 진출’ 경희대의 두 얼굴이다. 전자는 현재의 강점이고 후자는 현재의 약점이다. 재학 중인 대학에 대한 종합적인 만족도와 구성원으로서 자부심이 높은 편이지만, 앞으로 보완해나가야 할 약점에 대해서도 냉정한 평가를 내리고 있다. 학생들은 교양교육에 이어 ‘국제화’, ‘전공교육’, ‘융복합 분야’ 순으로 강점을 꼽았다.

반면, 약점 분야에서도 ‘전공교육’과 ‘융복합 분야’가 지적됐고 ‘교양교육’과 ‘교수의 연구 역량’이 낮다는 평가도 눈에 띄었다. 교양교육이 경희의 대내외 이미지를 강화한 이유는 학생들이 심층토론을 통해 밝혔듯이 후마니타스칼리지를 성공적으로 출범시켰기 때문이다. 국제화 또한 각종 대외 평가에서 늘 상위권을 기록해왔다. 문제는 약점이다. ‘동문의 사회 진출’은 취업 혹은 평판도와 직결되는 항목이다. ‘미래 핵심가치’ 연구에서 학생들이 경희의 취약점으로 ‘지성’, ‘수월성’을 지목한 것과 일맥상통하고 있다.

이와 함께 대학과 교수사회가 유념해야 할 비교 분석이 있다. 재학생과 교직원의 응답 샘플을 비교한 결과, ‘대학원 교육의 부실’을 약점으로 꼽은 비율에서 큰 차이가 났다. 교직원이 재학생보다 약 5배 이상 대학원 교육이 약점이라고 답했다. 학부와 대학원이 긴밀히 연계해야 전공교육이 강화될 수 있다는 권고로 해석된다. 융복합 분야, 사회적 실천, 교양교육, 교수 연구역량 등 약점으로 지적된 부문을 끌어올리는 일은 졸업생의 사회 진출 과도 무관하지 않다.

학술 역량과 실천 역량이 골고루, 또 서로 연계되는 가운데 향상될 때 약점이 해결될 수 있다. 기회가 왔고, 환경이 무르익고 있다. 2015년부터 본격 추진되는 연계협력 클러스터가 그것이다. 이미 중앙정부, 경기도, 삼성 등과 관·산·학 협력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연계협력 클러스터와 함께 학부와 대학원의 학술 역량을 끌어올리면서 경희를 대표하는 학문 분야를 육성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후마니타스칼리지에 이어 전공 분야에서도 경희의 특징점을 창출해야 한다. 학생들은 현재 경희의 경쟁력은 ‘의학계열’(24%)과 ‘인문학’(20.6%)에 있다고 보았다. 50년 뒤 경희의 경쟁력은 역전된다. 인문학이 가장 높고 이어 공학계열, 의학계열 순이다.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구적 파급력을 가진 전공 분야를 육성해야 할 것이다.

- 경희대 총장이 갖춰야 할 필수 덕목은 교육철학, 미래비전
- 경영능력은 예상보다 낮아(18.8%), 심층토론에서도 같은 결론
- 경영인이 총장이 된다 하더라도 올바른 교육철학 필수적

## 미래대학 총장의 필수 덕목 경영능력보다 철학과 비전

---

## 총장의 역할과 미래대학의 인재상

미래대학 총장이 갖춰야 할 필수 덕목을 묻기 전에, 학생들에게 “현재 경희대가 인재를 양성하는 데 있어 어떤 능력에 비중을 두는가”라고 물었다. ‘인문학적 소양’을 갖춘 인재라는 답이 압도적이었다. 절반이 넘었다. 2위는 ‘시민적 실천 능력’, 3위는 ‘창의적 문제해결력’으로 나타났다. 국내 대학 최초로 교양교육 혁신과 함께 시민교육을 본격 실시한 결과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향후 50년 뒤 경희대의 인재상도 다르지 않았다. ‘인문학적 소양’을 갖춘 인재가 1위로 꼽혔다. 차이가 있다면 미래 인재상은 고른 분포를 나타낸다는 것이다. 창의적 문제해결력, 융합능력, 시민적 실천능력을 갖춘 인재의 비율이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경희의 현재 강점과 미래 강점으로 공히 인문학을 지목한 조사 결과와 맥락을 같이한다. 교양교육을 통한 기초·인문학의 각인 효과를 새삼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학생들의 인식은 총장이 지녀야 할 필수 덕목에서도 반복된다. 현재 경희대 총장이 갖춰야 할 필수 덕목으로 ‘교육철학’에 이어 ‘미래비전’이 선택됐다. ‘경영능력’이나 ‘리더십’이 각각 3, 4위를 기록한 것은 의외로 보인다. 대학이 기업 논리를 적극 수용하면서 대학 총장에게 CEO 역할을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 현상인데 경희대 학생들은 철학과 비전을 우선하고 있다. 미래대학 총장이 지녀야 할 필수 덕목 1, 2위도 동일하다.

재학생과 교직원 응답 샘플 400개를 비교 조사한 결과에서는 흥미로운 차이가 나타났다. 교직원들은 총장이 갖춰야 할 덕목으로 ‘교육철학’보다 ‘리더십’을 우선했다. 심층토론회에서 학생들의 속마음이 드러났다. 기업인이 대학 총장 자리에 앉는 것에 대해 토의한 결과, 올바른 교육철학을 가진 경영인이라면 문제 없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하지만 굳이 경영능력과 교육철학 중 하나를 선택하라면 교육철학을 택하겠다는 의견이 많았다.

# 경희가 추구해야 할 핵심가치 심미적 합리성, 인간다움 추구

- 인문학적 소양 갖춘  
미래인재 양성 교육 프로그램 강화 희망
- 학생의 스토리텔링 능력  
길러주는 교육 프로그램 요청 눈길
- 지성과 감성 통합해  
창의적 · 실천적 세계시민 양성해야



---

## 긍정 탐구에서는 학문, 공존, 자율, 실천 강조

‘인간다움’, ‘진리탐구’, ‘사고력 확장’. 50년 뒤 경희대가 추구해야 할 핵심가치 1, 2, 3위다. 반면에 ‘취업 역량’, ‘관계 형성’ 등 학생들이 현재 필수적으로 갖춰야 한다고 지목한 능력은 50년 뒤 순위가 낮게 나타났다. 인간다움을 추구해야 한다는 조사 결과는 경희대가 현재, 그리고 미래에 주력해야 할 인재상과도 맞물린다.

학생들은 경희대가 앞으로도 계속 ‘인문학적 소양’을 갖춘 인재를 배출해야 한다고 지목하고 있다. 학생들의 이와 같은 요구를 충족시키려면 무엇보다 교양교육과 전공교육의 조화, 학술과 실천의 창의적 결합이 가시화돼야 한다. ‘미래 핵심가치’ 연구 조사의 결론도 이와 다르지 않다. 학생들의 ‘기대 이미지’ 분석 결과, ‘지성’과 ‘수월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감성 영역에서는 자기 역할을 다하고 있지만, 이성(로고스)과 품성(에토스) 영역에서는 변화의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학생들이 꿈꾸는 미래대학의 주요 모습은 다음과 같다. 교육 부문에서는 교수자와 학습자 간의 상호소통, 전공 차원의 인문학, 학생의 스토리텔링 능력 등이 강조됐다. 연구 영역에서는 교수와 학생 간의 유대감 강화를 앞세웠고, 실천 영역에서는 다양한 실천 활동을 지원하는 상설 기구 운영을 요청하고 있다. 학생들의 이와 같은 꿈과 희망을 실현하기 위해 경희가 추구해야 할 미래 핵심가치가 바로 ‘심미적 합리성’이다. 심미적 합리성은 지성과 감성을 통합하는 합리성이다.

다시 말해 지성(IQ), 감성(EQ), 영성(SQ)의 조화를 통해 ‘인문학적 소양’을 갖춘 세계시민을 길러내는 데 필수적인 핵심가치가 바로 심미적 합리성이다. 한편, 긍정 탐구에서 학생들이 제시한 미래대학 핵심가치는 학문, 공존, 주체와 자율, 성찰과 실천, 자유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긍정 탐구 결과는 ‘미래리포트’의 ‘인간다움 추구’, ‘미래 핵심가치’의 ‘심미적 합리성’을 구현하기 위한 필요충분조건이다.

학문을 비롯한 공존, 자율, 성찰, 실천 없는 심미적 합리성은 불가능하고, 심미적 합리성 없는 인간다움의 추구 또한 실현 불가능하다. 심미적 합리성에 기반한 인간다움의 추구. 이것이 경희가 21세기 지속가능한 지구사회를 선도하는 미래대학으로 도약하는 데 필요한 핵심가치다.

3

대학이  
바뀌어야  
세계가  
바뀐다

‘미래대학리포트’ 1차 조사 결과에 대한 워크숍 자리는 숙연했다. 경희대와 타 대학과의 이미지 비교 분석 결과를 토의할 때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였다. 대학에 다니는 이유, 한국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 인류의 미래에 대한 전망 등에 대해 냉정한 인식을 하고 있었지만, 대부분 비관적이었다. 워크숍을 마무리하는 자리에서 한 교수가 “이것은 학생들의 절규다”라고 말했다.

행복에 대한 추구, 전공 및 실용 교육을 강화해달라는 요구, 인격 형성에 도움을 주는 정신적 스승에 대한 갈망, 대학은 인간다움을 추구해야 한다는 제언을 ‘시험지 답안’ 보듯 지나치면 안 된다는 것이다. 또 다른 교수는 “이제 대학과 교수사회가 답해야 할 차례다. 학생들의 요구가 이렇게 분명하지 않은가”라고 말했다.

미래대학리포트 1차 결과는 경희의 도약 발전을 위한 새로운 추진력이 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먼저 학생의 사회 진출을 지원하는 종합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이와 동시에 ‘대학을 바꾸자, 세계를 움직이자’는 기획 취지를 대내외에 확산시키기 위해 학내 공론화와 함께, 국내외 대학사회와 미래대학리포트 결과를 공유하면서 지구적 차원의 집단지성을 창출해나가야 한다.

# “이것은 학생들의 절규다” 학생 지원 정책 수립 시급

## 교육 혁신이 대학 혁신

학생들의 현실 인식은 정확하다. ‘미래리포트’와 ‘미래 핵심가치’ 조사 결과 학생들이 대학에 바라는 바를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었다. 대학과 교수사회, 나아가 정책 당국, 유관 기관은 학생들의 목소리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 교양교육과 전공교육의 조화와 연계가 시급하다. 교양 강의를 듣고 전공 수업에 들어가면 가치관이 흔들릴 정도로 혼란스럽다.
- 전공교육 차원에서도 삶과 연관된 인문학 교육을 확대해야 한다. 직업이 아니라 ‘가치’가 생애를 지탱하는 ‘내적 견고성’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 지성과 수월성을 강화해야 한다.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양교육에 이어 경희를 대표하는 학문 분야를 육성해야 한다. 학문적 탁월성은 학생의 사회 진출과도 연관된다.
- 융복합 교육이 활성화돼야 한다. 학부와 대학원의 교류 협력을 확대하고, 상호 소통하는 유연한 교육 방식을 적극 도입해야 한다.
- 스토리텔링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 독서와 토론, 읽기와 쓰기 능력, 즉 ‘생각하는 능력’을 길러, 언제 어디서든 주체적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대학은 마음껏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 강의실, 도서관, 실험실, 교정에서 학생이 만족하는 대학이 명문대학이다.

## ‘바람직한 스승상’을 수립해야 한다

학생들은 외롭다. 앞이 보이지 않는다. 대학이 취업 준비 기관으로 전락하면서 ‘각자도생’해야 한다. 교수와 만날 수 있는 기회조차 거의 없다. 능력주의에 의해 작동되는 승자독식 사회가 교수도 없고 선후배도 없는 대학을 만들고 있다.

- 대학은 학술기관일 뿐만 아니라 사회기관이기도 하다. 대학의 사회적 책임과 교수의 사회적 역할을 재확인해야 한다.
- 학생들이 원하는 미래의 스승상은 ‘인격 형성에 도움을 주는 정신적 스승’이다. 대학

---

“대학은 젊은이들이 의미 있는 삶에 대한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동료들과 또 자기 자신과 끝까지 싸우는 곳이 되어야 하고, 자신의 이익이 타인에 대한 배려와 상충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곳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이런 대학을 잘 보존하고 지켜내 후대에 물려줄 책임이 있다.  
민주주의는 바로 여기에 달려 있다.”

- 앤드루 델반코

과 교수사회는 지금 과연 어떤 스승상을 공유하고 있는가. 학생들의 요청에 대학이 답해야 할 때다.

- 학생들은 교수를 만나고 싶어 한다. 강의실 안팎에서 삶의 경험과 지혜를 전해주는 멘토로서의 교수를 기대하고 있다.
- 연구와 교육의 분리가 문제다. 연구와 교육이 서로 긴밀히 연계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때, 학생의 만족도가 높아지고 학문적 수월성도 달성할 수 있다.
- 대학의 연구와 교육도 그 자체로 하나의 사회적 실천 과정이어야 한다. 이를 통해 더 나은 세계에 기여하는 인재를 길러내야 한다.

### 종합적인 사회 진출 프로그램 절실

학생들은 인간다움, 심미적 합리성 등 이상을 추구하면서도 졸업 이후 진로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 하지만 출구는 좁기만 하다. 대학은 학생들이 졸업 이후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실질적 프로그램을 지원해야 한다.

- 취업과 창업,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전부인가. 학생들이 자신의 미래를 주체적으로 개척하는 능력을 길러줘야 한다. 청년의 미래는 더 많아져야 한다.
- 입학한 이후 졸업할 때까지 다양한 시도와 실험을 할 수 있는 사회 진출 플랫폼을 마련하여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졸업생은 물론 일반 시민들도 위와 같은 사회 진출 프로그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방해야 한다. 대학은 사회기관이다.
- 학생의 의미 있는 사회 진출을 위해 지역사회 및 교외·국외 유관기관과 연계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가야 한다.

# 경희를 위한 제언 세계적 명문의 요건

## 대학은 왜 존재하는가

경희는 2009년 개교 60주년을 계기로 ‘경희의 미래, 인류의 위기’를 기치로 내세웠다. ‘학문과 평화’의 전통을 학술과 실천 부문과 고루 접목시켜 더 나은 세계를 건설하는 데 기여하기로 한 것이다. ‘미래대학리포트’에서 새삼 확인 했듯이 창학 정신과 66년 역사를 돌아보며 미래비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 대학의 위기는 곧 인류의 위기이다. 경희 구성원 모두가 지역적·지구적 차원에서 경희의 정체성과 미래비전을 공유해야 한다.
- 경희는 문명사적 전환을 주도하는 대학을 지향하고 있다. 국가, 기업, 종교, 시민사회의 한계를 뛰어넘는 학술과 실천의 산실로서 미래대학을 구현해야 한다.
- 학생들이 원하는 미래대학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 교수와 직원은 공적 기관의 구성원으로서 책임감과 윤리 의식을 가져야 한다.
- 학술과 실천 역량의 지구적 탁월성이 대학다운 미래대학, 세계적 명문의 요건이다. 이런 대학이 인류의 위기를 타개할 수 있다.

## 급변하는 교육 환경,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디지털 기반의 정보통신 환경이 일상화되고, 인구 구성비가 급변함에 따라 고등교육 환경의 지형이 바뀌고 있다.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인생 삼모작’ 시대가 열리고 있다. 교육 목적, 교육 방식을 혁신하지 않는 대학은 도태되고 만다.

- 디지털 문명의 급속한 확산과 더불어 교육·연구 환경이 크게 달라지고 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아날로그와 디지털의 창조적 결합이 시급하다.
- 학생들이 요구했듯이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대학에서 ‘함께 배우는 대학’으로 전환해야 한다. 상호 소통하는 교육 방식을 개발해야 한다.
- 연구와 교육이 분리되면서 교수와 학생 사이가 멀어졌다. 연구의 수월성이 교육의 탁월성으로 연결되는 제도와 문화가 정착되어야 한다.

---

“교수들은 오늘날 학부생들을 민주시민으로 성장시키는 데 아무런 관심도 보이지 않는다. 그것은 한때 교양교육의 기본 목표라고 일컬어지던 과제였으며 지금 이 순간 미국에서 절실히 요구되는 과제인데도 말이다”

- 데릭 북, 전 하버드대 총장

-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교육 내용과 교육 기간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고등교육의 평생교육화, 평생교육의 고등교육화가 필요하다.
- 융복합 분야를 선도할 필요가 있다. 추진 중인 연계협력 클러스터를 조기 정착시켜 학문의 다양성과 탁월성을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
- 학술과 실천을 유기적으로 결합해야 한다. 국내외 대학, 기업, NGO 등과 적극 연계하면서 다양한 지역적·지구적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

### 행·재정의 혁신, 인프라 구축

행정과 재정의 목적은 교수와 학생이 마음껏 연구하고 마음껏 배울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고 지원하는 데 있다. 캠퍼스 인프라도 마찬가지다. 행정의 전문성, 재정의 안정성, 인프라의 쾌적성이 갖춰질 때 구성원이 만족하는 명문으로 도약할 수 있다.

- 교수가 마음껏 가르치고 연구할 수 있는 환경과 지원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교원 인사 제도 및 연구 지원 제도의 합리적 개선이 시급하다.
- 학생이 마음껏 배울 수 있는 교육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대학문화를 활성화해 공동체적 가치를 육화하는 데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 행정 직원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전산 시스템의 선진화, 다양한 재교육 프로그램 운영, 평가 제도 개선, 복지 제도의 확충이 필요하다.
- 학생 지원부서를 재조정해 학생의 주체적인 사회 진출을 전방위에서 지원하는 종합적 지원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 대학은 학술 및 교육 공동체일 뿐만 아니라 구성원의 생활 공동체이기도 하다. 구성원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지속적 노력이 필요하다.
- 대학은 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관·산·학 협력을 강화하고, 자체 수익 사업을 활성화해야 한다. 발전 기금 및 성금 캠페인 규모도 늘려가야 한다.

# 미래대학을 위한 평가 지표

## Global Eminence Index

### 기존의 대학평가, 누구를 위한 것인가

학생들도 대학평가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는다. 객관적 입장에서 대학의 '건강도'를 진단하는 일은 정당하다. 대학을 위해, 또 사회를 위해서도 필수적이다. 문제는 평가 방식이다. 평가 기준이 정량적 평가에 치우쳐 기득권을 강화하는 역효과를 낳는다.

- 현재의 평가 기준은 기득권을 강화한다는 역기능을 낳고 있다. 대학평가가 애초 의도와 달리 대학을 서열화하고 있다.
- 국가(교육 당국)와 기업(언론사)이 주도하는 평가가 학문의 독립성과 대학의 자율성을 해치고 있다.
- 기존 평가 기준이 연구 실적, 취업률, 평판도 등 수치화할 수 있는 정량적 평가에 치우쳐 대학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심화한다.
- 현재 시행되고 있는 대학평가는 대학의 존재 이유, 미래대학의 역할과 책임 등에 대한 담론 형성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한다.

### 미래대학의 평가 기준: 창학이념, 공공성, 만족도

미래사회가 요청하는 대학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새로운 지향점을 설정해야 한다. 대학이 추구하는 핵심가치가 곧 평가 기준이 되어야 한다. '미래대학리포트'를 바탕으로 Global Eminence Index의 기본 방향을 공공성을 중심으로 모색해보았다.

#### • 창학 이념과 인재상을 구현하고 있는가

대학의 창학 이념은 무엇인지, 그리고 대학의 교육, 연구, 실천이 창학 이념을 어떻게 구현하고 있는지 검증할 수 있어야 한다. 창학 이념, 즉 대학의 교육철학에 따른 인재가 어떤 교육 프로그램에 의해 양성하고 있는지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 • 공공성을 바탕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는가

대학은 학술기관이자 사회기관이어야 한다. 지역사회와 국가, 지구사회에 대한 기여도가 대학의 위상을 가늠하는 척도가 되어야 한다. 세계시민성에 관한 교육이 공공성의 근본적



“21세기 중반, 대학은 글로벌한 지식 체계로 변모해나갈 것이다. 세계의 대학 순위가 그 산출 방식에서 많은 문제점을 보이고 있음에도 그 영향력이 커진 것은 그 속에 미래 대학의 모습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 요시미 순야

### 기존 대학평가 지표 비교표 (2014년 현재)

정부(교과부)	기업(중앙일보)	QS세계평가	EU '유 멀티랭크'	경희대 GEI(안)
교육 여건	교육 여건	연구 평판도	대학 내 연구 수준	창학 이념(교육철학)
학사 관리	국제화	졸업생 평판도	교육·학습의 질	지구적 공공성
학생 지원	교수 연구	논문 당 피인용지수	국제적 성향	구성원 만족도
교육 성과	평판·사회진출도	논문인용지수(H인덱스)	지식이전 성취도	교육·연구수월성
			지역발전 기여도	인류사회 평판도

정부의 교육 성과, 중앙일보의 평판·사회진출도 평가지표에 졸업생 취업률이 포함돼 있다. EU가 추진하는 '유 멀티랭크'는 기존 대학 순위 평가의 문제점을 보완해 유럽 대학들의 질을 높이려는 목적으로 2014년 개발됐다.

발현 중 하나일 것이다. 교수들의 연구도 공공성을 추구해야 한다. 동문의 사회 진출 분야, 재학생의 사회공헌 활동도 주요 기준이 될 것이다.

#### • 구성원이 고루 만족하고 자부심을 느끼는 대학인가

대학 구성원의 희생 위에서 '명문대'로 성장하겠다는 대학은 대학이라고 말할 수 없다. 대학 발전이 구성원의 자긍심과 만족도로 이어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학술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대학 거버넌스에 대한 참여도를 측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 • 교육과 연구의 지향점과 탁월성은 어떠한가

대학의 본분은 더 나은 세계를 위해 미래인재를 배출하고 창의적 연구 성과를 제시하는 데 있다. 교육과 연구의 지향점, 교육과 연구의 파급력에 대한 질적 평가는 계속돼야 한다. 외부 전문가와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평가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 • 인류사회가 대학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인류의 미래를 가로막는 지구적 난제는 단위 국가 차원에서 해결할 수 없다. 교육과 연구의 탁월성, 그리고 그 과정과 결과가 지역과 국가를 포함해 인류사회에 긍정적 영향을 줘야 한다. 대학의 학술과 실천의 성취도를 인류사회가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 학내 공론화 이어 지구적 집단지성 창출

‘미래대학리포트’ 보고서 발간을 기점으로 집행위원회에서 실질적 운영위원회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 우선, 대학 구성원이 고루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구성해 조사 결과가 학내 중장기 발전 전략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함께 세계대학평가 지표(Global Eminence Index, GEI) 개발을 중심으로 국내외 대학, 전문가,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기구를 설립, 미래대학리포트를 지구적 차원의 대학 혁신 운동으로 확산시킨다.

### ‘미래대학리포트’ 결과 학내 공론화 사업

- 학생, 교수, 직원, 학부모, 동문, 시민 대상 보고회 및 토론회
- 서울시민대학 수강생과 경희대생 공동 토론회
- 이를 대학의 중장기 발전 전략에 적극 반영

### ‘미래대학리포트’의 대외적 연계, 확산

- 뜻을 같이하는 국내외 대학과 ‘미래리포트’ 기반의 설문조사 공동 기획
- 그 결과를 비교 분석, 국내외 대학과 공유
- 이를 GEI 개발 자료로 활용

### Global Eminence Index 개발 및 운영

- 국내외 대학, 전문가, 시민단체와 함께 GEI 개발
- GEI의 기본 방향은 ‘미래대학 핵심가치의 평가 지표화’
- 국내외 대학 사회에 적용, 이를 지구적 대학 혁신 운동으로 확대

### ‘미래대학론’(가칭) 연구

- ‘대학의 미래, 인류의 미래’를 연구하는 학술공동체 운영
- GEI와 연계된 연구 성과를 ‘미래대학론’으로 수렴, 전 세계 대학과 심화, 확대

## 부 록

- 경희미래리포트 설문지
- 개교 100주년 기념식에 보내는 메시지
- 대학의 탄생과 역사
- ‘대학다운 미래대학’을 위한 가치 탐색

**‘나’의 현재와 미래**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무엇이 오늘의 나를 만들었고, 오늘의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첫 번째 영역은 지금-여기의 나를 돌아보고, 이를 바탕으로 50년 뒤 나의 삶을 상상해보는 설문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가치를 추구하는 삶이 가장 바람직한 삶일 것입니다. 뚜렷한 가치가 있다면 영욕의 순간에도 우리는 나를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히고 나를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1. 2014년 현재 나에게 가장 소중한 가치는 무엇인가?

- ① 행복 ② 공감 ③ 정의 ④ 사랑 ⑤ 인성 ⑥ 생명
- ⑦ 건강 ⑧ 자아실현 ⑨ 자유 ⑩ 여유 ⑪ 공동체
- ⑫ 안전 ⑬ 평등 ⑭ 경제력 ⑮ 기타 (                    )

2. 50년 후 나에게 가장 소중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치는 무엇인가?

- ① 행복 ② 공감 ③ 정의 ④ 사랑 ⑤ 인성 ⑥ 생명
- ⑦ 건강 ⑧ 자아실현 ⑨ 자유 ⑩ 여유 ⑪ 공동체
- ⑫ 안전 ⑬ 평등 ⑭ 경제력 ⑮ 기타 (                    )

3. 현재 나의 가치관 형성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요인은 무엇인가?

- ① 주변 사람들 ② 책 ③ 미디어 ④ 종교 ⑤ 여가생활
- ⑥ 학교교육 ⑦ 기타 (                    )

4. 50년 후 나의 미래를 위해 현재의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 ① 경제력 ② 인간관계 ③ 전문 지식 ④ 건강
- ⑤ 기타 (                    )

5. 50년 후 나에게 초능력이 주어진다면 무엇을 위해 사용할 것인가? (예: 심리상담, 주식 투자, 전쟁 방지 등)  
(                    )

**한국사회의 현재와 미래**

‘나’는 사회적 존재입니다. 사회와 상호 교류하는 가운데 나의 삶이 영위됩니다. 두 번째 영역은 나의 일상적 삶과 직결된 한국사회를 여러 각도에서 살펴보는 설문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남북통일에 대한 예상과 더불어 가족과 결혼 제도의 변화, 고령화 및 다문화 사회에 대한 우리 구성원들의 진솔한 견해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현재 한국사회를 질곡으로 몰아넣는 문제를 톺아보고 아울러 50년 뒤 한국사회를 상상합니다.

6. 앞으로 50년 안에 남북통일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는가?

- ① 가능하다 ② 불가능하다

7. 가까운 미래에 통일이 된다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는가?

- ① UN과 같은 국제기구를 통하여 ② 남북협상으로
- ③ 전쟁으로 ④ 주변국 정세 변화에 의하여
- ⑤ 독일과 같은 방법으로 ⑥ 기타 다른 방법으로

8. 통일 한국의 지위는 어떠한 것으로 예상하는가?

- ① 완전 자주자립 ② 중국의 영향을 받음
- ③ 미국의 영향을 받음 ④ 일본의 영향을 받음
- ⑤ 국제기구의 영향을 받음 ⑥ 기타 (                    )

9. 2014년 현재 한국의 1인당 국민총생산은 세계 33위(2만4천 달러)이다. 50년 후 한국의 국민총생산은 전 세계 몇 위일 것으로 예상하는가? (                    )위

10. 현재 한국의 인구는 약 4900만 명이다. 50년 후 한국의 인구는 대략 몇 명일 것으로 예상하는가? (                    )만 명

11. 현재 국내 거주 외국인 등록자 수는 약 1백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2%에 달한다. 50년 후 국내 거주 외국인 비율은 몇 %가 될 것인가? (                    )%

12. 현재의 결혼 제도는 50년 후에 어떻게 바뀔 것으로 보는가?

- ① 현재의 제도 유지 ② 동성결혼 인정 ③ 결혼 제도 폐지
- ④ 사실혼(동거)의 법적 권리 인정 ⑤ 기타 (                    )

13. 현재 한국에서 결혼하는 부부의 10% 정도는 국제결혼이다. 50년 후에는 국제결혼이 몇 %가 될 것으로 예상하는가?  
(                    )%

14. 만혼과 비혼, 고령화 등으로 인해 국내 일인 가구 비율이 1990년 10%에서 2010년 20%로 증가했다. 50년 후 한국의 일인 가구 비율은 전체 가구의 몇 %일 것으로 예상하는가?  
(                    )%

15. 50년 후에는 한 사람이 평생 몇 개의 직업을 갖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 ① 1가지 직업 유지 ② 2~3가지 ③ 4~5가지
- ④ 6~7가지 ⑤ 8가지 이상

16. 현재 한국의 주당 평균 노동시간은 50시간 정도로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다. 50년 후 한국의 주당 평균 노동시간은 몇 시간일 것으로 예상하는가? ( )시간

17. 50년 후 한국의 재택근무 비율은 몇 %일 것으로 예상하는가? ( )%

18. 현재 한국인의 평균 수명은 82세(여자 85세, 남자 79세)이다. 50년 후 한국인의 평균 수명은 몇 세일 것으로 예상하는가? ( )세

19. 현재 한국사회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인가?

- ① 빈부격차 ② 세대갈등 ③ 지역갈등 ④ 남북갈등
- ⑤ 종교갈등 ⑥ 인종갈등 ⑦ 고령화 ⑧ 출산율 저하
- ⑨ 에너지 자원 부족 ⑩ 환경문제 ⑪ 식량 부족
- ⑫ 핵 문제 ⑬ 민주주의 위기 ⑭ 기타( )

20. 50년 후 한국사회가 직면할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라고 예상하는가?

- ① 빈부격차 ② 세대갈등 ③ 지역갈등 ④ 남북갈등
- ⑤ 종교갈등 ⑥ 인종갈등 ⑦ 고령화 ⑧ 출산율 저하
- ⑨ 에너지 자원 부족 ⑩ 환경문제 ⑪ 식량 부족
- ⑫ 핵 문제 ⑬ 민주주의 위기 ⑭ 기타( )

## 인류의 현재와 미래

경제 분야뿐만 아니라 정치, 사회, 문화, 교육, 의료, 스포츠 등 우리 삶과 관련된 모든 부문이 빠른 속도로 세계적 질서에 편입되고 있습니다. 현재 인류사회가 직면한 지구적 난제를 확인하는 일은 나의 미래를 설계하는 일과 결코 무관하지 않습니다. 이 영역에서는 자본주의 문명과 국가의 미래, 지속가능한 인류사회를 위한 핵심가치, 미래의 유망 직업, 나아가 미래 문명의 양상에 대해서도 상상합니다.

21. 2014년 현재 인류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난제는 무엇인가?

- ① 기후변화 ② 생태계 위기 ③ 인종갈등 ④ 종교갈등
- ⑤ 전쟁 ⑥ 테러 ⑦ 석유 등 화석 에너지 고갈
- ⑧ 식량 무기화 ⑨ 인구 폭등 ⑩ 질병
- ⑪ 국가 간 부의 양극화 ⑫ 기타( )

22. 앞으로 50년 후 자본주의 문명은 어떻게 될 것이라고 예상하는가?

- ① 현재와 같은 시스템을 유지할 것이다.

- ② 다른 종류의 문명과 결합해 더욱 발전할 것이다.
- ③ 완전히 다른 새로운 문명이 도래할 것이다.
- ④ 기타( )

23. 농업혁명, 산업혁명에 이은 제3의 혁명이 일어나고 있다면 그것은 특히 어떤 분야에서 강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보는가?

- ① 지식정보(IT) 분야 ② 자원 분야 ③ 생태-환경 분야
- ④ 농업, 어업, 임업 등 1차 산업 분야 ⑤ 생명공학 분야
- ⑥ 우주 개발 분야 ⑦ 기타( )

24. 가까운 미래에 제3차 세계 대전이 일어난다면 어느 지역에서 일어날 것이라고 보는가?

- ① 아시아 ② 중동 ③ 유럽 ④ 아프리카 ⑤ 북미
- ⑥ 중남미 ⑦ 기타( )

25. 앞으로 50년 뒤 인간의 폭력성은 어떠한 것이라고 보는가?

- ① 완전히 사라질 것이다. ② 대체로 약화될 것이다
- ③ 현재와 같을 것이다. ④ 대체로 심해질 것이다.
- ⑤ 매우 심해질 것이다.

26. 향후 50년 이내에 모든 폭력과 갈등이 없는 평화로운 세계 시민사회가 건설되리라고 보는가?

- ① 그렇다. ② 그렇지 않다.

27. 지속가능한 미래의 인류사회를 위해 우선적으로 실천해야 할 핵심가치는 무엇인가?

- ① 다원주의 ② 근검절약 ③ 개인의 자율성
- ④ 나눔과 봉사 ⑤ 생명 존중 ⑥ 기타( )

28. 앞으로 50년 뒤 가장 유망한 직업 분야는 무엇이 될 것이라고 보는가? (3개 이내 선택 가능)

- ① 의료 분야 ② 예술 분야 ③ 농업, 어업, 임업 분야
- ④ 우주공학 분야 ⑤ 정보통신기술 분야 ⑥ 종교 분야
- ⑦ 교육 분야 ⑧ 경영기획 분야 ⑨ 스포츠레저 분야
- ⑩ 생명공학 분야 ⑪ 건축 및 토목 분야 ⑫ 도시계획 분야
- ⑬ 정신건강 분야 ⑭ 로봇산업 분야 ⑮ 교통운송 분야
- ⑯ 각급 공무원 ⑰ 음식식료 분야 ⑱ 사회복지 분야
- ⑲ 소방안전 분야 ⑳ 수의학 분야 ㉑ 게임산업 분야
- ㉒ 기타( )

29. 앞으로 50년 뒤 가장 존경받는 인간형은 무엇이 될 것이라고 보는가? (3개 이내 선택 가능)

- ① 전문지식을 추구하는 사람
- ② 자기 개성을 완성하는 사람

- ③ 타인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
- ④ 경제적 부를 창출하는 사람
- ⑤ 탐험가 등 모험심에 불타는 사람
- ⑥ 다른 세상을 만들기 위해 도전하는 사람
- ⑦ 자연과 더불어 자급자족하는 사람
- ⑧ 기타( )

30. 앞으로 50년 후 국가의 대표적 형태는 어떠한 것이라고 예상하는가?

- ① 현재와 유사한 형태 유지
- ② 초국적 기업이 국가 기능을 압도
- ③ 국가 간 지역연합체 탄생
- ④ 세계정부 수립으로 단위국가 해체
- ⑤ 기타( )

31. 만약 세계정부가 수립된다면 최초의 '세계대통령'은 어느 종교 문화권에서 나오리라고 보는가?

- ① 개신교 ② 가톨릭 ③ 불교 ④ 이슬람 ⑤ 유교
- ⑥ 신생 종교 ⑦ 기타( )

32. 50년 뒤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될 언어는?

- ① 영어 ② 스페인어 ③ 아랍어 ④ 중국어 ⑤ 한국어
- ⑥ 새로운 세계 공용어 ⑦ 기타( )

33. 50년 뒤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지역은 어디가 될 것이라고 예상하는가?

- ① 북미 ② 남미 ③ 유럽 ④ 아시아 ⑤ 아프리카
- ⑥ 오세아니아 ⑦ 기타( )

34. 앞으로 50년 이내에 인류 문명이 외계 문명 또는 생명체와 조우할 확률은? ( )%

35. 앞으로 50년 이내에 인류가 지구 밖의 행성 또는 위성에서 새로운 문명 기지를 건설할 확률은? ( )%

## 대학과 고등교육

대학의 위기는 인간의 위기이자 인류, 문명의 위기입니다. 이 영역에서는 현재 내가 대학교육을 받는 이유에서부터 국내외 대학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알아보고 이에 기반해 미래사회가 요청하는 대학다운 대학의 요건을 살펴봅니다. 미래의 학생 선발 방식, 대학평가, 재정 확보 방안, 미래대학에서 존경받는 교수의 모습 등 구체적인 질문들도 포함돼 있습니다.

36. 현재의 내가 대학교육을 받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

- ① 취업 대비 ② 가치관 형성 ③ 인맥 확대 ④ 학벌
- ⑤ 학문탐구 ⑥ 기타( )

37. 현재의 국내외 대학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3개 이내 선택 가능)

- ① 진리탐구 ② 인간다움 추구 ③ 전공지식 전수
- ④ 취업역량 제고 ⑤ 사회공헌 ⑥ 문명사회 모색
- ⑦ 자아성찰 강조 ⑧ 다양성 추구 ⑨ 관계 형성
- ⑩ 리더 양성 ⑪ 주체성 함양 ⑫ 사고력 확장
- ⑬ 경제적 가치 창출 ⑭ 기타( )

38. 현재의 국내외 대학들이 더 나은 삶과 세계를 이룩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 ④ 그렇지 않다 ⑤ 매우 그렇지 않다

39. 현재 국내외 대학들이 더 나은 삶과 세계를 이룩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면, 대학의 어떤 기능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는가? (3개 이내 선택 가능)

- ① 진리탐구 ② 인간다움 추구 ③ 전공지식 전수
- ④ 취업역량 제고 ⑤ 사회공헌 ⑥ 문명사회 모색
- ⑦ 자아성찰 강조 ⑧ 다양성 추구 ⑨ 관계 형성
- ⑩ 리더 양성 ⑪ 주체성 함양 ⑫ 사고력 확장
- ⑬ 경제적 가치 창출 ⑭ 기타( )

40. 더 나은 삶과 세계를 이룩하는 데 기여하기 위해 미래의 대학이 가장 우선적으로 추구해야 할 가치는 무엇인가? (3개 이내 선택 가능)

- ① 진리탐구 ② 인간다움 추구 ③ 전공지식 전수
- ④ 취업역량 제고 ⑤ 사회공헌 ⑥ 문명사회 모색
- ⑦ 자아성찰 강조 ⑧ 다양성 추구 ⑨ 관계 형성
- ⑩ 리더 양성 ⑪ 주체성 함양 ⑫ 사고력 확장
- ⑬ 경제적 가치 창출 ⑭ 기타( )

41. 미래대학의 가장 바람직한 학생 선발 방식은 무엇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 ① 현재 방식 유지 ② 인성소프트폴리오 심사
- ③ 과학적 지능 측정법 활용 ④ 추첨을 통한 무시험 전형
- ⑤ 기부금 입학 ⑥ 기타( )

42. 현재와 같은 대학의 학업성취도 평가 방식에 만족하는가?

- ① 매우 불만족 ② 불만족 ③ 보통
- ④ 만족 ⑤ 매우 만족

43. 현재의 학업성취도 평가 방식에 만족하지 않는다면 어떤 평가 방식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는가?

- ① 교수자에 의한 절대평가    ② 교수자에 의한 상대평가
- ③ 평가 자체를 없앤다    ④ 학생 상호 간의 다면평가
- ⑤ 학생 개인의 자발적 평가    ⑥ 기타 (                    )

44. 대학의 재정 확보를 위한 최선의 방법은 무엇인가?

- ① 교육 상품화를 통한 영리기업화
- ② 비영리 교육기관의 정체성을 지키며 재정사업 병행
- ③ 수익자 원칙에 따른 균형 등록금 책정
- ④ 정부지원금을 통한 재정 충당
- ⑤ 기업, 동문 등 기부금
- ⑥ 모든 대학의 국공립화
- ⑦ 기타 (                    )

45. 50년 후 미래대학은 어떻게 달라질 것이라고 예상하는가?

- ① 현재와 같은 형태    ② 전면 사이버 교육 전환
- ③ 기업 형태로 전환    ④ 대학교육이 불필요해짐
- ⑤ 대학교육이 평생교육으로 전환    ⑥ 기타 (                    )

46. 대학에 대한 외부기관의 평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 ④ 그렇지 않다    ⑤ 매우 그렇지 않다

47. 50년 후에도 대학평가가 필요하다면, 평가의 핵심 요소는 무엇이 될 것인가? (3개 이내 선택 가능)

- ① 학문적 탁월성    ② 교수와 학생 관계
- ③ 대학의 사회적 기여도    ④ 취업률    ⑤ 명성 있는 교수진
- ⑥ 학교 시설    ⑦ 강의의 질적 우수성    ⑧ 인간교육
- ⑨ 대학 간의 국내, 국제적 연대    ⑩ 국내외 대학평가 지수
- ⑪ 졸업 후 인맥    ⑫ 교육프로그램의 창의성
- ⑬ 기타 (                    )

48. 미래의 대학에서 존경받는 교수의 모습은 무엇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 ① 창의적인 전문지식 연구자
- ② 강의 역량이 뛰어난 교육자
- ③ 인격 형성에 도움을 주는 정신적 스승
- ④ 사회 문제에 관심이 많은 비판적 지식인
- ⑤ 기업경영 등 실무 능력이 높은 현장형 전문가
- ⑥ 사회 진출을 도와주는 코디네이터
- ⑦ 학생의 사고력을 높여주는 뛰어난 질문자
- ⑧ 평생 교류할 수 있는 친구와 같은 존재
- ⑨ 기타 (                    )

## 경희의 현재와 미래

마지막 영역에서는 인류와 대학으로 향했던 시선을 다시 우리 쪽으로 돌립니다. 현재 '나'는 경희대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경희대에 대한 자부심은 어느 정도인가. 경희대는 어떤 역사와 전통을 가진 대학이고, 현재 어떤 인재를 키우고 있는가. 50년 뒤 경희의 모습과 세계적 위상은 어느 정도일까. 이런 질문에 답하고 상상하면서 2049년 개교 100주년을 맞게 될 후배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도 생각해봅시다.

49. 현재의 경희대학교를 종합적으로 평가한다면?

- ① 아주 좋다    ② 좋다    ③ 그저 그렇다
- ④ 좋지 않다    ⑤ 아주 좋지 않다

50. 현재 경희대학교 구성원으로서 자부심을 느끼는가?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 ④ 그렇지 않다    ⑤ 매우 그렇지 않다

51. 경희대학교가 세계평화에 기여하고 있다고 보는가?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 ④ 그렇지 않다    ⑤ 매우 그렇지 않다

52. 경희대학교가 대학을 둘러싼 사회 환경 변화에 어떻게 대처한다고 보는가?

- ① 매우 능동적으로 대처한다    ② 능동적으로 대처한다
- ③ 보통이다    ④ 수동적으로 대처한다
- ⑤ 매우 수동적으로 대처한다

53. 경희대학교의 강점은 어떤 부문에 있다고 생각하는가?

- ① 교양교육    ② 전공교육    ③ 융복합 분야
- ④ 대학원 교육    ⑤ 국제화    ⑥ 교수의 연구 역량
- ⑦ 사회적 실천    ⑧ 동문의 사회 진출    ⑨ 기타 (                    )

54. 경희대학교의 약점은 어떤 부문에 있다고 생각하는가?

- ① 교양교육    ② 전공교육    ③ 융복합 분야
- ④ 대학원 교육    ⑤ 국제화    ⑥ 교수의 연구 역량
- ⑦ 사회적 실천    ⑧ 동문의 사회 진출    ⑨ 기타 (                    )

55. 현재 경희대학교의 가장 경쟁력 있는 전공 분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① 교양    ② 인문학    ③ 사회과학    ④ 자연과학
- ⑤ 응용과학    ⑥ 공학계열    ⑦ 의학계열    ⑧ 예술
- ⑨ 체육    ⑩ 기타 (                    )

56. 50년 후 경희대학교의 가장 경쟁력 있는 전공 분야는 무엇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 ① 교양   ② 인문학   ③ 사회과학   ④ 자연과학
- ⑤ 응용과학   ⑥ 공학계열   ⑦ 의학계열   ⑧ 예술
- ⑨ 체육   ⑩ 기타(            )

57. 현재 경희대학교는 어떤 능력을 갖춘 인재 양성에 주력하고 있다고 보는가?

- ① 소통 능력   ② 인문학적 소양   ③ 창의적 문제해결력
- ④ 융합 능력   ⑤ 합리적 사고력   ⑥ 시민적 실천 능력
- ⑦ 미래 예측 능력   ⑧ 리더십   ⑨ 협동심
- ⑩ 기타(            )

58. 50년 후 경희대학교는 어떤 능력을 갖춘 인재 양성에 주력 할 것으로 예상하는가?

- ① 소통 능력   ② 인문학적 소양   ③ 창의적 문제해결력
- ④ 융합 능력   ⑤ 합리적 사고력   ⑥ 시민적 실천 능력
- ⑦ 미래 예측 능력   ⑧ 리더십   ⑨ 협동심
- ⑩ 기타(            )

59. 50년 후 경희대학교가 추구해야 할 핵심가치는 무엇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가? (3개 이내 선택 가능)

- ① 진리탐구   ② 인간다움   ③ 전공지식 전수
- ④ 취업역량   ⑤ 사회공헌   ⑥ 문명사회 모색
- ⑦ 자아성찰   ⑧ 다양성   ⑨ 관계 형성
- ⑩ 리더 양성   ⑪ 주체성 함양   ⑫ 사고력 확장
- ⑬ 경제적 가치   ⑭ 기타(            )

60. 2014년 현재 경희대학교 총장이 지녀야 할 필수 덕목은 무엇인가?

- ① 경영능력   ② 교육철학   ③ 전문지식   ④ 미래비전
- ⑤ 리더십   ⑥ 기타(            )

61. 50년 후 경희대학교 총장이 지녀야 할 필수 덕목은 무엇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가?

- ① 경영능력   ② 교육철학   ③ 전문지식   ④ 미래비전
- ⑤ 리더십   ⑥ 기타(            )

62. 50년 후 경희대학교의 세계대학순위는 몇 위일 것으로 예상하는가?

(            )위

63. 앞으로 50년 이내에 경희대학교 구성원 또는 졸업생이 노벨 상을 받는다면 어느 분야가 최초가 되겠는가?

- ① 평화   ② 경제학   ③ 화학   ④ 생리학
- ⑤ 문학   ⑥ 물리학

64. 앞으로 50년 이내에 경희대학교의 해외 캠퍼스가 세워진다면 어느 지역에 최초로 세워지겠는가?

- ① 북미   ② 남미   ③ 유럽   ④ 아시아   ⑤ 아프리카
- ⑥ 오세아니아   ⑦ 기타(            )

65. 50년 후에 경희대학교에 재학 중인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            )



## 경희 100년 미래메시지: 개교 100주년 기념식에 보내는 메시지

친애하는 경희 후배 여러분.

나는 경희학원 설립자로서 오늘 개교 제15주년 기념 제9회 학원 제 식상에서 경희학원을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1만 5,000명의 경희가족과 더불어 본교 노천극장에서 이러한 '메시지'를 개교 100주년을 맞아 그 당시의 재단이사회 임원과 대학총장, 각급 학교장 그리고 온 교직원과 재학생 및 졸업생에게 보내게 되는 것을 더없는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발의의 취지는, 첫째 경희학원을 설립한 사람으로서 장학정신과 교육방침을 여러분에게 바로 전달하려는 뜻에서이며, 둘째 시대가 다르기 때문에 정신상으로 소원해지기 쉬운 우리의 상호관계가 더욱 가까워질 수 있게 하길 바라는 마음에서이며, 셋째 내가 뜻한 바 '세계적인 대학 건설'이라는 큰 목표가 현명한 여러분들에 의해서도 계속 추진됨으로써 학술 발전을 통한 인류의 문화 향상과 복리 증진, 나아가서는 세계평화 건설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달라는 뜻에서이며, 넷째 현금<sup>1)</sup> 사회의 제문제점을 모아 여러분에게 알릴 뿐만 아니라 또 이 시대에 살고 있던 사람들의 미래사회에 대한 관측을 종합하여 알려줌으로써 과거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한 여러분의 연구에도 참고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비롯한 것입니다.

현 시점에서 국내외 정세를 일고해볼 때 우리는 확실히 세기적 진동기에 처해 있다고 하겠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종식된 지 어언 20년이 가까워오는 동안 동서 양 진영의 긴장은 아직도 일진일퇴하여 해소되지 않은 채로, 우리 지구상에는 어간<sup>2)</sup> 국지전 쟁만 해도 무려 30여 회에 걸쳐 벌어졌던 것이며 한국, 독일, 중국, 베트남이 아직도 2차대전에 의해 양단된 채 어느 한 나라도 통일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언제 또 어디서 무서운 3차대전이 발발하여 인류를 원자섬멸전<sup>3)</sup>으로 몰아넣어 지각을 터뜨릴지도 알 수 없는 현금에, 세계 인구의 약 60퍼센트가 저녁에 배가 고품을 참고 침상에 들지 않으면 안 되는 실정 하에, 인구 증가는 더욱 우심하여져<sup>4)</sup> 근래에 와서는 약 30년마다 2배가 되고 있는 실정이고 보면, 앞으로는 무엇인가 근본 대책을 강구하지 않고서는 수습될 수 없는 결과가 오지 않을까 심히 우려되는 바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생각나는 것은, 14세기 르네상스 시대의 이탈리아 서정시인 페트라르카(Petrarca)는 자기보다 약 천 년 전에 살던 로마 시성(詩聖)들에게 과거보다도 더 암흑한 사회에 살고 있는 자신을 탄탄하여 읊소했는가 하면, 18세기 프랑스의 계몽 철학자 디드로(Diderot)는 수백 년 후에 생을 영위할 후손들에게 보내는 글 속에서 세계는 과학문명의 발전으로 말미암아 유평피

아를 이룰 것이라고 단정해 말했던 것입니다.

확실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국<sup>5)</sup>은 비관도 낙관도 능히 같이할 수 있을 만한 세계라고 생각됩니다. 저 처절하였던 2차대전이 있던 후 계속하여 오늘날까지 어려운 세국<sup>6)</sup>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만난<sup>7)</sup>'을 박차고 근 20년간 강대국이나 약소국은 한결같이 인류 사상 처음 보는 대건설의 붐을 지구상의 구석구석마다 일으키고 있었으며, 또 인류의 생활수준도 급속도로 향상되어가고 있는 것을 나는 지금까지 70여 개국을 친히 여행하는 가운데 직접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선악이 있어서 인간을 인간다운 길로 갈 수 있게 하는 것처럼, 인간사회에는 정사<sup>8)</sup>와 고락이 있어서 정의의 대도로 나가게 하는 요묘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 속에 인간의 자기완성을 위한 노력이 있고, 사회정의와 사회복지 및 인류평화를 위하여 가치를 모색하고 창조하는 인류의 대의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즉 역사상에 남아 있는 모든 인류의 값 있는 기여와 업적은 대부분이 이 속에서 창조되어나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미국의 클라렌스 웨임스(Clarance Weems) 교수는 자기 저서를 통하여 한국민은 언제나 국난을 당하여 어려움에 처하면 더욱 강하게 되어 모든 난관과 시련을 잘 극복하고 찬란한 업적과 문화를 창조한다고 하였습니다. 사실 신라가 고구려와 백제의 협공을 받아가며 삼국을 통일했고, 그 후 당나라의 압박과 위협을 받아가며 그 찬란한 신라문화를 창조하였으며, 또 세종대왕도 여진족의 침입을 막기 위하여 총력을 기울여 함경도에 육진 개척을 하면서 문화 창업을 이룩하였던 것입니다.

오늘의 세계에는 확실히 지나치게 발달된 핵무기와 신예 과학병기, 그리고 극도로 대립된 이데올로기와 지도자의 지나친 공명심, 또 인구문제 등 허다한 아포리아(aporia)가 우리의 광명을 차단하여 암흑으로 뒤덮고 있지만, 우리는 그 검은 먹구름 뒤에는 여전히 우리의 생명을 불어넣어주는 눈부신 광명이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선의 보편의지가 있는 동안 '궁즉통이요 통즉달이요 달즉개<sup>9)</sup>'라는 인간사회의 평범한 진리가 우리에게 뚫고 살아나 아갈 계제<sup>10)</sup>를 장만하여주는 줄도 압니다. 우리는 어디서나, 어떤 때에나 양심을 잡고 이성애 살아야 합니다. 지나친 낙관도 지나친 비관도 우리 인간에게 금물입니다. 오직 이성을 쫓아 인류의 대도를 걸어가는 동안 모든 인간의 어려움은 스스로 극복되고 인류의 문화는 창조될 것입니다.

우리 경희의 오늘은 이 속에서 잉태되었고 이 속에서 창조되었고

다고 하겠습니까. 경희의 역사야말로 고난 위에서 이루어진 하나의 이적<sup>11)</sup>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세간에서는 우리 경희대학이 불과 십수년 동안에 조그마한 초급대학에서 대종합대학이 되고, 또 유치원에서부터 국민학교, 남자 중고등학교, 여자 중고등학교와 초급대학에 이르기까지 부속 교육기관을 건립하여 한국에서 제일 큰 규모의 종합학원이 되었다고 하여 모두들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경이 대학'이라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10년 전만 해도 적막한 무명의 산골짜기에 황폐했던 그 터가 대학 캠퍼스로서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교육환경이 되었고, 또 그 시설이 동양적인 규모에 이미 도달하였으며, 각급 부속학교를 비롯하여 대학의 질적 수준이 우리나라에서도 뛰어난 위치에 이르게 되고 보니 가히 그럴 만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빛나는 공적은 결코 나에게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나의 경애하는 대학의 간부들과 교수, 직원 그리고 내가 무한히 아끼는 재학생들과 졸업생들의 협력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클라렌스 워스 교수가 지적한 그대로 우리도 혈통을 이어받은 한민족이기에 고난과 역경이 크면 클수록 더욱 뭉쳐 강해졌던 것이며, 우리의 일사불란한 애교심과 경희정신은 오늘의 기적 아닌 기적을 낳게 하였다는 것을 후배 여러분에게 힘주어 말하고 싶습니다.

새로운 창익과 끊임없는 노력 즉 창의적인 노력은 우리 경희정신의 첫머리요, 고난에 도전하고 역경에 감투하는 남아의 호연지기 즉 진취적 기상은 그 둘째요, 평화와 문화 복지 건설의 기틀을 단결에서 구하는 것 즉 건설적인 협동은 그 셋째가 되는 것입니다.

'인간 이전에 학문이 있을 수 없고 인간 위에 학문이 있을 수 없다'는 평소 나의 지론은 인간교육을 우리 대학교육방침의 첫째로 정하게 하였으며, 법이 있기 전에 사회가 있고 도덕이 있음을 강조하여 폭넓고 부드러운 정서생활을 권장하는 우리는 '자연을 사랑하자, 자연에서 배우자, 자연에서 살자'고 하는 모든 정서교육을 그 둘째로 정하였으며, 과학의 발전에 뒤떨어지지 않게 문명의 이기를 활용하는 생활의 과학화와 모든 일에 효율성과 타당성을 기하는 행동의 합리화 즉 과학화를 주장하는 과학교육이 그 셋째가 되었고, 봉건적 풍조를 일소하고 새로운 민주 기풍에 살 수 있는 인간 도야를 위한 '학원의 민주화, 사상의 민주화, 생활의 민주화'를 골자로 하는 민주교육이 그 넷째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여사한<sup>12)</sup> 이상과 창학정신을 보다 빠른 시일 내에 실현하기 위하여 경희가족운동과 보다 나은 대학 건설운동을 전개키로 하였습니다.

경희가족운동은 우리의 목표를 향해 대동단결하자는 뜻에서 교직원과 재학생 및 졸업생, 나아가서는 그의 가족인 학부형까지도 한 가족이 되기로 약속한 것이며, 둘이 모이면 힘이 이분되고 셋이 모이면 힘이 삼분된다는 역현상을 가져오는 우리 민족의 고질 즉 분열파쟁<sup>13)</sup>을 시정하여 우리도 단결하여 살 수 있는 새로운 풍토를 마련하여보자는 데 주안을 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바라는 것은 학원 내에서뿐만이 아니라 학생들이 졸업 후 사회로 나아가서도 그가 있는 직장에서, 향리에서 우리의 가족운동이 국민의 애족단합운동으로 확대되어 방방곡곡에 메아리치게 하자는 것이며, 보다 나은 대학 건설운동은 우리의 목표 성취를 위하여 모두가 목적의식을 통일하고 각자 자기 책임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동시에 중흥의 유기적인 제휴와 협력을 얻음으로써 일의 완벽을 기하며 차선을 지향하는 점진개신주의로써 최후의 목표를 도달하자는 것입니다. 전체의 발전을 기하기 위하여서는 아무리 뛰어난 부분적 성취라 할지라도 완전한 종합적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뜻에서 힘의 총동원으로 협동적 위력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인 세계적인 대학 건설이 영영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단정은, 다른 나라에서 그러한 사실이 이미 이루어진 것과 같이 우리도 기쁘고 노력하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다는 논리에 기초한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 적수공권<sup>14)</sup>으로 오늘의 대경희를 만든 데 비하면 앞으로의 노정은 더욱 손쉬운 일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러나 쉬운 일이 도리어 인간에게 어려운 일이 되는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그것을 잊지 않고 마음에 간직하는 동안 반드시 우리의 뜻은 우리의 손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을 확신하며, 불연이면<sup>15)</sup> 적어도 우리들의 후배인 여러분들의 손에 의하여서는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고차원적인 정신문화의 향상과 최고도의 과학문명 발달로 복지사회를 이루어 우리 인류의 영원인 지상의 낙토 즉 문화세계를 이 세상에 창건해야 한다는 것은 인류의 지상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것은 오로지 고도로 발달된 교육의 힘에 의하여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심오한 학술 연구와 국가사회의 지도자 양성을 전담하고 있는 학부의 사명이 얼마나 중차대하다고 하겠습니까.

친애하는 나의 후배 여러분.

송고한 인류의 사명을 되새겨봅시다.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이고 또 무엇을 어떻게 행해야 하는가를.

민족적, 인류적 대임을 자각하고 우리의 심혈을 경주하여 키워 온 이 학원을 여러분들도 아끼고 사랑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 겨레와 나아가서는 인류사회에 크게 공헌할 수 있는 학원이 되도록 키워주셔야 할 것입니다.

이 글을 여러분에게 보낼 때 생존해 있던 나를 포함하여 교수와 직원 그리고 재학생들 중에서도 여러분이 100주년 기념식을 거행하는 그때에는 이미 유명을 달리하여 이 자리에 없게 될 사람이 대부분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비록 유명을 달리하였다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은 여러분과 항상 같이 있을 것이며, 또 여러분을 저세상에서나마 힘껏 돕고 축복하면서 이 학원을 같이 여러분과 같이 지킬 작정이오니 부디 경희정신으로 감투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비록 지금 우리가 여러분이 우리의 위<sup>6)</sup>를 이어 앞으로 이루어놓을 업적을 육안으로 직접 볼 수는 없으나, 우리의 능력에 못지않은 여러분일 수 있기에 경희의 웅장한 미래상은 지금 우리의 심안을 가득히 채워주고 있는 감을 느끼게 합니다.

끝으로 우리 경희학원의 무궁무진한 발전과 후배 여러분의 행복과 건투를 경건한 마음으로 빌며 여기에 서명하여, 나는 이 글을 개교 100주년을 맞는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바입니다.

서기 1964년 10월 2일

경희학원 설립자 조 영 식

1. 현금(現今) 바로 지금.
2. 여간(於間) 시간이나 공간의 일정한 사이. '그동안'의 뜻으로 새길 수 있다.
3. 원자심열전 '원자폭탄에 의해 인류가 말살되는 전쟁'이라는 뜻.
4. 우심(憂憂)하다 더욱 심하다.
5. 현국(現局) 현재의 사국이나 국면.
6. 세국(世局) 세상이 돌아가는 형국.
7. 만난(萬難) 온갖 어려움.
8. 정사(正邪) 바른 일과 사악한 일을 아우르는 말.
9. 궁즉통, 통즉달, 달즉개(窮則通, 通則達, 達則開)  
'매우 궁한 처지에 이르면 도리어 떠나갈 방법이 생기고, 통하면 (목표에) 도달할 수 있으며, 도달하면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10. 계제(階梯) 본디 '사다리'라는 말이지만 여기서는 '어떤 일을 할 수 있게 된 형편이나 기회'를 뜻한다.
11. 이적(異跡) 기이한 행적, 기적.
12. 여사(如斯)하다 이렇하다.
13. 분열파쟁(分裂派爭) 분열은 '집단이나 단체, 사상 따위가 갈라져 나뉘는, 파쟁은 '파벌끼리 다투는' 뜻.
14. 적수공권(赤手空拳) 맨손과 맨주먹. 곧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는 뜻.
15. 불연(不然)이면 그렇지 않다면.
16. 위(爲) 어떤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것.

# 대학의 탄생과 역사

## 1. 대학은 무엇인가

사전적 정의에 따르면, 대학은 교수자와 학습자의 공동체로서 전문 지식과 학문·예술의 교육과 연구를 담당하면서, 학사와 석사와 박사 과정의 학위를 수여하는 고등교육기관이다. 대학은 일반적으로 유니버시티(university)라고 불리는데, 이는 학문적 보편성을 의미하는 라틴어의 유니베르시타스(universitas)에서 유래했다. 12세기 중세 유럽에서 고등교육 제도가 확립되기 시작할 때의 대학은 학생조합과 교수조합이 결합된 공동체를 의미했다. 그 후 천년 가까이 변화하고 발전해온 대학의 본질은 교수와 학생의 자유로운 배움 공동체로서 진리 탐구와 학문 연구를 수행하는 공간이다.

## 2. 고대의 대학

대학이 진리탐구의 이념을 바탕으로 학문 연구와 교수 활동이 이루어지는 고등교육기관이라는 점에서, 그 본질 목적에 걸맞은 대학의 원형은 고대 그리스의 아카데미아(Academia)와 리세움(Lyceum)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카데미아는 기원전 390년경 플라톤이 아테네의 아카데미아 숲에 세운 학교이다. 플라톤은 그곳에서 제자들과 함께 선의 이데아(=진리탐구)를 추구하며 정신적 도야를 위해 노력했다고 알려졌다. 1000년 정도 존속된 아카데미아는 진리탐구를 위한 교수-학습공동체였다. 하나의 주제를 놓고 선생과 학생이 자유롭게 토론하고 비판적인 대화를 주고받으며 인간과 세계에 대해 참된 지식과 이론을 발견해나가는 교육과정이었다.

플라톤의 아카데미아와 함께 대학의 원형으로 여겨지는 리세움(Lyceum)은 아리스토텔레스가 기원전 334년에 설립한 교육공동체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학생들과 함께 정원을 자유롭게 거닐면서 진리에 대해 토론하고 탐구하며 가르쳤다. 그렇기 때문에 에피쿠로스학과와 함께 대표적인 소아학파(peripatiker)라고 불리기도 한다.

고대 중국의 고등교육기관으로, 주나라(BC 1046~BC 256) 때 귀족 교육을 위해 건립한 '대학(大學)'을 들 수 있다. 수신(修身)을 중심으로 지식과 체육을 결합해 전인교육을 실시했는데, 그 구체적인 교육 내용은 정심성의(正心誠意), 수기치인(修己治人), 격물치지(格物致知), 육례(六藝) 등이었다. 현명한 정치인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기관이었다.

인도에서는 베다 시대(BC 2000~BC 600) 이후 계급적이고 종교적인 성격이 강한 고등교육이 시작된다. 제1계급인 브라만 계층의 전통과 종교의식의 전수가 주된 교육 목표였다. 베다(veda) 암송, 제식 학습, 명상, 금욕 훈련 등의 교육이 이루어졌다. 베다 학습을 통해 독법, 발음학, 음성학, 음률학, 문법, 어원학 등이 전

수했으며, 금욕의 방법으로는 8가지 단계의 요가가 행해졌다.

한국의 경우, 고구려 소수림왕 때인 서기 372년 '태학(太學)'이 국립 고등교육기관으로 설립되었다. 그 후, 고려의 국가감과 조선의 성균관이 국가 주도의 고등교육과 인재 양성을 담당했다. 이 기관들은 자유로운 학문 연구나 진리 탐구보다는 왕권 강화를 위한 지배 계층의 자녀 교육이나 관리 양성을 목표로 설립되었다.

## 3. 중세의 대학

중세 유럽의 대학을 대표하는 '최초의 대학'은 이탈리아의 볼로냐대학(1088년)과 프랑스의 파리대학(1109년)이다. 11세기 말 유럽에서는 십자군 전쟁을 치르는 과정에서 상업과 도시가 발달하고 동서양 간의 문물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학문의 르네상스'가 일어났다. 이것이 중세 대학의 탄생 배경이다.

십자군 전쟁 이전에 유럽의 고등교육은 '문법, 수사, 논리'의 3학과 '산술, 천문, 기하, 음악'의 4과를 포함한 7자유학과(seven liberal arts)에 한정되었다. 그러나 십자군 전쟁을 치른 후 새로운 지식이 대량 유통되고 그리스-로마 시대의 철학과 법학, 의학 서적들에 대한 탐구가 활발해지기 시작했다. 법학, 신학, 윤리학, 의학 등의 고전을 주해하고 교육하는 뛰어난 교사들의 존재가 알려지면서 그 도시들에 유럽 각지의 학생들이 모여들었다. 학생들은 공존, 공생, 협력을 표방하며 이탈리아의 동업조합인 '길드(guild)'를 모방해 '대학(universitas)'을 결성하게 된다.

태동기의 대학은 '도시의 자유'를 기반으로 '지성의 자유'가 역동적으로 작동하던 협동의 공간이었다. 대학은 교수조합(college)과 학생조합이 결합된 형태의 자율적 단일공동체 형태로 발전했다.

교수조합과 학생조합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자격 확인이 필요했는데, 그 자격증은 학식의 증명인 동시에 교수의 면허장이었다. 교수는 가입면허장 취득으로, 학생들은 학식 증명(=수강증명서)으로 가입자격증을 획득했다. 이때의 증명서였던 '교수 면허(licentia docendi)'가 대학에서 수여하는 학위의 최초의 형태이다. 교수와 학생의 학문공동체로서, 중세의 대학은 국가나 시(왕이나 교황)의 지원 하에 병역 면제와 세금 감면 등의 특권을 인정받았다. 외부 세력, 예컨대 국가나 교회의 통제와 간섭을 받지 않는 자치권과 학문의 자유를 보장받았다.

### • 볼로냐대학: 1088년 설립

이탈리아 북부 볼로냐에 위치한 볼로냐대학은 1088년에 설립되었다. 유니버시티라는 단어를 최초로 사용한 곳이며,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대학이다. 대학 모토가 '모든 학문이 퍼져 나간 곳(Alma Mater Studiorum)'일 정도로 역사에 대한 자부심이 강하

다. 1158년 신성로마제국의 황제 프리드리히 1세의 칙령을 통해 교육기관으로 공식 인정됐다. 법학이 유명하며, 13세기 후반 법학, 의학, 철학, 신학 등으로 교육 범위가 확대되었다. 세계 최초로 해부 실험과 연구를 수행한 대학이다.

#### • 파리대학: 1109년 설립

프랑스 파리에 위치한 파리대학은 신학으로 유명하다. 1109년에 설립됐으며, 1215년 파리공교회에 소속학교 등을 모체로 '공식 학교' 인정을 받았다. 성직자 신분의 교수조합과 학생조합의 동업조합으로 출발했으며, 학사과정(자유학부) 3학(문법, 수사, 논리)과 4과(산술학, 기하학, 천문학, 음악)를 교육했다. 이때의 편제는 예술, 의학, 법학, 신학 등 4개 학부였다.

13세기에 들어와 로베르 드 소르본(1201~1274) 신부가 신학생들을 위한 기숙사 겸 연구소로 소르본 학사를 세우면서 '소르본'이라는 이름이 파리대학교를 대신하는 의미로 사용됐다. 1968년의 '68혁명'을 겪은 후, 파리대학교는 1970년 해체된다. 현재는 13개의 자치 대학 및 학부로 남아 있다.

#### • 옥스퍼드대학: 1167년 설립

옥스퍼드대학교는 현존하는 대학에서 두 번째로 오랜 역사를 갖고 있으며, 영어권에서 가장 오래된 대학이다. 1096년 헨리 2세가 영국 학생들의 파리 유학을 금지한 후 영국의 고등교육이 움트었으며, 마침내 1167년 옥스퍼드대학이 설립되었다. 13세기 들어서 대학을 구성하는 유니버시티칼리지, 베일리얼칼리지, 이튼칼리지 등이 세워졌다.

옥스퍼드대학 설립 초기에는 학생과 시민 간의 격격한 충돌이 잦았다. 1209년에 설립된 케임브리지대학은 옥스퍼드 시민들과 분쟁을 일으킨 학자들이 연구를 목적으로 케임브리지에 모여든 데서 출발한다.

옥스퍼드대학의 교육 내용은 자연철학, 도덕철학, 형이상학 등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을 기본으로 삼았다. 19세기에는 존 헨리 뉴먼 교수를 중심으로 교양교육을 강조하고, 가톨릭 전통 회복을 통한 영국 국교회 쇄신을 주장하는 옥스퍼드운동이 일어난다.

#### • 살레르노대학: 1231년 설립

이탈리아 동남부에 위치한 살레르노대학은 의학으로 유명하다. 10~13세기에 명성을 얻었던 살레르노의학교가 전신이며, 1231년 프리드리히 2세의 칙령에 의해 대학으로 정식 승인되었다. 아라비아 의학의 영향이 커지면서 19세기 초 폐쇄되었다가 1970년에 다시 재건되었다.

#### • 성균관: 1289년 설립

'성균'이라는 명칭은 고려 충렬왕 때인 1289년에 처음 사용되었으며, 당시 최고의 교육기관인 '국자감(國子監)'의 명칭을 대체했다. 그 후 1308년(충선왕 1년)에 '성균관'으로 개칭되었다가 공민왕 때 '국자감'으로 명칭이 환원되고, 1362년 다시 '성균관'으로 재명명되었다. 성균관은 '태학(太學)'과 '반궁(泮宮)'으로도 지칭된다.

조선 시대의 교육 제도는 과거 제도와 긴밀히 연결된다. 초시인 생원시와 진사시에 합격한 유생(儒生)에게 우선적으로 성균관 입학 기회를 주었다. 성균관 유생의 정원은 조선 개국 초 150명이었으나, 1429년(세종 11년)부터 200명으로 정착된다.

유생은 기숙사 격인 동재와 서재에서 생활했다. 출석 점수 원점을 300점 이상 취득해야 대과 초시에 응시할 수 있었다. 자치 활동 기구로 '재회'가 있었는데, 유생은 기숙사 생활을 하는 동안 국가로부터 학전(學田)과 외거노비(外居奴婢) 등을 제공받았다. 당대의 학문과 정치 현실에 반응하여 문묘종사(文廟從祀)나 불교 숭상 움직임에 대해 집단 상소를 올리기도 했다.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일종의 동맹 휴업인 권당(捲堂·수업 거부) 또는 공관(空館) 등의 실력 행사를 하기도 했다. 조선 전기 학문의 전담이자 관리의 모집단이 성균관이었다.

#### • 서원: 1542년 설립

서원은 조선 중기 이후 명현(明賢)을 제사하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전국에 세운 사설 기관이다. 1542년(중종 37년) 경상도 풍기군수 주세붕이 고려 유교의 중흥자인 안향의 옛집에 사우(祠宇)를 세워 제사를 지내고 경적(經籍)을 구입해 유생들을 교육하면서, 사와 재를 겸비한 최초의 백운동서원(白雲洞書院)이 되었다. 이후 퇴계 이황이 풍기군수로 와서 중국의 백록동 고사처럼 사액(賜額)과 전토(田土)를 주도록 조정에 건의했다. 이후 명종은 1550년 백운동서원에 '소수서원(紹修書院)'이라고 친필로 쓴 액(額·간판)과 서적을 하사하고 학전(學田)과 노비(奴婢)를 제공했다. 이들 토지와 노비에 대한 면세와 면역의 특권을 내린 것이 사액서원(賜額書院)의 시초가 되었다.

초기의 서원은 인재를 양성하고 선현과 향현의 제사를 지내며 유교적 향촌 질서를 유지하고, 현실 정치를 비판하는 사람의 공적 담론을 형성하는 등 긍정적인 기능을 담당했다. 하지만 수백 개의 서원이 증설되면서 혈연과 지연, 학벌과 사제와 당파 관계 등이 연결돼 지방 양반층이 이익 집단화하는 경향을 보였다. 유명한 서원으로는 도산서원(陶山書院), 송악서원(松嶽書院), 화양서원(華陽書院), 만동묘(萬東廟) 등이 있다. 1864년(고종 1년) 대원군은 서원에 대한 일체의 특권을 없애고 서원의 설치를 엄금했다. 1865년 5월 대표적인 서원인 만동묘와 화양서원을 폐쇄한 이후 적극적으로 서원의 정비를 단행해 사표(師表)가 될 만한 47개소의 서원만 남기고 모두 철거했다.

## 4. 근대의 대학

### · 칸트와 훔볼트의 대학 정신

근대 대학의 새로운 변화를 담아낸 표현은 '자유'이다. 이는 양심의 자유, 인간의 자유를 의미한다. 임마누엘 칸트(1724~1804)는 그의 대학론을 담아낸 『학부 간의 분쟁』(1798)에서 철학의 위치를 강조하며 신학, 법학, 의학 등 상급 학부의 지배로부터 자유로운 대학을 상상한다. 철학이 신학이나 교회의 통제를 받지 않고 이성의 지배를 받는 자유로운 학문이기 때문에 이성의 이름으로 상급 학부를 견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철학의 중심은 모든 배움의 조건인 진리이지만, 상급 학부의 가르침은 국가 차원의 실용성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이다. 칸트는 실용 지향적인 상급 학부의 교육과 연구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가를 판단하고 비판하는 철학의 기능을 통해 대학을 진리의 길로 인도할 수 있다고 보았다. 대학은 철학이 지배하는 곳이자 자유로운 논쟁의 공간이어야 하고, 학문의 자유와 자율인 철학의 본질 위에 대학이 정립해야 함을 강조했다.

칸트가 내세운 '이성 중심의 대학'은 19세기에 들어와 훔볼트의 '민족문화 중심의 대학'으로 대체되었다. 1810년의 베를린대학 설립은 연구 중심인 근대 대학의 출발을 의미한다. 연구 중심 대학이란 전통적인 지식과 가치를 전달하는 고전적 의미의 대학에서 벗어나, 새로운 연구를 통한 지식의 창조와 발명을 사명으로 한다. 칸트의 대학이 이성을 섬기는 대학이라면 베를린대학은 민족 부흥을 섬기는 국가의 대학이다. 1806년 프러시아는 프랑스와의 예나전쟁에서 패한 이후 정신적 공황기를 맞게 되는데, 민족의 정체성과 자존심을 회복하기 위해 정신적 가치를 책임질 새로운 대학을 설립했다.

베를린대학 초대 총장인 피히테는 『독일 민족에게 고하는 글』에서 민족을 위한 개인의 헌신, 교육을 통한 민족혼의 부활을 요구했다. 베를린대학은 학문과 민족을 아우르는 개념으로 '문화'를 내세웠다. 패전국 독일에서는 '거대 식민 제국'으로 발전한 프랑스의 '문명' 개념에 맞서는 중요한 정신적 가치로 '문화'를 이해했다. 여기서 문화란 모든 정신적이고 지적인 행위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과학적 탐구와 학문 연구를 통한 인격 수양을 모두 문화를 이루는 과정으로 보았다.

빌 레딩스는 대학의 근대적 재탄생을 칸트의 '이성의 대학'에서 훔볼트의 '문화의 대학'으로의 전개로 요약한다. 그 후 민족국가의 종말과 함께 베를린대학의 모델은 사라졌으며, 그 빈 자리를 기업형 모델이 차지했다고 본다. 대학이 민족이라는 이념과 문화라는 가치에서 벗어나 '이윤과 경쟁'을 이념으로 받아들여, 기업적 경영을 모델로 삼게 되었다는 것이다. 결국 자본주의 세계화 시대의 대학의 모습을 '황량한 폐허' 속에 거주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 · 베를린대학: 1810년 설립

베를린훔볼트대학(Humboldt-Universität zu Berlin)은 근대 대학의 효시로 평가받는다. 베를린대학의 학문적 자유와 문화 연구 중심의 이념은 유럽과 미국 대학들로 퍼져갔다. 베를린대학은 교육부장관이자 언어학자인 빌헬름 폰 훔볼트(1767~1835)의 제의를 받아들여 프리드리히 빌헬름 3세의 칙령으로 1810년에 설립되었다. '근대 대학의 아버지'로 평가받는 훔볼트는 대학 설립의 책임을 맡으면서 신학부장 솔라이어마허, 철학부장 피히테 등의 『대학론』과 『학문론』을 수용, '정치 권력에 제약받지 않는 교수의 자유와 학문의 자유'를 설립 이념으로 삼았다. 52명의 교원과 256명의 학생으로 문을 열었으며, 개교 당시 철학부, 신학부, 법학부, 의학부가 개설되었다.

1828년에는 프리드리히-빌헬름대학(Friedrich-Wilhelms-Universität)으로 이름을 바꾸고, 제2차 세계대전 중 잠시 폐교되었다가 1946년 소련 군정에 의해 베를린대학교로 다시 개교했다. 1947년부터 1948년 봄 사이에 대학 교수와 학생들이 동독의 엄격한 통제와 학생운동에 대한 탄압을 피해 서베를린으로 넘어갔다. 그들은 1948년 12월 서방측 점령국의 지원을 받아 베를린 자유대학교(Freie Universität Berlin)를 설립했으며, 1949년 훔볼트를 기리기 위해 훔볼트대학교로 개명했다.

### · 런던대학: 1836년 설립

런던대학은 1836년 영국 국왕의 특허장에 의해 유니버시티칼리지와 킹스칼리지 학생들을 대상으로 시험을 실시하는 '학위 수여기관'으로 설립되었다. 유니버시티칼리지는 1826년 존 스튜어트 밀 등의 자유주의자와 영국 비국교도가 세운 비종교 대학이며, 킹스칼리지는 영국 성공회가 1829년에 세운 종교대학이다. 이 두 대학은 잉글랜드에 설립된 민간 대학으로, 중산계급의 자제들을 대상으로 자연, 사회, 인문학 분야의 학문을 교육했다.

런던대학의 자체 교육 없이 학위만을 수여하는 기능은 1849년 국가로부터 '보충 인가장(Supplemental Charter)'을 받으며 더욱 확대되었다. 1878년부터는 여성에게도 학위를 수여하기 시작했다. 이후 1898년 '런던대학법'이 제정됨에 따라 1900년부터 자체적으로 연구와 교육을 실시하는 대학이 되었다. 현재 런던대학교는 18개 대학 및 대학원과 10개 연구원으로 구성된 연합대학이며, 학생 수 기준으로 영국에서 가장 규모가 큰 대학이다.

## 5. 현대의 대학

20세기 미국 대학들은 산업자본주의와 국가주의, 기업자본주의를 공학과 경영학을 통해 수용했다. 19세기 중반 주립대학들이 설립되기 이전, 거의 모든 미국 대학들은 개신교 정신을 바탕으로 설립되었다. 19세기 후반 이후 신학과는 갈등 속에서 대학의 관심은 신학적 세계관의 인재 양성에서 기술적 지식을 활용하는 인재 양성으로 옮겨갔다. 대학 자체도 교회의 대학에서 국가의 대학 혹은 기업의 대학으로 변화했다.

1636년 설립된 하버드대학은 청교도 신앙으로 지역사회를 유지하려는 믿음에서 출발했다. 200년 동안 그리스·로마 시대의 고전과 기독교 신학 중심의 교양교육으로 일관했던 하버드대학은 20세기 미국의 부와 힘의 역사를 반영한다.

19세기 중반부터 대륙 횡단 철도, 생산의 공업화 등 산업화가 진전되면서 공과대학, 교육대학, 농업대학을 중심으로 한 주립대학들이 생겨났다. 이때 미국 대학의 이념적 화두로서 '사회봉사'가 등장한다. 산업화를 위한 국가 정책을 수용해 삶의 질을 높이고 생활을 개선하자는 실리적 가치가 대두된 것이다. 미국의 실용주의 철학은 산업화의 실리적인 가치를 철학과 학문의 본질로 파악했다.

20세기에 들어서 후 시카고대학 총장이었던 로버트 허친스(1899~1977)는 대학이 시대의 요구를 수용해 기술교육과 직업교육의 공간으로 변질되는 것에 반발하며, 고전과 지성의 공간으로서의 대학의 의미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했다. 자유교육(Liberal Education)에 대한 강한 신념을 표명한 허친스는 역사의 진보에 대한 왜곡된 인식이 물질 만능주의와 기술주의적 사고를 낳고 지성을 말살시킨다고 비판했다.

20세기 미국 대학사에서 경영학의 등장은 핵심적 화두다. 산업화가 가속화하는 가운데 케네디, 록펠러, 벤더빌트 등 거대 재벌들이 대학을 장악하면서 주도 세력으로 등장했다. 미국 대학들이 세계 최고의 반열에 오른 것은 경영학부의 공헌이다. 전통적인 대학의 세 학부는 '신학, 법학, 의학' 등이지만, 20세기에 들어와 경영학부가 '네 번째 전문학부(또는 대학원)'로 자리 잡았다. 경영학이 중심 학문으로 자리 잡은 20세기 대학의 역사는 신학이 주변으로 물러나는 역사로, 그동안 대학을 주도해온 신학의 역할이 '시장의 이념'을 신봉하는 경영학부로 넘어갔다.

20세기 미국 대학의 위상을 높인 주된 요인은 냉전 체제에 있다. 소련과의 패권 경쟁에서 미국 대학들이 군수 산업의 한 축을 담당하면서, 국가의 대규모 지원 속에 냉전 참가의 대가로 발전을 이루었다. 사회주의권과의 체제 경쟁을 위해 모든 지식의 전략화가 진행되어 심리학, 인류학, 사회학 등도 냉전 체제의 연구를 위한 지원을 받았다. 스탠포드대학은 1930년대까지는 변방 대학이었지만, 군수 산업을 위한 연구 기금을 유치하고 그 돈으로 연구와 인적 투자를 하면서 최고의 연구 중심 대학으로 성장했

다. 아이젠하워는 50년 간의 공직 생활을 마감하면서 군수 산업에 치중하는 국가적 투자가 야기하는 문제를 지적하고, 국가의 막대한 지원 탓에 미국 사회와 대학의 학문 활동 자체가 왜곡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돈이 연구의 목적이 될 때 대학이 더 이상 자유로운 이상의 공간으로 존재하지 못한다는 말이다.

### • 하버드대학: 1636년 설립

1636년 '매사추세츠 식민지 일반의회'에서 대학 설립안이 승인되고 400파운드의 예산이 책정되면서 영국의 식민지인 미국에서 최초의 대학이 설립되었다. 1637년 케임브리지의 옛 지명인 뉴타운에 대학을 세우고, 1638년 교명을 케임브리지대학으로 정했다. 개교 당시의 설립 목적은 목사 양성이었으며, 9명의 학생과 1명의 교사로 출발했다. 1638년 찰스타운에 살던 존 하버드(1607~1638) 목사가 사망하면서 소장 도서 400여 권과 재산의 절반을 대학에 기증했는데, 그의 공적을 기려 교명을 하버드칼리지로 변경했다. 1642년 대학 최초의 학위식을 통해 9명의 졸업생이 탄생했고, 1650년 영국 왕실의 칙허장을 하사받았다. 1653년 매사추세츠 출신 인디언 존 사사몬이 입학하면서 이 대학 최초의 원주민 학생이 탄생하기도 했다.

하버드대학교는 영국 옥스퍼드대학교와 케임브리지대학교의 제도를 모방한 조직으로 출발해, 식민지시대에는 목사 양성에 필요한 종교 교육을 의무화했다. 1869년부터 40년간 학장을 지낸 찰스 엘리엇은 독일 유학의 경험을 살려 전문적인 연구 중심 기관으로 교육 제도와 내용을 개혁했다. 특히 선택과목 제도는 개인지도 제도, 전원 기숙사 제도와 함께 미국 대학 커리큘럼의 원형이 되었다. 대학 1학년생은 전원 올드야드 기숙사에서 대학 생활 오리엔테이션을 받게 되며, 2학년년부터 4학년까지는 하우스라고 일컫는 기숙사에 배치되어 교양과목(liberal art)을 중심으로 전공교육을 수강한다.

### • 존스홉킨스대학: 1876년 설립

존스홉킨스대학은 웨이커교를 믿는 은행가인 존스 홉킨스(Johns Hopkins)의 기부금을 바탕으로 1876년 남자대학원으로 설립되었다. 1878년 미국 대학 최초로 출판부를 설치하고 많은 학술지를 발행했다. 1889년 존스홉킨스병원이 별개 기관으로 설립되지만 재정난으로 대학에 의과대학을 두지 못하다가, 1893년 남학생과 동등한 조건으로 여학생도 의과대학에 입학할 수 있도록 기부금을 모금한 여성들의 기부로 의과대학이 만들어졌다.

초대 총장인 대니얼 C. 길먼(Daniel Coit Gilman)이 독일의 학술 연구 중심 대학을 지향해 당시 유럽에 비해 수준이 낮았던 미국 대학에 처음으로 과학 연구를 중심으로 하는 대학원 수준의 연구과정을 마련하고 미국 최초의 연구원 시스템을 구축했다. 대학교육의 중심을 학부에서 대학원으로, 일반교육에서 전문교육

으로 옮기는 데 공헌했다. 세미나식 교육을 처음으로 실시했고, 예일대학(1861) 등과 함께 박사학위를 최초로 수여했다.

### · 시카고대학: 1857년 설립

1857년 S. A. 더글러스가 기증한 토지를 기초로 설립된 시카고대학은 1886년 재정난으로 폐쇄되었다. 이후 1890년 미국침례교 육협회가 록펠러가 대학을 인수하고, 마샬필드 백화점 창설자인 마샬 필드가 학교 부지를 기증하면서 다시 설립된 시카고대학에서 1892년 10월 1일 첫 수업이 진행되었다. 개교 이후 '실용주의(pragmatism)'의 본산으로서 사회학, 교육학, 자연과학 분야에서 급속한 발전을 이루었다. 제5대 총장인 교육학자 로버트 허친스가 교양교육을 강화한 '시카고플랜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유명하다.

시카고대학은 비종교주의의 연구 중심 사립대학교로 순수 학문에 치중하는 경향을 띤다. 특정 종파를 내세우지 않으며 학제 간 연구와 공동 연구를 수행해왔다. 특히 사회과학 분야는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시카고학파로 유명하다. 시카고대학 중심의 경제학자들이 주축이 되어 결성된 시카고학파는 신자유주의 학파로 불리기도 한다. 1980~2000년대 시장주의와 수리경제학의 본산이 되었으며, 시장 메커니즘에 의한 경제 운용, 노동시장의 유연화, 규제 완화, 공기업 민영화, 세계화, 정부 개입 배제 등을 주장해왔다.

## 6. 동아시아의 대학

### · 일본의 대학

1874년 메이지 정부는 도쿄의학교와 도쿄개성학교를 합쳐 법학, 문학, 이학, 의학부를 갖춘 도쿄대학을 출범시켰다. 1886년 고등교육기관의 중심점으로 도쿄대학을 '제국대학'으로 개편하고 우월적 지위를 부여했다. 일본의 대학은 '서구화=근대화'라는 국가 발전 전략에 따라 창립 당시부터 서구의 대학 모델을 이식했다. 독일의 연구 중심 대학, 영미의 대중대학 모델 등을 자발적으로 선택해 일본 특유의 복합 모델을 구성했다. 특히 대학 체제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재원과 시설뿐만 아니라 교수 인력의 부족을 채우기 위해 외국 학자를 초빙하여 많은 비용을 지출했다.

1872년의 '학제'에 따르면 "대학은 고상한 제학(諸學)을 가르치는 전문학교"로 규정되며, 법령으로는 동아시아에서 최초로 '대학'을 언급했다. 1886년의 '제국대학령'에는 "제국대학은 국가의 수요에 부응하는 학술과 기예를 교수하고, 그 온오(總輿)를 구합을 목적으로 한다"고 기술되어 있다. 설립 당시부터 대학의 존재 의의가 국가의 필요성과 강력하게 연결돼 있다. 국가적 목표와 고등교육기관의 역할이 연계되는 양상은 19세기 초 베를린 대학을 필두로 하는 독일 대학의 영향을 보여준다.

### · 중국의 대학

19세기 중엽 중국에서는 미국 선교사들이 설립한 미국의 자유교양대학 형태의 대학들(之江, 聖約翰, 金陵, 嶺南 등)이 중국 정부의 관립 대학보다 앞서 등장했다. 19세기 말 청나라 왕조의 양무파들이 서구의 자연과학과 공학기술을 수용하려는 의도에서 정부의 인가와 지원을 받아 국립 고등교육기관을 설립했다. 자강(自強)학당(1893)을 필두로 북양서학당(北洋西學堂: 1896, 현재의 천진대학), 남양공학(南洋公學: 1896, 현재의 상해, 서안, 베이징, 서남 4 교통대학), 경사대학당(京師大學堂: 1898, 현재의 베이징대학)이 세워졌다. 이들 중 '경사대학당'이 대학 체제의 대표적인 형성 과정을 보여준다.

경사대학당은 1898년 무술변법의 산물로 등장했다. 이 운동의 핵심 인물인 Kang유웨이(康有爲), 량치차오(梁啓超)의 노력으로 광서제의 인가로 설립되었다. 교육 내용은 유교 경전을 비롯한 전통 학문과 서구의 자연과학을 비롯한 공학, 농학, 상학, 법학, 병학 및 서구 외국어 등이 '중체서용(中體西用)'의 원칙에 따라 구성되었다. 1911년 신해혁명까지 경사대학당은 청나라 제일의 관학이라는 지위를 유지하다가 1912년 교명을 '베이징대학'으로 개명하고, 1913년부터 '문, 리, 법, 상, 공' 등의 조직을 갖춘 근대 대학의 모습으로 재탄생했다.

민국정부 초대 교육총감 차이위안페이(蔡元培)가 1917년 베이징대학 총장에 부임하면서 대학의 면모가 일신한다. 그는 청나라 말기 진사 출신으로 경사대학당의 교원을 역임하고, 20세기 초 독일 라이프치히대학에 유학하여 심리학, 미학, 역사학 등을 공부했다. 유학 경험에서 훔볼트식 독일 대학 이념을 체득하고, 이를 중국에 맞게 변용해 교육을 통한 '구국'에 일생을 바쳤다. 1912년 '대학령'을 반포하면서 대학의 기능과 역할을 "심오한 학술을 가르치고 석학과 인재를 양성해 국가의 수요에 응한다"라고 천명했다. 차이위안페이는 대학이 출세를 위한 징검다리기가 아니라, "수준이 높고 깊은 학문을 연구하는 곳"이라는 이념적 지표를 세웠다.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이후 공산당이 장악했던 억압적인 대학 분위기는 1970년대부터 덩샤오핑에 의해 변화가 감지된다. 1998년부터 대학의 관리체제와 구조를 개편하고, 학부와 대학원 신입생 모집을 확대하며, 기존의 무상교육 원칙을 개편해 수익자 부담 원칙을 도입했다. 21세기 들어 중국 대학은 세계 일류대학 건설을 표방하고 있다. 교원 인사제도 개편을 비롯해 외견상 미국식 대학 운영 방식을 도입하며, 대학교육을 시장경제 논리에 접속시키려 시도하고 있다.

### · 한국의 대학

한국 고등교육기관의 맹아적 형태는 미국 선교사들이 설립한 사립학교다. 19세기 말, 미국 선교사들은 선교의 일환으로 교육과 의료사업을 전개하며 전국에 500여 개의 학교를 설립했다. 평



---

양의 송실학교는 1905년에 '대학부'를 개설하고 1908년 대학으로 인가를 받았으며, 배재학당과 이화학당도 '대학부'라는 형태로 미국식 자유교양대학 고등교육 체제를 수립했다.

1910년 일제 강점 이후 1911년에 공포된 「조선교육령」에서 일제는 구한말 정부가 대학으로 인가한 송실대학이나 이화학당의 '대학부'를 전문학교로 인가해주지 않았다. 1919년 3·1운동 이후 일제가 문화정치로 방향을 전환하면서 1922년 「개정조선교육령」이 반포되는데, 연희전문학교(1917), 세브란스의전(1917), 보성전문학교(1922) 등이 전문학교로서 고등교육기관 인가를 받지만, 민립대학 설립운동은 총독부의 방해로 성과를 내지 못했다. 일제 강점기에 한반도에 존재한 대학은 1924년에 6번째 제국대학으로 설치된 경성제국대학(지금의 서울대학교) 하나밖에 없다. 일제는 식민지 엘리트들의 체제 내적 순화와, 식민지 조선에 거주하는 일본인들의 고등교육에 대한 욕구를 충족하려는 목적에서 경성제국대학을 설립했다. 대학교수 전원은 일본인이었으며, 학생들의 25~30% 정도가 조선인이었다.

1945년 해방 이후 미군정 3년 동안, 한국의 교육체제 일반과 대학교육의 기본틀이 형성되었다. 미군정이 한국인 교육 관계자 7인으로 구성된 '교육위원회'는 미국식 학제를 받아들여 6-3-3-4 학제의 골격을 세우고, 일반대학 수업 연한 4년, 의과대학 6년, 2년 이상의 대학원 과정 및 2학기제를 근간으로 하는 대학교육 체도를 적용했다. 미군정의 지도에 따라 일본식 대학 모델에서 탈피해 미국식 종합대학의 모델을 지향하게 된다. 1949년 12월 31일에 공포된 「교육법」으로 대학은 “국가와 인류사회 발전에 필요한 학술의 심오한 이해와 그 광범하게 정치한 응용 방법을 교수 연구하고, 지도적 인격을 도야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는 보편적인 이념적 사명을 부여받았다.

## ‘대학다운 미래대학’을 위한 가치 탐색

대학의 상업화에 따른 다양한 한계가 도출됨에 따라, 대학의 위기를 지적하고 그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학자, 저널리스트는 물론 유관기관에서도 21세기 대학이 나아가야 할 바를 적극 제시하고 있다. 다음은 대학의 공공성을 중심으로 미래대학이 추구해야 할 핵심가치를 제안한 저서나 보고서를 요약한 것이다. 대학이 더 나은 인간, 더 나은 문명 건설을 선도해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면 좋은 참고가 될 것이다.

### 유네스코 21세기세계교육위원회 보고서

#### - 더불어 사는 학습

유네스코 21세기세계교육위원회(International Commission on Education for the Twenty-first Century)는 1996년 『21세기 교육을 위한 새로운 관점과 전망 Learning: The Treasure Within』을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21세기 학교교육이 지향해야 할 방향으로 교육의 네 가지 이념을 제시한다. ‘알기 위한 학습(learning to know)’, ‘행동하기 위한 학습(learning to do)’, ‘존재하기 위한 학습(learning to be)’, ‘더불어 사는 학습(learning to live together)’이 그것이다.

4가지 이념 중에서 교육의 중요한 기본이자 학습의 중심을 ‘더불어 사는 학습’으로 본다. ‘더불어 사는 학습’은 공동체 안에서 다른 지역 사람이나 외국인과 공존하며 조화로운 삶을 영위해나가는 능력에 대한 학습을 말한다. 이는 타인과 타 지역에 대한 이해, 상호 존중 및 상호의존성을 기반으로 이루어진다.

(『21세기 교육을 위한 새로운 관점과 전망 Learning: The Treasure Within』, 유네스코, 1996.)

### 마사 누스바움

#### - 인간성 형성 교육

마사 누스바움은 시카고대 석좌교수로 성장주의를 따르는 교육 정책이 당면한 문제를 짚어내며 교육이 가진 본래의 가치를 되묻는다. 교양교육의 방향으로 ‘인간성 형성’을 제시하며 교육의 미래는 인문학, 즉 교양교육에 있음을 강조한다. 그는 교육의 세 가지 본질적 요소를 ‘성찰적 삶(the examined life)’, ‘세계시민(citizens of the world)’, ‘서사적 상상력(the narrative imagination)’으로 본다.

‘성찰적 삶’은 자신과 자신의 전통에 대해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능력을 말한다. ‘세계시민 교육’은 인류 보편의 인간성을 형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타 지역 문화 및 자기 문화 안에 있는 소수자들에 대한 지식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노력을 강조한다. ‘서사적 상상력 교육’이란 타인의 감성과 욕망에 공감(sympathy)할 수 있는 능력을 신장하고, 감정이입(empathy)과 추측(conjecture)의 습관을 통해 도덕적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교육

이다. 누스바움은 학교는 경쟁의 장이기 전에 더 나은 삶을 준비하는 곳이며, 그러한 삶은 교육 본연의 가치를 깨달을 때 가능하다고 본다.

(『Cultivating Humanity: A Classical Defense of Reform in Liberal Education』, Harvard University Press, 1998.)

### 해리 루이스

#### - 인성 교육의 필요성

하버드대학 학장을 역임한 해리 루이스는 대학이 최고만 추구하며 교육을 망각했고, 교육보다 소비자 만족에 더 신경을 쓰게 되었다고 비판한다. 학생 소비자는 브랜드 가치를 찾아 대학을 지원하고, 대학은 학교의 브랜드 가치를 지키려고 노력한다. 대학이 소비자 만족을 위한 교육에 치중하면서 교양필수 과목은 줄어든다고, 브랜드 가치를 지키기 위한 돈 모으기 경쟁을 치열하게 벌인다고, 대학의 기업화로 국가와 사회에 대한 헌신과 봉사라는 이념이 퇴색되고, 자유로운 인간을 추구하는 교육적 이념도 구호로 남게 된다고, 기업주의는 국가나 사회를 초월한 이윤 추구가 목적이기 때문이다.

해리 루이스는 미국의 대학이 혼을 잃었으며, 동시에 이상과 이념도 잃게 되었고, 학생들의 정신과 지성을 다듬을 도덕적 권위도 포기했다고 비판한다. ‘인간의 올바른 삶은 무엇인가’라는 이상적이고 형이상학적인 질문은 더 이상 대학의 책임이 아닌 세상이 되었다는 것이다. 교수에게도 연구 업적 기술만 요구할 뿐, 인격적 가르침은 교수의 역할과 무관한 것으로 간주하게 되었다고 비판한다. 이어 이상적 교육으로 삶에 대한 통찰력 있는 질문자, 지적 전통의 한계를 지적해내는 비판적 사고인, 자신의 삶을 점검하고 개척하는 능력자를 배출하는 교육을 역설한다.

(『영혼 없는 우수성 Excellence without a soul』, Public Affairs, 2006.)

### 하워드 진

#### - 민주주의 교육과 교육 체제의 바깥에 대한 상상

역사학자이자 극작가, 사회운동가이자 보스턴대학 정치학과 명예교수인 하워드 진은 공존을 위한 진정한 민주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그에게 교육은 ‘진실과 올바른 민주주의를 가르치는 교육’에 해당한다. 그는 미국의 교육 체제가 민주주의의 실현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저버린 체 체제 유지를 위해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들을 억압해왔다고 비판한다. 미국의 교육 체제가 학생들에게 이상과 대안을 꿈꾸거나 사회 부조리와 모순에 분노하고 저항할 방법을 전수하는 대신, 변화의 원동력인 창의적 사고와 ‘공감하는 본질적 삶’에 도달하는 길을 가로막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교육문제에 대한 해법이 교육 체제의 바깥에 있다고 주장

한다. 사회 구성원이 올바른 시민이 되려는 치열한 노력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사회가 참다운 민주주의를 실현하지 못하는 만큼 교육문제의 해결도 그만큼 멀어진다는 것이다. 가장 필요한 앎은 역사를 제대로 아는 데서 시작되며, 그 과정에서 왜곡된 진실이 수정될 수 있음이 강조된다. 그리하여 더욱 투명해진 사회 구성원의 안목이 비열한 권력의 감춰진 모순을 폭로할 것임을 주장한다. 역사는 현재를 살아가는 이들이 해석한 주관적인 과거이기 때문이다.

(『하워드 진, 교육을 말하다 Howard Zinn on democratic education』, 김종승 역, 공리, 2008.)

## 한스 도빌

### - 상아탑 경계 넘어서기

유네스코 전략기획분야 사무차장보인 한스 도빌은 다양한 학문 분야를 아우르는 연구기관이 되기 위해 대학은 '상아탑 속의 상아탑 무너뜨리기'를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한 개의 대학이 하나의 상아탑이라고 볼 때 하나의 대학 안에도 수십여 개의 상아탑이 목격된다며, 상아탑 내부의 경계를 넘어 소통하기 위한 노력을 '상아탑 무너뜨리기'로 표현한다. 이를 통해 창조적 파괴와 재창조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스 도빌은 평화와 상호 이해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며, 문화적 다양성의 공유를 통해 습관과 접근 방식, 견해의 차이를 존중하는 법이 교육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윤리를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다. 대학이 국제 현안을 다루는 새로운 차원의 인큐베이팅 역할을 해야 한다며, 국가 간 상호학위 인정 시스템 마련의 필요성을 언급한다.

(『미래대학 라운드테이블』, 조인원 편, 경희대학교 출판문화원, 2010.)

## 조인원

### - 미래 문명 변화의 추구

조인원 경희대 총장은 경희대가 주최한 '미래대학 라운드테이블'에서 미래대학이 추구해야 할 비전과 가치에 대해 논한 바 있다. 조 총장은 미래대학의 궁극적 목표가 삶의 조건을 존중하고,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 문명의 변화를 모색하는 데 있다고 본다. 지식과 학문의 고매함과 독립성을 강조할 경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 각 분야의 지식이 개체성을 넘어 소통하고 교감해야 하고 동시에 교육과 연구와 실천이 선순환적 구조로 긍정적 영향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또한 교수와 학생의 수평적 관계를 전제하며, 강의 내용이 교수자에 대한 학생들의 공감과 존경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대학은 학생 자신의 선택과 행위가 세상과 인류

의 미래를 위한 어떤 가능성이 될 것인가를 숙고하고 상상하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조 총장은 자신과 사회, 지구와 인류의 미래를 성찰하는 능력을 배양하게 하는 것이 대학의 중요한 가치라고 역설한다. 대학은 수렴과 창조와 새 시민으로서 배려와 존중의 공동체 문화를 내면화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하며, 대학은 '인류를 위협하는 공동 의제에 관한 해법과 실천 방안 제시, 다자간 교류와 협력의 장 마련, 인류애와 지구애를 향한 세계시민의식의 고양과 문화세계의 창조'를 위한 책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미래대학 라운드테이블』, 조인원 편, 경희대학교 출판문화원, 2010.)

## 폴 케네디

### - 질문과 해답을 탐색하는 세계시민 교육

예일대학 폴 케네디 교수는 경희대 '미원렉처'를 통해 고등교육 시스템 안에서 실용적, 문화적, 이론적 측면이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가를 역설했다. 그는 외국 사례, 개인적 경험, 역사적 사실 등의 풍부한 예를 들면서 교양교육의 강화가 필수적임을 밝혔다. 대학교육을 통해 인간에 대해 이해하고, 한 마디로 정의 내릴 수 없는 문제들에 대해 스스로 해답을 찾을 수 있도록 교육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폴 케네디 교수는 반복 학습을 뛰어넘는 완전히 다른 사유 방식을 가르쳐야 한다고, 불확실성, 도덕적 선택이나 철학, 정치적 선택, 전쟁과 평화, 대안적인 경제 정책, 역사적 교훈 등에 대해 생각하는 것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대학교육은 하나의 정답이 아니라 여러 가지 해답 속에서 고민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교육과 인류의 미래』, 미원렉처 편집위원회 편, 경희대출판문화원, 2011.)

## 제니퍼 위시번

### - 상업화의 논리를 넘어서

프리랜서 저널리스트인 제니퍼 위시번은 대학의 상업화에 대한 심층 탐사 르포 『대학 주식회사』를 통해 이익을 위해 대학에 손을 뻗치고 있는 기업의 모습을 상세하게 폭로한다. 재정 적자를 강조하며 교과목을 축소하고, 전임 교원의 채용을 줄이며, 대형 강의를 확대하고 등록금을 인상하는 대학의 현실에서, 대학과 기업의 밀착 관계를 파헤치고, 연구 성과를 통한 기업의 확장성을 비판한다. 그리하여 대학의 교과과정의 '기업'이 요구하는 방향으로 개편되는 방식을 포착하여, 파괴되고 있는 대학교육의 본모습을 해부한다.

대학에는 특색 장사에 혈안이 된 대학 행정, 학자의 양심을 버린 교수들, 학자의 꿈을 포기해야 하는 대학원생들, 박봉에 시달리

며 교사의 사명을 다하는 시간강사들, 치솟는 등록금에 허리가 휘청대는 학생과 학부모 등이 존재한다. '기업의 앞마당이 되는 대학, 스스로 기업화되는 대학, 붕괴되는 학문공동체' 속에서 고귀한 지식의 전당으로서의 대학의 역할이 배제되고 상업화 논리가 만연한 구체적 양상을 적나라하게 비판한다. 그리하여 상업화된 논리를 넘어서 대학의 본질과 정신, 기능을 제고해야 함을 강조한다.

(『대학 주석회사-대학의 상업화에 대한 심층 탐사 르포 University, Inc.: The Corporate Corruption of Higher Education』 김주연 역, 후마니타스, 2011.)

## 서보명

### - 대학 밖의 대학 모색

'경계에 선 지식인'인 재미교포 서보명 시카고신학대 교수는 『대학의 몰락』을 통해 자본에 의해 함몰된 대학을 비판하며, 대학의 본질과 사명에 대해 묻는다. 자본주의 체제는 생산과 소비와 경쟁이라는 이념에 따라 대학이 움직이기를 요구한다며, 학문의 이상은 인간에게 초월적인 숭고함이나 이타적인 삶을 추구하도록 하지만, 자본주의 이념은 철저하게 물질주의의 이윤과 소비의 행위만 앞세우게 한다고 비판한다.

인간이나 이상이나 진리와 같은 주제들이 중요하게 인식되려면, 자본과 시장과 경쟁이라는 이 시대 대학의 우상으로부터 비판적 거리를 둘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배움을 통해 삶을 돌아보고 시대를 직시하고 정의를 외치는 사람들이 있는 곳, 그곳은 시장이 아닌 소크라테스의 '아고라'일 것이며, '큰 배움'으로서의 대학교, 우리에게 이러한 대학이 필요하다. 자본과 시장과 경쟁이라는 21세기 대학의 우상으로부터 비판적 거리를 두고 대학 밖의 대학을 기획해야 한다.

(『대학의 몰락』, 동연, 2011.)

## 마이클 베일리·데스 프리드먼

### - 대학은 상품화의 공간이 아니다

영국 에섹스대학교 사회학과 교수인 마이클 베일리와 런던대학교 골드스미스대학 커뮤니케이션 및 문화 연구 강사인 데스 프리드먼은 대학이 상품화의 공간이 아니라고 강조한다. 대학이 자유로운 연구 활동을 통해 사회적 공공재의 기능을 담당해왔지만, 신자유주의의 영향으로 대학이 '시장'으로 변해버렸다고 비판한다. 역사, 문화, 예술 등 인문학적 교양을 키우고 미래를 위한 영감과 잠재력을 키워야 할 시기에, 대학은 근시안적 미래를 위한 단순한 돈벌이 수단과 기술 습득의 직업학교로 변모해버렸다는 것이다. 민주적 학습의 요새였던 대학이 경제적 주체의 열망만 가득한 비정한 공간이 되었다고 지적한다.

이들이 판단한 영국 대학은 비판적 사고와 독립적인 학습과 창의적인 연구가 이루어지는 공간이었지만, 현재 대학교육은 상품이 되어 시장 논리가 장악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대학 입학률이 감소하면서 사회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고등교육은 취업 도구로 전락하고 있다. 이들은 이제 대학 구조를 새로이 설계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대학의 시장 합리화에 대한 반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대학에 저항하라』 민영진 역, 씨드페이퍼, 2102.)

## 요시미 순야(吉見俊哉)

### - 포스트 중세 모델 탐색

도쿄대 대학원 정보학관 교수인 요시미 순야는 '대학=미디어'로 판단하면서 현 시대 상황을 '글로벌 자본주의와 국민국가의 퇴조'로 요약한다. 순야는 오늘의 대학이 근대적 대학 모델인 '홀볼트형' 대학에 기반하고 있지만, 그 변형인 미국식 대학이 글로벌 자본주의와 연동함으로써 세력을 확장하고 있다고 진단한다. 인재 육성을 위한 교양주의 도식인 '문화=교양'이라는 상상적 구축물이 힘을 잃고 '수월성'이 지배하는 대학에서, 새로이 '자유'에 대해 고민할 것을 제안한다. '교양'으로서의 '자유'를 넘어 새로운 지식을 횡단하며 재구조화하는 지성의 자유가 요청된다는 것이다. 순야는 자유 지성의 새로운 발견을 위한 힌트를 포스트 중세적인 대학 모델에서 찾는다.

순야는 중세 대학의 자유로운 이동성이 오늘날의 국경을 초월한 교류와 일맥상통하며, 라틴어를 토대로 한 중세 대학의 범유럽적 통일성이 영어를 통해 새로운 라틴어의 시대를 맞고 있는 현재와 겹쳐진다고 판단한다. 아울러 인쇄혁명의 지적 혁명에 대응하는 것이 오늘날 디지털화된 지식 기반임을 강조한다. 디지털 혁명으로 도래할 새로운 미디어에 맞서 대학이 사멸과 재탄생의 갈림길에 서 있다고 보는 것이다.

(『대학이란 무엇인가-대학이라는 미디어의 역사 그리고 재탄생』, 서재길 역, 글항아리, 2014.)

## 윌리엄 데레저위츠

### - 삶을 배우는 멘토링의 공간

미국 예일대학 영문학 교수였던 윌리엄 데레저위츠는 '예일대학 입학심사위원회'에서 경험한 편향된 선발제도와 강압적인 교육 시스템을 해부하면서, '좋은 대학'이 학생들을 '바보 같은 착한 양'으로 만들고 있다고 비판한다. 교육 시스템이 애초에 주체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능력을 거세하는 시스템이라는 것이다. 1950년대 미국 엘리트 교육 문화를 다룬 영화 <죽은 시인의 사회>에서 명문대 진학만을 바라보며, 부모의 기대에 따라 의로계, 법조계, 금융계로 진출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던 아이들의

---

모습은 오늘날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수많은 학생이 좋은 자리에 오르기 위해, 학점과 이력서를 위해, 인간관계와 모험과 취미 활동 등 '영혼'을 위한 모든 것을 희생한다. 공부를 못하면 '루저'가 된다는 학부모의 집착과 압박이 학교로 옮겨져, 학교가 고객 서비스 정신에 빠져들고 있음을 지적한다. 교육의 상업화 속에서 대학이 학생을 소비자로 바라보고, 학생들은 돈을 주고 학점을 따는 인식이 팽배해지고 있다고 본다. 덧붙여 이제는 대학이 직업 이상의 삶을 교육해야 하며, 대학과 교수는 판매자가 아닌 멘토 역할을 수행해야 함을 강조한다.

(『공부의 배신-왜 하버드생은 바보가 되었나』 김선희 역, 다룬, 2015.)

---

## 앤드루 델반코

### - 수평적 배움의 필요

콜롬비아대 미국학 주임교수를 역임한 델반코는 대학교육을 위한 다섯 가지 목록을 제시한다. '첫째 과거 이해를 통한 현재의 회의적 성찰, 둘째 무관한 현상을 연결하는 능력, 셋째 과학과 예술에 대한 높은 식견으로 자연계 이해, 넷째 타인 입장에서 경험을 사고하는 태도, 다섯째 윤리적 책임의식' 등 사고와 감성의 습관들을 교육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미국 대학의 문제를 '세계화, 경제적 불안정, IT 혁명, 공교육의 허점, 길어지는 청소년기, 교수 종신제의 와해' 등으로 파악한다. 대학의 압박 요인 중 하나로 교수의 계약직화와 겸임화 현상을 강조한다. 시간강사나 계약직 교수가 늘어나는 미국 교수 사회의 와해가 아웃소싱의 증가, 노조의 쇠퇴와 함께 임시직 노동의 단면을 보여준다. 대학은 국가적이고 개인적인 경쟁력을 강화하고, 보편적인 민주시민을 양성하는 기관이어야 한다. 또한 새롭고 즐거운 첫 경험을 제공하는 공간이 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College: What It Was, Is, and Should Be』,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12.)

## 경희대학교 미래대학리포트 2015

**발행인** 경희대학교

**편집인** 경희미래리포트집행위원회

**발행일** 2015년 6월 5일

**발행처** 경희미래리포트집행위원회

02 961 9194(사무국)

khufur@khu.ac.kr

서울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

경희대학교 네오르네상스관 201호





---

경희의 미래, 인류의 미래